

최고의 공교육 교사들이 전하는

#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핵심자료집

tbs 한국경제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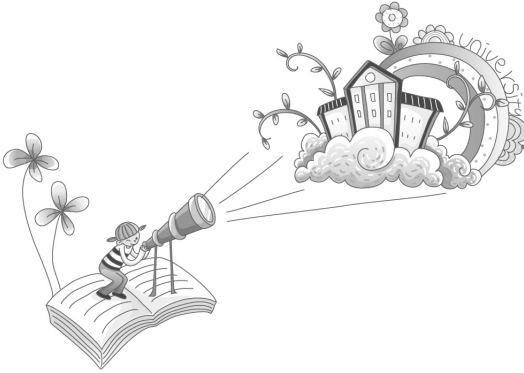
Standard Board for Korean Certified Education Consultants





2013 대학입시 설명회 자료집

# C.O.N.T.E.N.T.S



## PART 1. 2014 수능 이해와 대비

- I. 2014수능,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6
- II. 2014수능에 따른 각 영역별 변화를 살펴보자 • 9
- III. 2014수능에 대한 대학의 입장은 어떠할까? • 13
- IV. 2014수능에 맞는 적절한 학습법은? • 15
- V. 2014 수시 대비 • 18
- VI.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33
- VII. 정시전형의 이해 • 35
- VIII. 절대평가에 어떻게 대처할까? • 42

## PART 2. 전략적 대입준비를 위한

### 2013대입방향 바로잡아 준비하기

- I. 목표 대학 설정 어떻게 할까? • 46
- II 수시모집! 방향잡고 공부하기 • 52
- III 정시모집! 방향잡고 공부하기 • 63

## PART 3. 입학사정관제의 실제와 대비 • 91





# Part I



## 2014수능 이해와 대비

- 
- I. 2014수능,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II. 2014수능에 따른 각 영역별 변화를 살펴보자
  - III. 수시모집! 방향잡고 공부하기
  - IV. 절대평가에 어떻게 대처할까?
- <부록>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
-



● I **근거수능,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4수능은 국영수를 난이도 별로 A, B로 나누고, 영역별 시험을 교과서 중심의 과목별 시험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근본적으로는 학습부담을 줄여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취지이다.

수험생의 과도한 수능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에서 출제하는 내용이 일치되도록 교과 중심의 수능 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취지는 바람직하나 2014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불안감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2014수능의 취지와 방향 속에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학년도 수능 수준별 시행**

현행 수능	2014수능
언어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A형 :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를 줄이고 쉽게 출제</li> <li>• 국어 B형 : 현행 수능 수준</li> </ul>
수리영역 (가형/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 A형 : 현행 수능의 나형 수준</li> <li>• 수학 B형 : 현행 수능의 가형 수준</li> </ul>
외국어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A형 : 국가영어능력평가의 3급 시험 수준과 유사하게 출제</li> <li>• 영어 B형 : 국가영어능력평가의 2급 시험 수준과 유사하게 출제</li> </ul>

## 1. 수준별 수능

### 2014수능 개편안

현 행		개 편	
언어영역		국어	A형
			B형
수리영역	가형	수학	A형
	나형		B형
외국어영역		영어	A형
			B형
탐구영역	사회(11과목 중 3과목 선택)	탐구	사회(10과목 중 2과목 선택)
	과학(8과목 중 3과목 선택)		과학(8과목 중 2과목 선택)
	직업(17과목 중 3과목 선택)		직업(5과목 중 1과목 선택)
제2외국어 한문영역(8과목 중 1과목 선택)		제2외국어 한문(8과목 중 1과목 선택)	

2013입시까지는 수학을 제외한 국어와 영어에서는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수능을 치렀다. 그러나 2014수능에서는 국어와 영어과목도 수학과 같이 A형, B형으로 나누어 수준별로 시험을 본다.

수준별 수능을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언어, 외국어, 수리에서 국어, 영어, 수학으로 바뀌는 것이다. 언어, 외국어, 수리는 통합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범위까지 포함되어 부담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B형은 현행수능 수준을 유지하되 A형은 현행수능보다 출제 범위를 줄이고 쉽게 출제된다. 수험생들은 진로나 진학하고 싶은 모집단위에 따라 선택하여 수능을 치를 수 있다.

B형의 경우는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가 가능하다. B형을 제한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국영수 모두 B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수험부담을 현재보다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능을 국어, 영어, 수학으로 바꿔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 해도 대비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의 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과연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2. 교과중심의 출제 강화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과목 명칭과 성격이 교육과정과 일치되도록 변경되고 교과 중심의 출제가 더욱 강화된다. 학교수업으로는 기존의 범교과적으로 출제되던 언어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항출제의 범위를 교과 중심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의 과목 명칭과 성격도 언어는 국어, 수리는 수학, 외국어는 영어로 각각 변경된다.

이는 학생부 준비와 수능 준비가 동일해진다는 것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출제됐던 주요개념과 단원이 수능에서도 똑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능과 학생부를 대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학생부 교과와 수능시험 준비를 따로 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능과 학생부를 함께 공부하는 새로운 학습형태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학교 수업에 충실히 임하고 중간, 기말 고사 등에 열심히 대비하게 되면 수능에서의 고득점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대비가 난감한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 출제유형과 난이도가 5월 17일 예비시험에서 공개가 되는데 이 때가 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3. 사회 및 과학탐구의 과목조정

사회 및 과학탐구의 과목을 조정했다. 사회 및 과학탐구는 2009개정 교육과정



에서 변경된 과목을 수능시험 과목에 반영했고, 최대 선택과목 수도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했다. 제2외국어/한문은 유지하되 선진화된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방법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탐구를 1과목만 선택하게 하여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 취소되면서 2과목 선택으로 최종결론이 내려졌다. 1과목만 선택하게 하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 과학과목은 융합 통합형을 지향하고 있는데 수능 개편안은 사회와 과학중 선택과목 2과목씩만 골라 시험을 보도록 하기에 수능개편안의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한다.

● II **근미4수능에 따른 각 영역별 변화를 살펴보자**

구분	현행수능	2014수능	비고	
시행횟수	연 1회 시행	연 1회 시행		
국어	• 50문항, 80분, 100점 만점 • 듣기평가: 5문항	• 45문항, 80분, 100점 만점 • A형/B형중 택 1	• 듣기평가 5문항 지필평가로 대체 • 문항수 5문항 축소 • 수준별 유형선택	
수학	• 30문항, 100분, 100점 만점 • 가형/나형 중 택1	• 30문항, 100분, 100점 만점 • 주관식 30% 출제(9문항)	• 수준별 유형선택	
영어	• 50문항, 70분, 100점 만점 • 듣기평가 : 17문항(34%)	• 45문항, 70분, 100점 만점 • A형/B형 중 택 1 • 듣기평가 : 22문항(50%)	• 듣기평가 확대(34%→50%) • 문항수 5문항 축소 • 수준별 유형선택	
탐구	사회	• 11과목 중 3과목 선택 • 20문항, 30분, 50점 만점	• 10과목중 2과목 선택 • 20문항, 30분, 50점 만점	• 최대선택 2과목
	과학	• 8과목 중 3과목 선택 • 20문항, 30분, 50점 만점	• 8과목 중 2과목 • 20문항, 30분, 50점 만점	• 최대선택 2과목
	직업	• 17과목 중 3과목 선택 • 20문항, 30분, 50점 만점	• 5과목 중 1과목 선택 • 40문항, 60분, 100점 만점	• 17개 과목을 5개 시험 과목으로 통합 • 최대 선택과목 1과목
제2외/한문	• 8과목 중 1과목 선택 • 30문항, 40분, 50점 만점	• 9과목 중 1과목 선택 • 30문항, 40분, 50점 만점	• 제2외국어에 기초 베트남어 추가	



## 1. 국어듣기 폐지 및 문항 수 감축

시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항 수를 5개 감축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 실시되던 듣기평가(5문항)는 지필평가로 대체하여 출제할 계획이다. 배점은 2점 문항 35개, 3점 문항 10개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어 A는 국어1, 화법과 작문1, 문학1에서 출제되는데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강화되고 비문학의 비중은 감소된다. 교과서내의 지문과 자료를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며 지필평가로 대체된 듣기 평가는 주로 화법 과목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의 과목에 기초한 개념 지식을 묻는 문항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신준비를 철저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배우지 않는 16종 교과서를 전부 살펴봐야 하기에 오히려 학습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2. 영어 문항수 감축 및 듣기 문항수 증가

영어의 경우 시험시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문항 수를 5개 감축하여 수험생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배점은 2점 문항 35개, 3점 문항 10개로 조정할 계획이다.

영어는 지문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해석이 가능한데, 유형별 소재별로 취약지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유형이 빈칸 추론인데 해석보다 논리적 추론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B형은 장문독해에 대비해야 한다.

실용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듣기문항 수는 기존 34%(50문항중 17문항)에서 50%(45문항 중 22문항)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듣기평가에서 세트형 문항(1대화문 2문항)을 도입할 예정이다. 독해 문제가 듣기로 변형되는 유형에 대비해야 하고, 꾸준한 듣기 연습이 관건이다. 하루에 20~30분씩 듣기연습을 하며 동시에 받아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스크립트의 어휘, 구문, 특정표현을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수학은 현재의 수능 유지

수학은 수리가→수학B, 수리나→수학A로 기존의 수능처럼 문항수, 단답형 체제가 같다. 수학의 경우 A형은 지금의 수리 나형(인문계열), B형은 수리 가형(자연계열)과 범위와 난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문항과 배점은 2점 짜리 3문항, 3점짜리 14문항, 4점짜리 13문항이 출제되며, 수학A는 수1, 미적분과 통계기본이 포함되고 수학B는 수1, 수2,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가 포함된다. 수학B는 상위권의 변별을 취해서 3~4점 의 고난도 문제가 출제된다.

교과서의 기본 유제, 예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주 틀리는 유형과 단원을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탄탄한 개념정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응용력을 키우고 기출문제 풀이로 상위권 도약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 4. 탐구과목 축소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는 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바대로 최대 2과목씩 선택 가능하며, 문항수/시험시간/배점 등은 현행과 같다. 직업탐구의 경우 현 수능의 성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현행 직업탐구 17개 과목을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전공기초 영역과 같이 '5개 시험과목'으로 통합하고, 이 중 1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사회탐구는 지리군(한국지리, 세계지리), 일반사회군(사회문화, 법과정치, 경제), 역사군(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윤리군(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과 같이 크게 4개의 과목군으로 묶을 수 있다. 같은 군 내의 과목은 상호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연관성이 있는 과목을 묶어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학탐구 또한 1과목과 2과목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학습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탐구는 물리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의 8과목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농생명 산업(농업이해, 농업 기초기술), 공업(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정보(상업 경제, 회계 원



리), 수산해운(해양 일반, 수산 해운 정보처리), 가사 실업(인간발달, 컴퓨터 일반)의 5과목중 1과목을 택할 수 있다.

탐구 응시 수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된 2012학년도에 탐구 영역의 비율이 낮아진 대학들이 다수 있었던 것처럼 2014학년도에도 전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탐구영역의 반영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능 반영 비중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영비중이 축소되더라도 1~2점으로 경쟁하는 수능에서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2과목 모두 좋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주요대 대부분은 2과목을 반영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수험생들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자신이 선택한 탐구과목에서는 최고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상위권의 학생은 1개 과목을 추가로 더 공부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자면 응시 과목수 축소가 전체 학습량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겠지만 쉬운 수능의 여파로 탐구의 변별력과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5. 제2외국어에 베트남어 포함

선택가능한 제2외국어에는 독일어1, 프랑스어1, 스페인어1, 중국어1, 일본어1, 러시아어1, 아랍어1 이 포함되고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 수정고시에 반영된 베트남어를 제2외국어 과목에 새롭게 포함하였다.

베트남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는데 4만 여명이 응시하는 아랍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아랍어에 학생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고득점자가 많지 않아 백분위 등급을 받기가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아랍어 1,2,3급의 등급컷이 각각 47,23,18점이라는 것을 참조해 본다면 점수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정확하다. 하지만 이는 잘하는 상위권만 유리하고 응시에 의미를 두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III **고민4수능에 대한 대학의 입장은 어떠할까?**

수준별 시험에서 국어는 A,B로 나뉜다. A는 쉬운 국어이고, B는 어려운 국어이다. 수학은 지금과 큰 변화가 없다. 수학A는 인문계 수리인 나형이고, 수리 B는 자연계 수리인 가형과 비슷하다.

	국어	수학	영어	대학수준
인문계	A	B	A또는 B	상위권 대학
	B	A	A또는 B	중위권 대학
	A	B	A	하위권 대학
자연계	A	B	B	상위권 대학
	A	B	A	중위권 대학
	B	A	B	인문교차지원
예체능	A	A	A	
특성화	A	A	A	동일계진학

논란의 초점은 국어와 수학은 똑같이 A,A/B,B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리에서 B를 선택하면 국어는 A를 선택해야 한다. 자연계 학생들이 국어를 힘들어 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쉬운 국어로 동점자가 많이 생겨 변별력이 떨어진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변별력이 떨어져 소신지원을 하지 못해 원치 않는 대학에 들어가면 재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은 속성상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을 선발하려고 애를 쓴다. 따라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국어A의 반영비율을 줄이고 수리의 반영비율을 높이거나 가중치를 크게 높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상위권의 학생들은 선택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국어와 수학이 계열별로 응시해야 하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영어의 경우 상위권은 B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시는 선발경쟁이고 선발을 위해서는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을 선호하기에 쉬운 수능을 치르더라도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난이도 있는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심도있게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014 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예시

대학	계열	국어	수학	영어	가산점
중앙대	인문	B	A	B	
	자연	A	B	B	
	예체능	A	A	A	
한양대	인문	B	A	B	
	자연	A	B	B	
	예체능	A/B	A/B	A/B	B형 가산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것은 그 동안의 대학의 행태를 볼 때 불을 보듯 훤히 일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의 취지인 학업부담과 사교육 경감은 빛을 볼 수 없다.

계속 지속되고 있는 쉬운 수능, 과도한 준비 부담 없는 수능시험이 지속됨으로써 수능에 의한 변별력은 점차 약화될 전망이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이 확대되고, 등록률이 증가되는 현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가 여전히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되고 교과성적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한 집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특정 영역에 대한 경쟁력을 견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각 대학은 점차 정시 모집의 비중을 줄이고 수시 모집에서 최종합격을 위한 최저학력기준으로의 수능 성적 활용을 선호할 것이기에 수능이 여전히 중요한 전형자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1. 국어학습

국어학습의 기초는 독서다.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 국어는 독서능력에 비례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수능에서는 ‘언어 1등급이 수능 1등급이다’라는 말이 있다. 국어학습의 실력이 쌓이지 않으면 수능1등급은 힘들다는 뜻이다. 수학과 영어에서도 국어학습을 통한 제시문 파악력과 이해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바라는 점수를 얻기 힘들기에 생겨난 말들이다.

국어학습의 관건은 독서를 통한 읽기와 어휘력 훈련이다. 어휘 사전을 들고 평소 공부하면서 꾸준히 어휘력을 길러야 한다. 국어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상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만나는 지문들을 제대로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중위권 학생들은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을 허술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취약부분, 즉 자주 틀리는 부분을 체크하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상위권 도약의 지름길이다.

이를 통해서 제시문 파악력과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할 뿐만 아니라 비판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까지 묻고 있다. 평소에 이러한 습관을 잘 들여 사고력과 논리력이 신장될 때에만 수능에 대비할 수 있고 논술도 바라볼 수 있다.

상위권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중의 하나가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너무 믿은 나머지 출제자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선입관이 오답을 고르게 하는데 철저한 문항 분석과 자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실력향상의 지름길이다.

국어가 바탕이 안 되면 다른 교과에서도 자신감을 갖기가 힘들다. 더욱이 국어나 논술은 단기간의 사교육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다. 아무리 사교육을 시켜



도 기본적인 독서량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적 향상은 요원한 이야기이다. 평소의 꾸준한 독서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국어만큼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과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2. 수학학습

수학의 경쟁력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사실 수학에 능통한 학생들이 수리적 사고력을 겸비하고 두뇌의 회전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수학은 명문대 입학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수학의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수학이 쉽게 출제되면 표준점수가 낮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면 같은 점수대의 동점자를 다수 양산하여 상위권의 변별력이 약해지고, 학생들은 소신지원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는 하향지원추세로 이어진다.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 혼자 고민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 유형을 익히는 학습에 익숙하고 풀다가 안 풀리면 바로 해답을 보면서 해결한다. 당연히 기본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확립될 수가 없다.

학원에서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고개를 끄덕거린다. 하지만 집에 와서 자신이 스스로 풀어보면 막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미분과 적분에서도 기본적인 공식이나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무작정 공식을 외우는 학습으로 일관할 뿐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관심도 없다.

선생님이 풀어주는 대로 편하게 공부하려는 ‘보는 수학’, ‘듣는 수학’이 아이들의 수학능력을 감소시킨다. 고민해서 스스로 자기 적으로 만드는 ‘하는 수학’이 필요하다. 중위권의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 다른 풀이가 없는지 생각하면서 훈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응용력을 키우는 것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나 박스형 문제들을 모아 풀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위권 학생들은 한 번 풀어본 문제도 숫자가 바뀌고 표현을 달리하면 어려워 한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어보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교과서의 예제 문제를 완벽히 풀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제를 완벽히 풀고 각 단원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파악한 후에 단원별 핵심 유형 문제를 공략하는 것이 수순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학을 학습하지 않으면 수학의 성취도를 높이기 어렵다. 수학은 체계가 있는 계단식 공부이기 때문이다. 수학이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키워드이므로 초, 중학교 때부터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영어학습

영어는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1등급 커트라인은 항상 90점 초반을 유지한다. 2010입시에서는 약간 점수가 내려가서 92점이었다. 2011입시 역시 조금 어려워서 90점에 머물렀다. 2012는 물수능의 영향으로 영어 만점자가 1만 7천명이나 나와서 혼란을 야기했다.

다른 영역에 비해 90점 이상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의 관리가 잘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상위권에 잘하는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어 1,2등급은 항상 높은 점수대를 유지한다. 이 말은 웬만큼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1,2등급으로 올라가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2에서 1등급이 6.3%까지 나와서 한 문제가 틀렸는데 대입지원이 망가지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휘실력과 독해 실력이다. 하지만 하위권의 학생들은 제시문을 공부하기 전 미리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수업후 꼼꼼히 복습을 철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하위권 학생들은 기초적인 부분을 확실히 학습하여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중위권, 상위권으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이외에 국어적인 능력이 갖추어져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단어와 문법 실력이 있고 해석능력이 가능하다고 상위권의 점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상위권의 변별을 위해 3~4문



제는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이다.

상위권의 경우 취약한 유형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취약한 유형없이 실수로 한두 문제를 놓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좋다.

어렵다는 말은 해석도 까다롭지만 언어능력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힘든 제시문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즉 한국말로 해석을 해놓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 출제된다. 그래서 언어영역의 바탕이 되는 논리력과 사고력이 부족하면 문제에 접근 자체가 힘들어진다.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빈칸 추론 등의 문항이 증가하면 난이도는 더욱 상승한다. 지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이유이다.

중위권의 학생들은 구문이나 어휘 실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실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적절히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반복연습을 통해서 아는 것을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처럼 어휘력, 독해력의 향상과 함께 고등의 지적능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영어 영역에서 추론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막히게 되고, 고득점은 요원한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 V **2기4 수시 대비**

**1. 입시의 중심축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와 기업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시험 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을 선호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논술이나 면접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력뿐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 인성까지도 측정하려고 한다. 대학은 사회의 이

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에 다양한 전형요소로 가능성을 판단하려고 한다.

수시는 정시처럼 점수위주의 획일적이고 계량적인 전형에서 벗어나 학생의 특성이나 소질을 인정하는 전형이다. 성적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리더십이 있고, 특별한 재능이나 잠재력을 갖췄으면 수시를 통하여 대학 진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반의 2등이 붙고 4등이 떨어져야 하는데, 2등이 떨어지고 4등이 붙는 경우가 수시에서는 종종 일어난다.

주요대학 인원과 비율-2013수시 예시

대학	수시모집 전형별 인원(명)			수시모집 비율(%)
	일반전형	특별전형	계	
가톨릭대	587	464	1,051	56.9
건국대(서울)	945	970	1,915	57.2
경인교대	-	125	125	19.0
경희대(서울)	850	592	1,442	56.3
<b>고려대(서울)</b>	<b>1,351</b>	<b>1,325</b>	<b>2,676</b>	<b>65.5</b>
광운대	213	867	1,080	56.5
국민대	896	866	1,762	52.1
<b>단국대(죽전)</b>	<b>934</b>	<b>709</b>	<b>1,643</b>	<b>62.2</b>
덕성여대	496	106	602	46.2
동국대(서울)	677	1,005	1,682	57.4
동덕여대	471	262	733	38.8
<b>명지대</b>	<b>1,532</b>	<b>585</b>	<b>2,117</b>	<b>60.7</b>
상명대(서울)	695	37	732	48.8
<b>서강대</b>	<b>652</b>	<b>510</b>	<b>1,162</b>	<b>64.5</b>
서경대	269	450	719	47.7
서울과학기술대	871	286	1,157	48.5
서울교대	-	130	130	33.0



서울대	-	2,689	2689	80.3
서울시립대	252	757	1,009	54.2
서울여대	981	240	1,221	64.4
성균관대	1,034	1,418	2,452	65.0
성신여대	628	793	1,421	58.8
세종대	780	441	1,221	47.8
숙명여대	600	941	1,541	63.3
송실대	784	837	1,621	55.1
아주대	351	693	1,044	49.5
연세대(서울)	1,160	1,357	2,517	66.6
이화여대	860	883	1,743	54.5
인하대	1,543	762	2,305	60.5
중앙대(서울)	1,717	879	2,596	80.9
한국교원대	-	337	337	56.5
한국외대(서울)	382	758	1,140	63.0
한성대	653	305	958	53.3
한양대(서울)	822	1,202	2,024	64.0
홍익대(서울)	1,217	444	1,661	61.7

※ 음영과 진한 글씨는 수시모집 비율이 60%

외형상으로 보아도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65~75%에 이르고 있다. 연대, 고대가 각각 70%, 서강대가 67.9%, 숙명여대 69.3%, 인하대 65.5% 정도의 인원을 수시로 선발한다.

더욱이 미등록인원을 충원하므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정시의 선발인원 역시 축소되어 커트라인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2014수시에서도 수시모집에서는 선발 비중확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미등록인원

충원도 여전히 계속됨에 따라 수시가 여전히 중요하고 교과성적의 영향력도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최저학력기준을 여전히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수능 특정영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학생들 개인의 수능 영역별 성적의 편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수시에서는 전형요소가 매우 다양하다. 내신이 강한 것을 무기로 삼아 들어가기도 하고, 내신도 수능도 경쟁력이 없는 학생이 뛰어난 논술 실력을 바탕으로 논술 전형에 합격하기도 한다. 물론 경희대나 세종대의 논술우선선발처럼 수능도 반영하지 않고 논술실력으로 전형을 하기도 한다.

학생부나 논술에서 경쟁력이 미약한 학생들도 대학진학의 돌파구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 하위권의 학생들은 적성검사를, 특별한 특기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특별전형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주요대학 학생부 중심전형-2013입시 예시**

대학	전형유형	전형요소	최저학력기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면접과 서류 100%	2개 영역 2등급 이내
연세대	학교생활 우수자	1단계: 교과성적 100%(3배수) 2단계: 서류평가 (우선선발50%) 3단계: 비교과 서류70%+면접 30%	인문:3개 영역이상 2등급 자연:2개 영역이상 2등급 의치예:3개 영역이상 1등급
고려대	학교장추천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서류60%+면접40%	2개 영역 2등급 이내

수시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라도 전형유형에 따라서 유불 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전형에 강점을 보이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별 모집시기 또한 눈여겨보아야 한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수능이전에 논술을 실시한다. 이는 우수학생을 선점하려는 대학의 의중을 암시하고 있다. 즉 논술을 보고 합격을 했으면 수능이 서울대 들어갈 정도로 나왔더라도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다. 학생 입장에서는 망한 것이고, 대학 입장에서는 서울대에 갈 아이를 건졌으니 대박인 셈이다.



## 2. 논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학이 논술을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변별력이다. 학생부의 지역적 차이와 수능의 난이도가 저하됨에 따라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서너 개의 제시문을 주고 논술, 비교, 분석, 적용하라는 시험에서 논술에 능한 학생이 수학 능력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질적 수준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다.

논술을 준비하면서 이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학생들의 중고교 학습능력은 배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단편적인 공부에 치중하여 유형암기의 학습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자신의 논리를 창의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겸비하려는 학습이 필요하다.

논술의 시초는 제시문 파악력이다. 제시문의 주제와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시문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이 논술을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제시문 요약에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요약형 문제의 답은 단순한 요점 정리식의 압축을 뜻하지 않는다. 제시문의 다양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른 내용들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A의 관점에서 B를 재조명하는 논제등이 이러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요약도 글자 수만 줄이는 압축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중학생이 논술을 준비한다고 할 때 제시문을 요약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논술 준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통합교과 논술은 수학적인 실력도 요구하기에 수리영역에 자신감이 떨어지면 수리논술에 대처하기 힘들다. 인문계 논술에서도 수리적 해석과 수리적 풀이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희대를 비롯하여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수학적, 논리적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 2주요대학 논술출제 유형

논술유형-인문계	
언어사회논술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대
언어사회/수리논술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상경계)
논술유형-자연계	
수리논술	한양대, 홍익대, 서강대, 아주대
수리과학논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인하대
수리+과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이화여대

고등학생들은 논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국영수 공부하기에 도 바쁜 마당에 언제 독서를 통해서 제시문 파악력과 사고력을 키워 논술에 대비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다양하다. 국어의 비문학 제재에 나오는 인문사회 계통의 제시문 은 논술에 출제되는 제시문과 상관관계가 높다. 따라서 인문사회 교과서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주제를 찾거나 요약하는 훈련을 하면서 언어영역을 준비하면 논 술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자연계 논술은 심화형 수능의 형태로 출제된다. 계열의 특성상 수학 및 과학지 식을 많이 활용하기에 수능의 경쟁력과 상관관계가 깊은 것이다. 따라서 수학과 과학이 결합된 심층적인 문제를 잘 소화할 수 있다면 자연계 논술을 해결하기가 수월해진다. 특히 수열과 극한, 미분, 적분을 집중적으로 출제하므로 이 단원을 심도있게 학습해 두면 도움이 된다.

중학생들도 심층적인 수학문제, 또는 과학 실험과 수학의 개념이 결합된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그래프나 실험 상황을 수학적으로 풀이하 는 유형의 문제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앞으로 치를 논술에 당황할 이유가 없다.

동국대, 경희대, 시립대, 외국어대를 비롯한 몇 몇 대학은 영어제시문이 출제되 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의 논술을 준비하려면 영어실력도 다져두어야 한다. 하지만 영어독해를 못해서 논술을 쓰지 못할 정도의 난해한 영문은 아니다. 수능의 상급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통합교과 논술의 준비**

<b>제시문 파악력이 중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약, 비교, 설명, 평가 비판</li> <li>• 제시문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li> <li>• 제시문 A의 관점에서 B를 설명</li> </ul>
<b>교과와의 높은 연계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와 기본 개념과 원리습득</li> <li>• 전 교과목의 통섭을 요구(언어, 영어, 사회, 경제, 수리)</li> </ul>
<b>다양하고 깊이있는 독창적인 시각을 요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생활, 사회적인 이슈와 결합</li> <li>• 교과와 내용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결과보다 추론 능력, 논리성 파악에 초점)</li> </ul>
<b>독서와 토론의 병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적인 독서</li> <li>• 추천도서목록/컬럼, 사설</li> </ul>
<b>기출문제와 친해지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약하기/제시문의 상호관련성</li> <li>• 다양한 자료에 대한 해석을 요구(도표, 그림, 수학, 통계, 그래프 해석 요구)</li> </ul>
<b>피드백을 받아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의 글에 대한 장단점</li> <li>• 논리적 오류 수정/논술 스터디/리라이팅</li> </ul>
<b>계열별, 단과대학 특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균관대/한양대/서강대/이대</li> </ul>

외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특기자전형에 노려볼 수 있다. 또한 10%의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전형 등으로도 합격이 가능하기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뚜렷하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별하여 집중하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다.

학생부는 수시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내신의 고수들은 서울대나 연고대의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가능하고, 반에서 상위권인 학생들은 중상위권 대학에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가능하다. 이때 연고대는 1.3~1.4등 이상이 합격선이고, 중상위권도 최소한 1.4~1.6등급 내에는 들어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생부 중심이라도 비교과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내신이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0~20%가 반영되는 비교과가 큰 영향력을 발휘해 합격하기도 한다.

수시라고 해서 수능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수시에서도 수능의 경쟁력을 보여 주어야 최종합격이 가능하다. 다만 수능의 최저학력기준이 정시보다는 낮게 형성된다는 것을 주시하자.



수시에서의 수능은 등급이 반영된다. 경희대의 경우 정시에서는 4개 영역 평균 2등급 초반은 되어야 합격을 바라볼 수 있지만, 수시에서는 2개 영역 평균 2등급만 되어도 합격이 가능하다.

연고대나 성균관대, 한양대는 최저학력기준이 높게 형성된다. 특히 연고대의 논술전형 우선선발은 3개 영역 1등급을 요구할 정도로 높지만, 대신 최저학력기준만 갖추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요 대학의 논술반영비율-2013예시

대학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논술	
연세대	1차 〈일반우수자〉	우선선발(70%)	30	70	
		일반선발	50	50	
고려대	2차 〈일반전형〉	우선선발(60%)	20	80	
		일반선발	1단계	50	50
			2단계	40	40
		*논술 9.22(자),23(인)/면접 12.4/2단계 면접 20%			
성균관대	2차 〈일반전형〉	우선선발(70%)	30	70	
		일반선발	50	50	

주요대학의 논술 최저학력기준-2013예시

연세대	우선선발	인문: 언수외 각 1등급 자연:수리 가 및 과탐 모두 1등급
고려대	우선선발	인문: 언어 또는 외국어 1등급, 수리 1등급 자연: 수리 가 1등급, 과탐/외국어 중 1개 1등급
성균관	우선선발	인문: 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6 자연: 수과탐 중 합 3개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5 반도체, 소프트웨어 수가 과탐 합 198 글로벌 경영, 경제, 리더학: 언수외 각 1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8



정사에서 연대 경영학과에 가려면 국영수 백분위가 97,98,99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한 영역은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치명적이다. 하지만 수시는 최저학력기준에 있어서 우선선발은 3개 영역 1등급이다. 3개 영역 평균 96이상이면 된다. 일반선발에 있어서는 3개 영역 2등급이기에 훨씬 낮은 백분위로도 가능하다. 수능이 확실하지 않은 학생들은 논술을 강화하여 수시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전략이다.

### 3. 내신 등급별 지원전략

내신 1등급의 학생이라면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대입전략을 세울 때는 내신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모의고사 성적이 들쭉날쭉하거나 학생부에 비해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중심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전교1,2등이면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의 학생부 중심전형에도 복수지원하는 것이 수순이다. 비교과가 탄탄하다면 내신이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까지 떨어지더라도 상위권의 대학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교과가 부족하다면 적어도 1등급 중반은 되어야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중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내신 2등급의 학생은 자신의 강점에 맞춰 어떤 전형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비교과뿐만 아니라 논술의 경쟁력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논술의 경쟁력이 출중하다면 상위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고대의 논술전형의 40~50%의 학생이 뒤집기에 성공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신이 2등급 초반이면서 비교과가 바탕이 된다면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노려볼 수 있다. 물론 20~30%정도 반영되는 비교과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간혹 학생부 2등급대의 학생이 수능에서 2등급일 때 가능한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의 하위권 학과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모의고사 경쟁력도 떨어지고 비교과도 없다면 이 대학들은 상당히 힘들다. 같은 처지에 있는 내신의 고수들이 대거 지원하기 때문이다.

내신이 3등급이면 23%가지이니 한 반에 40명이라고 치면 9등이나 10등까지의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실 학생부 3등급이면 in 서울에서는 학생부의 경쟁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정도의 내신에도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면 동국대나 숭실대 정도를 노리는 것이 좋다. 안정권을 노린다면 단국대나 경기대도 생각할 만하다. 또한 논술이나 면접에 자신이 있다면 건국대, 홍익대도 고려할 수 있다.

#### 내신 등급별 지원전략

구분(내신)	핵심 포인트
1등급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이 1등급이면 수시의 상위권 대학에 학생부 중심전형에 소신지원</li> <li>• 수능의 경쟁력이 강하면 정시의 수능 우선선발에 지원</li> <li>• 수능이 1등급이 나오지 않고 내신이 1등급 이내면 경희대, 서울시립대 지원</li> </ul>
1등급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이 2등급이면 수시의 중상위권 대학 논술전형에 지원</li> <li>• 수능이 1등급 후반이고 비교과가 있으면 연고대의 하위권 학과나 성대 학생부 전형에 지원</li> </ul>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영역 이상 2등급이 나오고 논술에 강점이 있으면 논술 일반전형에 지원</li> <li>• 2등급 초반이면 중하위권 대학의 학생부 중심전형에 지원</li> <li>• 수능이 2개 2등급 정도면 중경외시의 논술전형에 지원</li> </ul>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이 평균 3등급이내이고 논술이 준비되어 있다면 경기대, 명지대의 논술전형에 지원</li> <li>• 뚜렷한 소질과 특기가 있다면 입학사정관제에 도전</li> <li>• 3등급 중반이면 적성검사에 주력</li> </ul>

## 4. 수시모집 자가 진단 사항

### 가. 학생부 성적이 수능모의고사 성적에 비하여 우수한가?

수시모집의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는 학생부이다. 학생부 성적이 모의수능 성적에 비해 우수하다면 수시모집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학생부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수시모집은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게다가 올해도 미등록 충원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도 고려하도록 한다. 이때 모의고사 성적 기준은 6월 평가원 대수



능모의평가 표준점수 성적으로 삼는 것이 좋다. 그리고 9월 평가원 대수능모의평가 가는 가채점 결과로 분석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수시모집에서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평가할 때는 학생부 교과성적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각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학생부 반영방법이 무엇이고 감점이 적게 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따져보도록 한다.

수시모집 학생부 반영방법-2013입시 예시

대학	반영교과	학년별 반영비율
건국대(서울)	인문:국영수사/자연:국영수과 전과목	1학년(20)/2,3학년(80)
고려대(안암)	인문:국영수사/자연:국영수과 전과목	학년별 동일
덕성여대	인문:국영수/자연:수영과 전과목	학년별 동일
성균관대	인문:국영수사/자연:국영수과 전과목	1학년(20)/2학년(40)/ 3학년(40)
세종대	인문,자연:국영수사과 전과목	1학년(20)/2학년(40)/ 3학년(40)
중앙대(서울)	인문:국영수사/자연:국영수과 전과목	학년별 동일
한양대	인문:국영수사/자연:국영수과 전과목	학년별 동일
광운대	인문:국영수사/자연:국영수과 전과목	1학년(40)/2학년(40)/ 3학년(20)

대학에 따라 학생부 4등급이나 5등급까지는 거의 점수 차를 두지 않는 대학도 있다. 이제는 수시모집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올해 수능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물수능(쉬운 수능)’이 예상된다. 쉬운 수능 체제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재수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중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재수나 반수 대역에 합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이 뛰어난 졸업생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모집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 나. 학생부 성적이 지원 대학의 모집단위 합격권에 드는가?

대학에 따라 학생부 반영방법이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부 성적이 저조하면 단계별 전형보다, 대학별 고사와 학생부 성적으로 일괄합산하여 전형하는 대학이 유리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의 요강과 전년도 입시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상대적 유불리를 판단한다.

합격권을 판단 할 때 전년도 합격선을 철저히 믿을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을 발표하지 않고 평균을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년 요강의 변화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진학 관련 자료나 합불자료가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되면 그 다음 해의 진학은 더 힘들어 진다. 전년도 데이터를 확인하고 더 안정적으로 지원 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 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어느 정도인가?

출결사항, 각종 수상경력, 학업관련 탐구활동, 방과후 활동, 공인외국어성적, 자격증 및 인증, 독서활동, 진로탐색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이 상대적으로 좋거나 잘 갖춰져 있다면 수시모집에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한다. 학생부 비교과는 입학사정관, 특별전형, 일반전형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 경쟁력있는 학교 교육활동

중점사항	다양한 교육활동
1. 학교특별사업	중점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등(담임/교과멘토)
2. 수업운영	수준별 수업, 특징있는 교수활동, 발표수업, 모둠별 활동
3. 방과후 운영 및 특기신장교육	방과후 학교 현황, 특기적성교육, 심화방과후 현황
4.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현황 및 기록(사진, 영상, 책자등)
5. 연구체험활동	개인별 또는 스터디 그룹 활동을 통한 실험 성취, 논문제작
6. 독서및 논술활동	독서노트, 논술노트, 수상록, 활동기록 작성하기
7. 교내경시대회	교내 각종 경시대회의 현황, 참가자 수및 시상내용, 성과



8. 학교행사	특활 발표회, 수련 활동및 성과 의의 등, 진로특상
9. 외부연계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외부와 연계한 학교 교육활동 및 기록물
10. 성적관리	현 모의성적, 전년도 수능성적, 내신자료

그러나 학생부 비교과를 반영하는 경우, 합격자가 모두 굵직한 수상 경력이나 공인외국어성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상위권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체 합격자의 20~30% 정도만 굵직한 상이나 공인외국어 성적이 있기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봉사활동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봉사활동에서 느낀 감정, 인생관의 변화는 자기소개서 기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적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지원 대학의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적성고사 등)의 특징과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상대적 유불리를 판단한 뒤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별고사의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한다. 자신의 성적과 능력을 종합하여 논술에 유리한지, 면접에 유리한지 판단하도록 한다.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은 수능 준비와 통하기 때문에 수시모집 준비 자체가 손해를 볼 일은 아니다. 게다가 수시모집 합격선은 동일한 대학과 학과의 정시모집 합격선보다 수능 점수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성고사인 경우는 대개 학생부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다. 미리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면접문항예시

분야	구체적 내용
기본소양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의 주택공급 부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 벨트를 개발하여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한다. 주택공급의 혜택을 누릴 현세대와 그린벨트의 활용기회를 잃어버릴 미래세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li> <li>대학입시 전형의 하나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이 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li> </ol>
교과적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대학: 기업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줄여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li> <li>공과대학: 오토바이를 원형트럭에서 고속으로 운행하는 경우 속도가 높을수록 회전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기울어야 전복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li> <li>공과대학: 승강기에 놓인 체중계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 승강기가 올라갈 때 체중계에 표시되는 체중의 변화를 설명하여라. 다, 승강기가 움직일 때 가속도는 중력가속도와 같다고 가정한다.</li> </ol>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p>〈서울대 사회과학〉</p> <p>제시문A-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정의에 관한 제시문 제시문B- 동서양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인공포증의 양상에 관한 제시문</p> <p>문제1) 제시문 A와 B를 요약하고 제시문들의 함의를 밝히시오. 문제2) 하나의 문화권 내에서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요인을 한국문화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문제3)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p>
창의성 측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 사용하는 휴대폰에 어떠한 기능이 더해지면 더 좋을까?</li> <li>서울역에서 학교까지 걸어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li> </ol>

면접은 확인면접, 인성면접, 심층면접, 토론면접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인성및 가치과, 또는 지원학과와 관련된 소양으로 지원동기와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등의 기본소양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 진다.

교과적성은 전공적성및 학업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영어지문과 수학문항을 제시하기도 한다. 인문계는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는데 논리적 답변이 중요하다. 평소에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교과 외적인 분야에 대한 풍부한 상식과 시각이 덧 보여야 한다. 더불어 틀에 박힌 정답보다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가 중요하다.

자연계는 수학의 논리적 풀이가 중요하고 과학에 관한 법칙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고 답변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교수 앞에서 수학, 과학문제 풀이를 해야 한다. 추가 질문 및 답변에 대비를 해야 한다.

대학별고사는 대학별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도 기출문제나 예시문항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인문계의 경우 수리논술 출제 여부가 중요하고, 자연계의 경우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교과의 통합형 출제인지 아니면 과목별 출제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년도 경쟁률, 합격선, 전형방법 등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합격 가능성을 점검함 뒤에 지원을 결정한다.

합격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금물이다. “전년도에 낮은 점수로 합격한 학생이 있었다”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논술 고사에 비하여 적성고사는 낮은 학생부 성적을 극복하고 합격한 예가 많이 있는 편이다.

**마. 다른 영역에 비해 언어나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저조한가?**

3학년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한다. 모의고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높은 등급(백분위)을 얻기 위해서 질적인 측면도 신경을 쓰면서 공부하게 된다. 개념과 원리학습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초조하고 급한 마음에 요약되고 정리된 것을 암기하고, 쉽게 점수 올리는 비법이나 요령에 귀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3학년에서의 수능모의고사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고, 오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언어와 외국어영역은 점수 올리기가 더 어려운 과목이다.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다지지 않아 실제 수능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끝까지 발목을 잡는 과목이기도 하다.

**바. 수능과 같은 큰 시험에 약하거나 성적의 기복이 심하다?**

실제 수능은 모의수능보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기 힘들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한 두 문제 차이로 합격 가능 대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한다. 큰 시험에 약한 학생은 수시모집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다. 전년도에 이어 쉬운 수능이 된다면, 시험 결과에 변수가 있게 된다.

중상위권 학생들도 수능 후에 치르는 수시2차에만 전력 투구하는 것보다 수능 전에 치르는 수시1차 전형에도 신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자신의 수능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하여 다소 상향지원하여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수시에서 하향지원하는 못한 짓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 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우선선발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기 때문에 논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기도 한다. 상위권 대학은 일반선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수시 지원의 기본이다. 평소에 치렀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시1차와 수시2차에 지원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은 주로 수시1차에 몰려있다.

### ● VI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영어인증시험은 토익이나 토플 같은 시험에 의존했다. 하지만 토플이나 토익같은 해외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현장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에게 적합한 영어시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입수시전형에 까지 활동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올해 2013입시에서도 7개 대학이 수시전형에 NEAT를 반영한다.



지금까지의 영어교육이 문법이나 읽기중심이었으나 NEAT를 도입하여 수능에서 평가되지 않는 말하기, 쓰기능력을 평가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시험의 특징이다.

2013학년도 대입에서부터 많은 대학들이 NEAT를 수시 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중2가 수능을 치루는 2016학년도부터 수능 영어를 대체하는 방안까지 논의중이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은 총 1~3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고등학생용 시험은 2,3급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1급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데 취업과 승진을 위해 개발되었다. 2급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사용능력을 평가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3급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실용영어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 과목의 문항 출제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과 연계되어 NEAT에서 다루는 문항들이 수능에서도 출제되므로 기출 문제를 잘 살펴보고 문항 유형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영어 A형은 3급 시험과, B형은 2급 시험 수준과 유사하게 출제된다. 영어의 출제 유형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NEAT유형과 공략법**

영역	문제유형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
읽기(Reading)	대화체에서 적절한 단어찾기/ 유사어휘찾기/어법/빈칸 어휘추론/어휘의 적절성 판단/단문과 장문독해, 어휘 어법	어휘(토플, SAT, 수능), 문법(토플, 수능), 독해(토플, 토플, SAT)
듣기(Listening)	받아쓰기, 계산/대화중 즉각 응답/어색한 대화찾기/수능 유형/그림표사/주제요약/장문듣고 진실과 거짓 찾기/장문듣기	받아쓰기, 응답, 어색한 대화, 주제(토플)/계산, 그림표사, 기타유형(수능)/장문(토플)
말하기(Speaking)	주어진 주제와 연관된 질문에 답하기/연속된 그림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도표와 그래프 보고 발표/일상생활 표현	토플 lecture(고난도 대비) 짧은 지문 요약 스피킹, 유형별 회화법 훈련
쓰기(Writing)	지문(학술,사건)일고, 듣고 내용쓰기, 쟁점에 대한 의견	지속적인 작문 훈련, 유형별 대비

NEAT의 평가문항은 토플처럼 별도의 배경지식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 학교 생활과 가정, 교육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말하기와 쓰기는 교과서의 단원별 연습문제를 많이 다루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교과서의 단원별 연습문제에 충분히 숙지하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구성은 일기40문항(40분), 듣기50문항(50분), 말하기 15문항(20분), 쓰기 3문항(50분)으로 모두 160분 동안 108문항을 접하게 된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을 인터넷 방식(IBT)으로 치르게 되어 응시 방법도 새로우며, 상대 평가인 수능과 달리 절대 평가인 NEAT의 성적은 각 영역별로 4개 등급 Pass(A,B,C등급)와 Fail(F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학들은 수험생에게 학과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영역별 기준등급을 다르게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문과는 듣기, 읽기, 말하기 A등급을 요구하고, 관광학과는 듣기, 말하기는 3급 A등급을, 철학과는 읽기 2급 B등급 이상 또는 3급 A등급을 요구하는 식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2 이하의 학생들은 희망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맞추어 요구되는 영역별 기준 등급을 미리 획득해 두는 것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VII 정시전형의 이해

정시는 수사에서 흔히 표현되는 소질이나 적성을 중시하는 전형과는 거리가 있다. 수능 점수의 총점으로 전형한다. 상위권에서 변별이 쉬운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국어, 수리, 외국어, 탐구의 표준점수를 합한다. 중위권의 변별력이 큰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각 영역의 백분위 합으로 전형한다.



## 1. 표준점수와 백분위

$$\text{표준점수} = (\text{개인이 얻은 원점수} - \text{전체 평균 점수}) \times 20 + 100$$

표준편차

표준점수는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자신의 성적이 어느 수준에 위치해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가 올라가고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시험을 아무리 잘 보았어도 다른 아이들이 자신보다 시험을 잘 보아 평균이 높아지지만 표준점수는 높게 나오지 않는다.

수능은 모든 영역의 총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수학은 어려워서 다른 영역보다 점수가 높지 않기에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수학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유가 된다.

$$\text{백분위} = \frac{(\text{자신보다 낮은 점수의 인원수}) + (\text{자신과 같은 점수의 인원수})}{\text{비교집단의 전체 인원수}} \times 100$$

백분위는 자신의 점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100등급으로 표시한 것이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석차의 백분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백분위를 적용하면 수험생간의 성적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적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정시에서도 학생부가 반영이 되지만 수능 우선선발이 70%나 될 정도로 수능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100%로 선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수능의 경쟁력이 당락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 2. 정시에서 학생부의 미미한 영향력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의 영향력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연고대의 경우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학생부 간 격차는 1점에 불과하다. 즉 1점 짜리 수능문제 1문제만 더 맞추면 등급의 차이는 쉽게 극복된다. 하지만 중위권의 대학은 수능 100%전형이 아닌 학생부와 수능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부의 경쟁력이 10~15%나 되는 대학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학별 정시 학생부 등급 점수-2013입시 예시

등급	대학별 등급 점수							
	연세	고려	서강	성균관	경희	동국	시립대	중앙
1	100	27	200	280	270	100	270	285
2	99.75	26.9	199.8	279.8	269	99.5	269.8	284
3	99.50	26.7	199.6	279.4	268	99	269.4	283
4	99.25	26.5	199.2	278.8	267	98.5	268.8	282
5	99.00	26.2	198.8	278	266	98	268	281
실질 반영율	6.7	5.4	3.8	6.7	14.6	17.6	4.2	2.8

정시는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의 4개 영역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지원하게 된다. 상위권 대학은 상위권의 변별력이 강한 표준점수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여대와 중위권 대학은 변별력이 강한 백분위 점수의 합계를 이용한다.



### 3.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비율

주요대학의 영역별 수능 반영비율-2013입시 예시

대학	모집 단위	활용 지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제2외/한
				가	나	가/나		사탐	과탐	사/과	
건국대	인문	표+백	30			25	35			10	5%가산
	자연		20	30			30		20		
고려대	인문	표+백	28.6			28.6	28.6			14.2	
	자연		20	30			20		30		
서강대	인문	표준	27.5			27.5	30			15	
	경영경제		25			30	30			15	
	자연		20	30			27.5		22.5		
서울대	인문	표+백	23.5			29.4	23.5			17.7	5.9
	자공		25	31.3			25			18.7	
	자연		25			31.3	25			18.7	
성균 관대	인,일	표준	30			30	30			10	탐구1 인정
	인,우		33			34	33				
	자,일		20	30			20		30		
	자,우			50			50				
연세대	인문	표+백	28.6			28.6	28.6			14.2	탐구1인정
	자연		20	30			20		30		
중앙대	인문	표+백	30			30	30			10	탐구1인정
	공인		30			20	30			20	
	자연		20	30			30		20		
	경영		30			30	30			10	탐구1인정
한양	인문	표준	30		30		30	10			
	자연		20	35			20		25		
홍익	인문	백분 위	25			25	25			25	
	자연			50					50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토대로 하여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 냉정하게 예측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보통 가장 잘 본 성적을 자

신의 성적이라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3 초기의 성적은 재수생과 함께 치루지 않은 시험이다. 성적이 높은 재수생들이 수능에 대거 참여하게 되면 모의고사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4월에는 재학생만 보기에 55만 명 정도 모의고사를 치르지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재수생이 가세하기 때문에 68만 명 정도가 시험을 치른다. 따라서 재수생의 가세로 등급의 하단에 위치한 학생들은 등급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

#### 4. 3번의 지원기회

수시에서는 지원에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정시에서는 가, 나, 다군의 세 번의 지원 기회만 주어진다. 가군에서는 연고대 및 이화여대가 포진해 있고, 나군에서는 서울대와 서강대가 포진되어 있다. 다군에는 인문계의 경우 상위권 대학이 없어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다.

정시모집 군별 분할모집대학-2013입시 예시

분할모집군	대학명
가/나 (30개교)	경북대, 공주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백석대, 상명대(천안),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안성), 한국외대(서울), 한양대(서울)
가/다 (38개교)	건국대(글로벌), 고려대(세종), 광운대, 동국대(경주), 삼육대, 서경대, 인천대, 차의과학대, 한성대, 호서대
나/다 (36개교)	강남대, 경희대(국제), 단국대(천안),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서울), 서울여대, 세명대, 수원대, 순천향대, 안양대, 제주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과학기술대, 한국항공대

가, 나군에 소신지원이나 적정지원을 하는 경우 다군에서는 하향지원을 하기도 하고 가, 나군에서 적정지원이나 하향지원을 하는 경우 다군에서는 소신지원을 하기도 한다. 또한 합격한 후 한 군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군에서는 추가 합격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 다군의 경우 추가합격이 최초합격의 3~5배가 되기도 한다.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상위권의 별별이 힘들어지고, 하향지원이 대세를 이루어



입학 후 만족도가 떨어져 재수를 촉발하는 요인이 된다. 고대 경영대의 합격자의 경우 2~3점 내에 모든 학생이 밀집되어 있을 정도이다. 반대로 어렵게 출제되면 상위권의 변별력이 강해져 소신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수생이 감소된다.

쉽게 출제되는 물수능도, 어렵게 출제되는 불수능도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수능은 정책자의 편향적인 시각이 반영되지 않은,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정상분포곡선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만이 학생들과 학부모를 왜곡된 입시제도가 빚어내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 5. 2014 정시모집 대비전략

### 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자.

수능은 정시모집의 절대적인 전형요소이지만 수시모집에서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전형시기에 관계없이 입시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수능 반영과목이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데 상위권 대학의 경우 대부분 4개 과목을 반영한다. 하지만 수능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많으므로 상위권 대학 지원이 힘든 위치에 있다면 전략적으로 지원권에 있는 대학에 맞게 3개 과목으로 집중 준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2014수능도 쉬운 수능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과목에서 고르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목표대학을 빨리 결정해서 효율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탐구 선택과목이 2개로 줄게 되고, 국영수 과목이 쉽게 출제되는 경우 탐구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탐구과목 성적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나. 지원 대학의 수능 과목별 반영비율을 고려한 전략적 수능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과목에 대한 수능 준비가 힘들어 몇 개 영역으로 선택 및 집중할 경우 대학에 따라 영역간 반영비율 차이가 큰 만큼 지원 희망 대학의 반영 과목별 반영비율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하다.



정시모입에서는 영역별 반영비율을 다르게 하고, 영역별로 가중치를 주기도 한다.

수능 4개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주요대학들의 과목별 반영비율을 비교하면 계열에 관계없이 영어의 반영비율이 높은 편이다.

인문계는 영어와 더불어 국어의 비중이 크고, 자연계는 수학의 비중이 크다. 또한 자연계의 경우 탐구의 비중이 국어 못지않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자연계 지원자의 경우 과학 준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다. 탐구영역은 선택과목에 따라 동일한 원점수와 할지라도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가 차이가 나게 된다.**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이 응시하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응시하는지 등에 따라서 등급과 표준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능 실시 전에 유불리를 알 수 없다.

2012수능 사회탐구 등급간 비율-예시

등급	윤리		국사		한국지리	
	표준점수	누적비율	표준점수	누적비율	표준점수	누적비율
최고점	70	1.91	70	3.63	64	6.38
1등급	68	5.66	69	4.50	64	6.38

등급	경제지리		세계사		사회문과	
	표준점수	누적비율	표준점수	누적비율	표준점수	누적비율
최고점	67	1.91	66	4.51	68	2.33
1등급	65	5.66	66	4.51	66	6.33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서 64점에서 69점으로 나타났다. 윤리 68점, 국사 69점, 한국지리 64점, 경



제지리 65점, 세계사 66점, 사회문화 66점이었다.

한국지리, 세계사는 원점수 50점(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었고, 다른 과목도 47~48점으로 2점이나 3점짜리 2문제만 틀려도 1등급을 얻지 못하게 되는 등 선택에 따른 유불 리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탐구의 선택기준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선택한다. 내신과 수능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할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계있는 과목을 선택한다. 이는 대학의 수시에 지원할 때 논술이나 구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제2외국어/한문”영역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2외국어/한문에 자신있는 지원자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지원권에 있는 대학이 있다면 적극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외국어 한문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고 탐구 1과목을 인정하여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변환표준점수가 탐구과목 점수보다 최고 3~5점 높은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VIII **절대평가에 어떻게 대처할까?**

현재의 중 2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4학년도 부터는 절대평가제가 실시된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은 학생들 간 치열한 경쟁을 완화하는 취지에서이다. 또한 교과교실제 수업에 따라서 이수자수가 13명 이하일 경우는 평가 방법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상대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보완할 절대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성적표시 변화  
고등학교 <현행>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수강자수)
수 학	3	95/70(10)	1(532)

고등학교 <변경>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수강자수)
수학	3	95/97(10)	A(532)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늘어난다. 현재는 50개교이지만 100개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강남의 일반고나 외고 학생들이 내신의 불리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학교서열화가 고착되고 내신 부풀리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과거의 90점 이상은 무조건 수를 주던 방식과는 약간 달라진다. 성적산출은 A,B,C,D,E,F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상위 10%는 A, 90%미만~80%는 B를 주는 식이다. 최하위인 F를 받으면 해당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에 쉽사리 성적을 부풀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평가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다. 등급만 표시되지 않았을 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서 평가의 난이도, 점수분포등을 알수 있는 것은 상대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늬만 절대평가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대학은 다양한 잣대를 이용하여 학생부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표준점수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고교가 무작정 쉽게만 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렵게 출제하여 평균을 낮춰야 상위권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높아지므로 변별력이 생긴다. 상위권 대학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렵게 출제해야 하지만 중위권이거나 하위권 학생의 의욕상실도 고려해야 하니 여전히 학교가 안아야 할 몫은 크다.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나라의 상대평가와는 달리 절대평가를 주된 평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바탕에는 평가자인 교사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치열한 경쟁에 익숙하다보니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의 결과에 쉽게 수긍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공정성 시비이다. 그러다 보니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는 현재, 고교등급제가 아닌 고교등급제는 염려되는 부분이 적지않다.

상대평가에서 발생하는 비교육적인 경쟁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답은 절대평가제이다. 이 때문에 절대평가제가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수업은 학생의 선택제로 귀결된다. 이 때 과목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제로 전환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절대평가도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절대평가가 되면 불리해 지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이다. 이제는 내신의 우수함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된다. 자율고나 외고의 내신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절대평가로 바뀌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사고, 자율고 학생들 대다수가 전교과목에서 A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내신의 영향력이 약해서 다시 학생들이 강남이나 자율고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따라서 현재이 중2부터는 고교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내신의 비교우위를 무기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다면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Part Ⅱ



### 전략적 대입준비를 위한 2013대입방향 바로잡아 준비하기

- Ⅰ. 목표 대학 설정 어떻게 할까?
- Ⅱ. 수시모집! 방향잡고 공부하기
- Ⅲ. 정시모집! 방향잡고 공부하기

<부록>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



## ● I 목표 대학 설정 어떻게 할까?

### 1. 목표 대학 설정의 어려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다.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이 있으며 모집간의 분할모집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전형 요소로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와 비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적성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기타 서류(자기소개서, 교과외 활동 상황, 개인 활동 이력철, 추천서,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이 있다.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대학의 설립 이념과 인재상,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대학에 진학하는 경로와 전형유형, 사정 모형, 전형방법은 대학별로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동일 대학 내에서도 학과 또는 계열 모집마다 달라,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대학 입시가 마치 난수표를 읽는 것처럼 복잡하다며 대입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2011년 3월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200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의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중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위한 주요 수정사항」을 발표하였다. 대입 전형유형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유사 전형들을 통합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입 전형 간소화 수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전형유형 수는 여전히 3천개를 상회하고 있다.

표 1\_대입 전형유형 수의 변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원 내	2,477	2,108	369개 감소
정원 외	1,201	1,190	11개 감소
합 계	3,678	3,298	380개 감소

※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1.3.15

필자의 오랜 진학지도 경험으로 볼 때, 대입 준비가 그리 복잡한 것만은 아니다. 대입 전형유형이 어떠한든 대입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와 비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 기타 서류이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전형요소를 성찰하여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논술 준비를 해야 하는지, 누가 적성검사 준비를 해야 하는지, 누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누가 수시모집 대비를 해야 하는지, 누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전형유형의 복잡성만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논술고사나 적성검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적합하지 않는 학생이 자기소개서 준비, 포토 폴리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대입 진학의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 2. 대입 경쟁자 수와 대학 입시 환경의 변화

대학 입시에서 방향을 잡고 공부하려면 먼저 목표 대학을 설정해야 한다. 목표 대학의 설정은 경쟁자 수의 변화, 대학 입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객관적인 학력(學力)등의 요소를 탐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입시준비는 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며, 대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입 준비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체 응시자 수는 2008학년도까지 감소하였으나 2009학년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학년도에는 감소하였다. 2012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자 수는 전년도 대비 약 2만 명이 감소한 648,946명이었다. 아래의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수능 원서 접수자 중 44,685명이 결시를 하였다.



표 2\_2005~2012학년도 수능 응시생 추이(단위: 명)

학년도 배경변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접수자	2012 응시자	응시자 대비 증감
학 력	재학	411,208	394,254	399,250	421,761	427,623	503,092	510,893 (76.4%)	494,057 (76.1%)	▽16,836명 (-0.3%)
	졸업	151,154	149,118	142,087	118,429	120,179	121,877	158,098 (23.6%)	167,211 (23.9%)	▽3,209 (+0.3%)
	검정	11,593	10,715	10,239	10,152	11,457	12,969	-	-	-
	기타	263	258	307	246	216	278	-	-	-
합계	574,218	554,345	551,883	550,588	559,475	638,216	668,991	693,631	648,946	▼20,045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2011/ 3.30. 11.30

- \* 2011학년도부터 학력 구분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학, 졸업, 검정고시에 포함시켜 분류하였음
- \* \* '기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 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을 지칭함.

그러나 수능의 학력에서 상위를 점하고 있는 졸업생의 수능 시험 응시자 수는 전년도 대비로 볼 때 재학생 수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즉 수능 응시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재학생은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지만, 졸업생은 오히려 0.3% 증가하였다. 사실 전년도에 진학전문가들은 금년의 졸업생의 수능 응시생 수가 크게 줄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 2012 수능 시험의 '수리'에서 인문계는 미적분과 통계기본, 자연계는 기하와 벡터가 추가되어 이를 배우지 않는 졸업생들의 수능 응시는 곤란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진학 전문가들의 2012학년도 졸업생 수능 응시 감소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첫째, 2011 수능 시험이 어려워 2011학년도 재학생 우수자가 상당수 재수를 한다는 것, 둘째, 2012 수능 영역별 만점자 수 1% 확보 지침에 따라 쉬운 수능 시험을 기대한 중위권 대학 재학생들의 반수가 증가했다는 것, 셋째, 2013학년도 대입은 2014학년도 수능 시험체제가 완전 개편됨에 따른 불안 요소가 작용하여 대입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 생각한다.

2013학년도 입시에서도 졸업생들은 크게 줄지 않으리라 전망이 된다. 그 이유



는 2012학년도 수능이 쉽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저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점, 쉬운 수능에서 어느 한 영역을 실패한 학생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EBS 교재만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 2014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에 따라 현행 수능 체제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내년도 입시가 마지막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012학년도 수능에서 직업탐구 응시 인원은 6월 모의평가 67,608명, 9월 모의평가 49,733명이 응시하였으나, 실제 수능에서는 33,428명이 접수하여, 약 5천 5백 명 적은 27,864명이 응시하였다. 9월 모의 평가 응시자 수와 비교해볼 때, 직업탐구 수능 응시자 수는 약 2만 2천 명 정도 감소하였고, 졸업생 수능 응시자 수는 9월보다 6만 5천여 명 늘었다. 수능 시험에서 1% 만점자 비율의 예상이 빗나간 것은 이러한 모의 평가 응시 집단과 수능 시험 응시 집단 간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표 3\_직업탐구 모의 평가 및 수능 응시자 수 인원 비교

구분	직업탐구 응시자 수			졸업생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2012학년도	67,608	49,733	27,864	82,553	89,875	154,889
2011학년도	80,539	61,651	37,329	82,943	88,420	158,098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2011. 6/9/11월

실제 수능시험에서 대체로 상위권인 졸업생(반수생 포함)의 응시 인원이 늘고, 하위권을 차지하는 특성화고 학생의 응시가 줄어든다는 것은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결국, 실제 수능 성적이 평소의 모의고사 성적보다 등급이나 백분위 점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수능 시험 응시생의 변화, 특히 졸업생을 주목하는 이유는 대학 입시에 서 경쟁자인 졸업생들의 학력(學力)이 높기 때문이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점수 평균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가장 높았다. 특히 1·2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가장 높았고, 8·9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



생이 가장 낮았다.

학력(學力)이 높은 층은 졸업생들만이 아니다. 특목고 또는 자율형 학교의 학생 수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2011학년도 특목고 및 자율형 사립학교 모집인원은 98 개고에서 26, 284명이다. 서울권 대학에서 소위 명문대라고 일컫는 SKY대학의 총 모집인원이 약 1만200명임을 감안한다면, 일반 인문고에서 명문대 합격권에 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수능 시험 체제가 개편되고, 학력(學力)이 우수한 졸업생 수 증가와 특목고 및 자율형 고 학생들의 약진을 예상한다면, 일반고 학생들은 대입 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대입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3. 목표 대학의 설정 기준

적정한 목표 대학의 설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은 전국 차원에서 수험생의 학력(學力)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자신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목표 대학을 고려는 하고 있다.

문제는 3월이나 4월에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보다 최종의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커, 목표 대학을 과도하게 상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진학지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능시험의 성적이 3월·4월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보다 향상된 학생은 극소수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적은 갈수록 하향하였다. 그 이유는 졸업생들의 변수 때문이다. 졸업생 또는 반수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6월 9월 모의 평가 시험에서부터 재학생들의 백분위 성적과 등급은 하향하기 시작한다. 아래의 <표 4>는 졸업생 또는 반수생들의 변수를 제외한 재학생들만이 응시한 2011년 3, 4, 7, 10월의 성적 변화이다. 재학생들만이 응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성적 향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표 4\_oo고 2011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과목별 월별 성적 변화(3학년) (단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월	4월	7월	10월	수능	3월	4월	7월	10월	수능	3월	4월	7월	10월	수능
언어	4.78	1.64	4.77	4.08	3.01	10.45	8.58	8.81	9.09	6.50	14.59	16.06	20.00	14.84	13.72
수리가	2.61	1.90	4.30	0.00	2.47	8.70	8.57	11.83	3.57	2.47	29.57	26.67	9.68	16.67	19.75
수리나	5.95	5.26	5.69	5.44	3.24	11.19	11.48	12.62	12.69	11.72	16.90	17.22	16.09	18.13	16.96
영어	6.13	7.48	5.73	5.65	4.55	14.23	10.77	11.28	16.01	9.64	18.2	19.34	20.52	15.25	17.82
윤리	3.69	1.77	2.14	4.13	5.84	6.38	8.13	9.40	9.63	7.39	21.14	15.90	16.67	21.56	17.12
국사	3.33	0.00	0.00	0.00	4.00	16.67	16.00	0.00	0.00	4.00	26.67	4.00	35.00	35.29	16.00
한지	5.26	2.26	2.84	6.25	2.46	5.67	8.14	5.11	7.95	7.39	18.22	15.38	13.07	14.77	22.17
근현	1.78	1.96	4.17	4.46	3.26	8.89	6.86	7.14	10.83	10.33	16.44	10.29	12.50	17.83	14.67
사문	4.72	3.96	7.31	4.55	3.64	7.96	11.59	13.08	10.61	6.06	13.86	18.29	13.85	12.88	14.85
물리1	1.39	4.35	0.00	2.63	0.00	12.50	4.35	3.03	7.89	6.52	8.33	19.57	21.21	15.79	8.70
화학1	0.88	1.08	3.13	0.00	0.00	3.54	1.08	9.38	3.08	6.58	9.73	12.90	6.25	10.77	10.53
생물1	3.28	0.89	1.08	4.00	4.67	8.20	5.36	4.30	6.00	2.80	13.93	15.18	15.05	13.00	14.95
지학1	1.33	3.85	2.08	2.22	0.00	5.33	3.85	2.08	6.67	7.69	10.67	11.54	6.25	15.56	7.69

※ 출처 : oo 고 진학자료 분석

열심히 공부하는 고3 학생들의 수능 점수는 오를 수 있다. 문제는 나만 점수가 향상된 것이 아니란 것이다. 나의 경쟁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고, 이에 따라 석차 (즉 백분위)를 좁히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 대학 입시의 합격선은 점수가 아니라 결국은 석차가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목표 대학을 과도하게 상향하여 설정하는 것은 욕심이다.

따라서 목표 대학은 현재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에 비추어 설정해도 결코 하향 지원이 아니란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 II 수시모집! 방향잡고 공부하기

수시모집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수시모집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 이유는 1) 수시모집인원이 많다는 점 (2013학년도 수시모집 인원 약 63%) 2)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충원 합격자도 정시모집 지원 금지로 정시모집의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는 점 3)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 중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이 적어진다는 점 (2012학년도 입시에서 주요대 수시모집 평균 등록률은 72% ⇒ 87%) 4) 2013학년도 입시부터 수시모집의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어 경쟁률이 하락하여 합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5) 재학생들의 경우 수능 시험에 강한 졸업생을 피하여 수시모집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점. 6) 쉬운 수능에 따른 정시모집 지원의 혼란을 피해야 한다는 점 등 때문이다.

### 1. 수시모집 선발 인원 증가

2013학년도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은 총 모집인원(375,695명)의 62.9%인 236,349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37.1%인 139,346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전년도에 비하여 1,385명이 감소하였지만 선발 비율은 62.9%로 0.8% 증가하였다. 감소 인원은 대부분 정원 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원 내에 해당되는 일반고 학생들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된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 기간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은 역시 최소화될 것이다. 반면에 정시모집은 전년도에 비하여 5,650명이 감소하였고 선발 비율도 0.8% 감소하였다. 수시모집의 선발 비중은 더 증가하였고, 정시모집의 인원은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_2013학년도 4년제 대학 수시 및 정시모집 인원

구분		수시		정시		계(명)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2012 학년도	수 도 권	76,558	57.3%	57,026	42.7%	133,584
	비수도권	161,176	64.7%	87,970	35.3%	249,146
	소 계	237,734	62.1%	144,996	37.9%	382,730
2013 학년도	수 도 권	77,231	58.6%	54,468	41.4%	131,699
	비수도권	159,118	65.2%	84,878	34.8%	243,996
	소 계	236,349	62.9%	139,346	37.1%	375,695
증감	소 계	-1,385명	0.8%	-5,650명	-0.8%	-7,035명

※ 출처: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12.12.

2013학년도 4년제 대학의 총 모집인원은 375,695명으로 2012학년도 382,730명에 비해 7,035명 감소된 인원을 선발한다. 정원내 모집인원 감소는 구조 조정을 통한 모집인원 감소 등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정원외 모집인원 감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09.10.7)에 따라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상한이 5%에서 3%로 축소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표 6\_4년제 대학 모집인원

구분	정원 내		정원 외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2013학년도	345,964	92.1	29,731	7.9	375,695
2012학년도	346,819	90.6	35,911	9.4	382,730
증감	-855명	1.5%	-6,180명	-1.5%	-7,035명

※ 출처: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12.12.



표 7\_2013 주요대학 수시모집 인원과 비율 - 정원 외 포함

대학	수시모집 전형별 인원(명)			수시모집 비율(%)
	일반전형	특별전형	계	
중앙대(서울)	1,717	879	2,596	80.9
서울대	-	2,689	2,689	80.3
연세대(서울)	1,160	1,357	2,517	66.6
고려대(서울)	1,351	1,325	2,676	65.5
성균관대	1,034	1,418	2,452	65.0
서강대	652	510	1,162	64.5
서울여대	981	240	1,221	64.4
한양대(서울)	822	1,202	2,024	64.0
숙명여대	600	941	1,541	63.3
한국외대(서울)	382	758	1,140	63.0
단국대(죽전)	934	709	1,643	62.2
홍익대(서울)	1,217	444	1,661	61.7
명지대	1,532	585	2,117	60.7
인하대	1,543	762	2,305	60.5
성신여대	628	793	1,421	58.8
동국대(서울)	677	1,005	1,682	57.4
건국대(서울)	945	970	1,915	57.2
가톨릭대	587	464	1,051	56.9
광운대	213	867	1,080	56.5
한국교원대	-	337	337	56.5
경희대(서울)	850	592	1,442	56.3
송실대	784	837	1,621	55.1
이화여대	860	883	1,743	54.5
서울시립대	252	757	1,009	54.2
한성대	653	305	958	53.3
국민대	896	866	1,762	52.1
아주대	351	693	1,044	49.5
상명대(서울)	695	37	732	48.8
서울과학기술대	871	286	1,157	48.5
세종대	780	441	1,221	47.8
서경대	269	450	719	47.7
덕성여대	496	106	602	46.2
동덕여대	471	262	733	38.8
서울교대	-	130	130	33.0
경인교대	-	125	125	19.0

※ 음영과 진한 글씨는 수시모집 비율이 60% 이상인 대학임.

## 2.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정시·추가모집 지원 금지 및 지원 횟수 6회 제한

2013학년도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에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미등록 총원기간 (2011.12.15(목) ~ 20(화)까지, 6일간)을 두었다.

표 8\_2013학년도 수시모집 미등록 총원 합격자 등록 기간

모집시기	미등록 총원합격자 발표 기간	미등록 총원합격자 등록 기간
수시	2012. 12. 18(화) 21:00 까지	2012. 12. 19(수) 까지

※ 출처 :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보도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12.12.

전년도와 다른 점은 수시모집 총원 합격자도 최초 합격자처럼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수시모집에 별 생각 없이 지원하거나 하향지원을 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위반 시 “대학입학전형지원방법위반자”에 해당되어 입학이 무효화 된다.

또한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수험생들의 최대 지원 가능 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2011년 12월 22일(목) 발표) 수시 모집 6회 제한은 1) 전반적으로 경쟁률 하락이 예상되는 중하위권 대학에 입학하는데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대학별로 극심한 눈치작전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학별로 자구책 차원에서 학생 유치를 위한 모집요강 수정이 예상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유형과 전형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3) 수시모집에 있어서 진학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동안 정시모집에서 폭넓게 실시되던 상담이 수시모집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유형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적성고사, 실기고사 등), 수능모의고사(6월과 9월 대수능모의평가 성적, 3월/4월/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성적, 전년도 합/불 자료 등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의 정시 및 추가 모집 지원 금지, 수시모집 지원 6회 이



내로 제한 등은 수시모집에서 충원 인원을 더욱 많이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더욱 줄어들어 정시모집의 경쟁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금년도 대입의 큰 흐름은 수시모집이므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시모집에 지원을 해야 한다.

### 3. 수시모집 지원은 어떻게, 누가 해야 하는가?

수시모집 지원은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수시모집 지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사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학생부 교과우수자 전형’ 이외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보다 더 많이 선발하는 전형 유형에 논술고사 전형, 적성검사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살펴 준비하고 지원하면 된다.

**표 9 수시모집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에 비하여 어느 정도 우수한가?
-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아 정시에서 지원 가능권은 어느 정도인가?
- 학생부 성적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모집단위) 합격권에 드는가?
-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
-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적성검사 등)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가?
- 다른 영역에 비하여 언어나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저조한가?  
(일반적으로 언어와 외국어는 단기간에 성적 향상이 힘들기 때문)
- 수능과 같은 큰 시험에 약하거나 성적의 기복이 심한가?
-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문제는 누가 논술 전형에 지원해야 하는지, 누가 적성검사 전형에 지원해야 하는지, 누가 입학사정관제 전형 유형에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논술고사나 적성검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적합하지 않는 학생이 자기소개서 준비, 포트폴리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대입 진학의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소신,



수시 지원은 6화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수시 지원의 합격선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과도하게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합격 가능 대학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충만하여, 여기 저기 수시모집 대학에 ‘묻지마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다. 마치 많은 낚시 줄을 던져 놓으면 준척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요행심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는 요행심이 통하지 않는다. 특히 수시모집은 더욱 그러하다. 왜냐면 수시모집은 6회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이는 곧 실력 좋은 학생은 여러 군데를 합격하지만,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합격의 차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입 수시모집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65만 수험생이 다 함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백분위 또는 등급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시모집일 수록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금년에는 수시모집 미등록자들의 충원으로 정시모집 인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대입 반수생이 증가한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정시모집에서의 합격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수시모집에서 합격을 하는 전략을 세워야한다. 필자의 진학지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동일 대학의 정시모집 지원에서는 불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이, 수시모집 지원에서는 합격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결국 수시모집의 적정 지원 합격이 정시모집에서는 상향 지원 합격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 중에는 금년에 수능 시험 문제가 이른바 ‘물 수능’으로 쉬어지므로 수능 대박을 꿈꾸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수능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나만 점수가 향상되겠는가? 나의 경쟁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는 오를 것이고, 이에 따라 나의 석차 (즉 백분위)는 좀처럼 향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쉬운 ‘물 수능’이 변별력을 상실하여 정시모집 지원 시 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대학 입시의 합격선은 점수가 아니라 결국은 석차가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목표 대학을 과도하게 상향하여 설정하는 것은 욕심이다. 따라서 수시모집 지원 목표 대학은 현재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에 비추어 설정해도 결코 하향 지원이 아니다.

논술 실력이 특출하거나, 어학 또는 수학·과학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학교생활



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이 탁월한 학생들은 수시모집에서 상향 지원을 해도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범한 학생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에 기준을 두고 수시모집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정시모집보다 1단계만 높여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수시모집 지원의 제1 전략이기 때문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1등급 ~ 3등급 대 초반인 수험생들은 논술 전형 중심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자. 논술 전형 중심 대학에서는 대부분 수능의 최저학력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3등급 대 중반 ~ 4등급 후반까지인 수험생들은 적성평가 전형 중심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자. 적성평가 중심 전형의 대학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이 없다. 그리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5등급 대 이 후인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할 때, 수능의 2개 영역 정도만 공부하여 전문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도록 하자.

**일반 학생의 수시모집 지원 전략**

- 모의고사 1등급 후반~3등급 초반 ⇨ 논술전형(수능 최저학력고려하여 지원)
- 모의고사 3등급 후반~4등급 후반 ⇨ 적성고사
- 모의고사 5등급 후반 ⇨ 전문대학 (정시모집: 1~2개 수능 영역만 공부)
- 학생부 우수자 ⇨ 입학사정관제 전형, ⇨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성적이 2등급 대 이내인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더욱 교과 성적 관리를 잘하여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수학 /과학/영어 등에 특기가 있는 수험생들은 특기자 중심 전형 대학에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4.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입 방향 잡기**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은 123개 대학에서 43,138명(11.5%)으로 '12학년도 121개 대학 42,163명(총 모집인원의 10.7%)보다 소폭 증가(975명)하였다.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내실을 기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0\_2012학년도 대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비교

구 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총비율 (%)
	대학(교)	모집인원(명)	비율(%)	대학(교)	모집인원(명)	비율(%)		
2013학년도	121	40,912	94.8	24	2,226	5.2	43,138	11.5%
2012학년도	120	32,851	77.9	22	9,312	22.1	42,163	10.7%
증감	1개교	8,061명	16.9%	2개교	-7,086명	-16.9%	975명	0.8%

※ 출처 :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보도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12.12.

※ 입학사정관 전형 적합성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수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모집인원은 122개 대학 41,734명으로, 전년도 120개 대학 32,851명에 비해 2개 대학 8,883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전형의 모집 인원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므로 교육계열을 지망하려는 학생들은 참고해둘 필요가 있다.

정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모집인원은 24개 대학 2,226명으로, 전년도 22개 대학 9,312명에 비해 대학은 2개 증가하였지만 인원 수는 7,086명 감소하였다. 이는 대학이 정시에서 선발하던 인원 중 상당수를 수시에서 선발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2013학년도부터 수시모집에서의 입학사정관 전형 전형기간은 전년도에 비해 15일 늦춘 8월 16일부터 전형기간이 시작된다.

표 11\_2012학년도 대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기간 비교

구분	입학사정관전형의 전형기간	기타 전형의 전형기간
'12학년도	2011. 8. 1~12. 6	2011. 9. 8~12. 6
'13학년도	2012. 8. 16~12. 3	2012. 9. 8~12. 3

※ 출처 :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보도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12.12.



2012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활용하기 시작한 유사도(표절)검색 시스템 활용 대학도 2013학년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의 학생 제출서류(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에 대한 검증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어떤 학생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해야 하느냐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입학사정관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학생은 한마디로 학교생활에 충실한 일반 학생이지, 공인 어학 성적 등 스펙이 화려한 특목고 학생들이 아니다. 외부 경시대회 수상 실적과 같은 스펙이 있는 학생들은 수시모집의 각종 특기자전형에 지원해야 한다.

- 즉 ① 확실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관심 갖는 분야에 열정을 쏟은 학생
- ② 독서나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 등에 자신 있는 학생
- ③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성적,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이 우수한 학생
- ④ 교내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
- ⑤ 학교 생활에 성실하고, 전반적으로 성적이 꾸준히 향상된 학생
- ⑥ 어려운 교육적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학생
- ⑦ 자기주도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 ⑧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 ⑨ 도전 정신과 적극성이 뛰어나고, 리더로 인정받은 학생
- ⑩ 지원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한 학생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학생이다.

다음은 어떤 학생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적합한지를, 대교협에서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에 근거를 두고, “입학사정관제 전형 지원을 위한 자가 진단표”를 필자가 작성해본 것이다.

표 12\_입학사정관제 전형 지원을 위한 자가 진단 표 (지원가능: 75점 이상)

영역	평가 요소	자기 평가 진단	평가			확인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교과 관련 활동	전체 교과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9등급 과목은 몇 개나 있는가?</li> <li>*우수:1과목 이하 *보통:2~3과목 *미흡:4과목 이상</li> </ul>				
	학년별 교과 성적 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년 동안 전 과목 평균 등급이 향상되었는가?</li> <li>*우수: 5개 학기 평균 1~2등급 유지, 또는 전학년 대비 등급이 2단계 이상 향상</li> <li>*보통: 5개 학기 평균 등급이 비슷</li> <li>*미흡: 전 학년 대비 평균 등급이 하락</li> </ul>				
	학업 관련 탐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관련 과목의 평균 등급 성적은 우수한가?</li> <li>*우수: 1~2등급 *보통:3~4등급 *미흡: 5등급 이하</li> </ul>				
	전공 관련 교내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관련 과목의 교내 경시대회 실적이 있는가?</li> <li>*우수: 전공 관련 교내 경시대회 및 각종 수상 있음</li> <li>*보통: 전공과 무관한 경시대회 및 각종 수상 있음</li> <li>*미흡: 교내 경시 대회 등 교내 수상 없음</li> </ul>				
	25 점	방과후 학교 활동과 자기 주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학교 참여 등 자기주도학습을 하였는가?</li> <li>*우수: 결석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부 교과세부능력특기란에 전공 관련 과목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보고서 등 작성 실적이 있음</li> <li>*보통: 학생부 교과세부능력특기란에 몇 개 기록</li> <li>*미흡: 학생부 교과세부능력특기란에 기록 없음</li> </ul>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량이 풍부하고,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는가?</li> <li>*우수: 고교 시절에만 50권 이상 읽고, 태도 변화 있음</li> <li>*보통: 30권 이상 읽었으나, 태도 변화는 없음</li> <li>*미흡: 책읽기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 함</li> </ul>				
	자격증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을 취득하였는가?</li> <li>*우수: 2개 이상 있음 *보통: 1개 있음 *미흡: 없음</li> </ul>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였는가?</li> <li>*우수: 동아리를 결성하여 회장을 맡아, 5개 학기 동안 주도적으로 하면서 어떤 실적을 제시할 수 있음</li> <li>*보통: 교내 동아리에서 단순히 회장 역할만 맡았음</li> <li>*미흡: 별다른 실적없이 교내 동아리 부원으로 활동</li> </ul>				
	25 점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가?</li> <li>*우수: 일관성있는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며, 태도변화 있음</li> <li>*보통: 봉사시간은 100시간 이상이나, 태도 변화는 없음</li> <li>*미흡: 봉사 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태도 변화가 없음</li> </ul>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진로탐색 활동을 하였는가?</li> </ul>				



<b>학 교 생 활 총 실 도 및 인 · 적 성 25 점</b>	<b>탐색· 체험 활동</b>	*우수: 진로를 고민하며, 전공체험 활동 프로그램 참여, 지원 대학 전공학과 홈페이지 방문 등을 수시로 함. *보통: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학교에서 안내해주는 진로 탐색 활동만 함 *미흡: 진로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 편 임				
	<b>공동체 의식 과 협동심</b>	• 학교행사 / 학급행사 등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는가? *우수: 학교·학급행사 활동은 물론 지역 및 사회단체에서 적극적 활동 *보통: 주어진 학교·학급행사만 주로 참여 *미흡: 학교·학급행사 활동에 관심 없음				
	<b>리더십</b>	• 학교/학급/사회단체 등에서 임원을 맡아 실적을 남겼는가? *우수: 임원직을 맡아 어떤 실적을 남겨 제시할 수 있음 *보통: 임원직만을 맡았음 *미흡: 리더십을 발휘해본 경험이 없음				
	<b>학업 의지</b>	• 5개 학기동안 개근하면서 계획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우수: 개근을 하였고, 학습 계획 노트를 제시하여 목표 달성을 보일 수 있음. *보통: 5개 학기 동안 5회 이하의 결석을 함 *미흡: 사고 결석 등이 10회 이상 임				
	<b>교우 관계 및 의사 소통 능력</b>	•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교우관계 /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에 대한 교사의 의견이 좋게 기술되어 있는가? *우수: 교우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한 언급이 긍정적으로 상세히 기술되었음 *보통: 별 다른 언급이 없음 *미흡: 교우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한 언급이 부정적으로 기술되었음				
	<b>교사의 평가</b>	• 추천서를 써주시는 선생님께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학교생활 태도/ 수업 태도/ 독창적 사고력/책임감 등을 탁월하다고 써주겠는가? *우수: 탁월    *보통: 우수    *미흡: 부진				
<b>교 육 적 환 경 15 점</b>	<b>지역/ 학교/ 가정 환경</b>	• 어려운 교육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 수행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우수: 극복사례를 제시할 수 있음 *보통: 평범함 *미흡: 없음				
	<b>자기 극복 의지</b>	• 지적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있는가? *우수: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 또는 기피과목을 공부한 것이 있음. *보통: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였음				

자신의 평가	*미흡: 불리하다고 생각한 학교 개설 과목을 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나만의 이야기를 쓸거리가 풍부하냐?</li> </ul> *우수: 풍부함 *보통: 약간 있음 *미흡: 별로 없음				
입학사정관종합 평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특기, 진로 희망, 활동 내역, 전공관련 교과 성적, 수상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일치하는가?</li> </ul> *우수: 뚜렷하게 일치함 *보통: 약간 일치함 *미흡: 일치하는 것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인재상과 부합하는가?</li> </ul> *우수: 뚜렷하게 일치함 *보통: 약간 일치함 *미흡: 일치하는 것이 없음				

입학사정관 전형의 전형요소는 학생부와 서류, 면접,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부의 경우 교과성적이 주된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면접의 경우 개인면접 및 그룹면접 등의 방식이 있으며 기본소양을 묻는 확인면접과 교과내용까지 묻는 심층면접이 있다. 서류나 기타요소의 경우 학생부를 비롯한 자기소개서, 추천서, 제출된 포트폴리오(에듀팟자료포함)등의 종합적 자료를 활용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형요소는 대학별로 또는 동일한 대학내에서도 학과별로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

● III 정시모집! 방향잡고 공부하기

1.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많다!

수시모집 지원에서 합격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수시모집 지원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 경쟁률이 정시모집보다 치열하기 때문이다. 또 수시에서 중요한 학생부 성적은 이미 1,2학년 것이 산출되었고, 스펙 등도 고3 시기에 준비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시모집 준비가 안 된 학생들에게는 패자 부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부에 올인 할 필요가 있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이기 때문이다.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전형하는 방식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 우선 선발 전형’ 이 있는데, 이 둘은 구별해야 한다. ‘수능 100% 전형’은 정시모집의 특정 모집 ‘군’에서 수능 성적만을 활용하여 전체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수능 우선선발 전형’은 정시모집의 같은 ‘군’의 모집 시기에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은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학생부 등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능우선발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반영하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많지 않다.

표 13\_2013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반영 대학

구분	대 학 명 -일반학생 /인문사회	대학수	대 학 명 -일반학생 /자연계열	대학수
20% 이상	〈국공립〉 서울대	국공립 : 1개교 사 립 : 1개교	서울대 자연계열 구술면접으로 대체	합계: 0 개교
	〈사 립〉 대전가톨릭대	합 계 : 2개교		
10% 이상	〈사 립〉 수원가톨릭대	합 계 : 1개교		
5% 이상	〈사 립〉 인천가톨릭대	합 계 : 1개교		

※ 출처 :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보도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12.12.

※ 논술을 가장 높게 반영하는 모집단위 기준임(단계별 전형은 2단계 기준), 의학계열 제외

2013정시모집의 대학별 일반전형 기준 인원 변화를 보면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683명보다 417명이 증가한 1,100명으로 전년대비 61.1% 증가한 인원을 모집하며, 이화여대의 경우 27.9%증가한 1,246명을 정시에서 모집한다. 반면 서울대의 경우 전년도 1,212명보다 569명이 감소한 643명을 모집하여 전년대비 46.9%로 대폭 감소하였다.

## 2. 대학수학능력 시험 대비는 이렇게 하자

금년도 수능은 2012년 수능과 같이 EBS 연계율 70%, 각 영역별 만점자 1% 유지와 같은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쉬운 수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쉬운 수능이 현실화된다면 한 문제로 인해 수시모집에서는 등급이 하락하여



수능최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정시모집에서는 본인이 지망한 대학이나 학과에 불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BS 교재로 수능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문제풀이식의 공부보다는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오답노트 정리를 통한 반복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 시험 대비는 집중과 선택이다. 언어/수리/외국어/탐구/제2외국어 총 5개 영역 중 대학별로 반영하는 영역수가 다양한데, 5개 영역으로 모두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뿐이다. 상위권 대부분의 대학은 언, 수, 외, 탐 4개 영역을 주로 반영하며, 중하위권 대학은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다. 일부 대학의 경우 2개 영역, 1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표 14\_2013 정시모집 주요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대학	모집군	모집단위	활용지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제2외/한
					가	나	가/나		사탐	과탐	사/과	
건국대	가	사범(인문)	표+백	30			25	35			10	
		사범(자연,수외예)		20	30			30		20		
	나/다	인문		30			25	35			10	문과대학 5%가산
		자연		20	30			30		20		
고려대	가	인문(경영)	표+백	28.6			28.6	28.6			14.2	탐구1인정
		가정교육		20	30			20		30		
		자연		28.6	28.6			28.6		14.2		'자연미정'
국민대	가	인문	백분위	30			10	35			25	
		자연		10			35	30		25		
	나/다	인문(문과,법과)		30			10	35			25	
		인문(사과,경상,경영)		30			20	30			20	
		자연(전자,삼림,자연)		10			35	30		25		
		자연(공과,건축)		20			30	30		20		
		다		건축학(5년제)	20			30	30			20
단국대 (죽전)	나/다	인문(일부제외)	백분위	30			20	30			(20)	(20)
		경영,경제,무역		25			30	25			(20)	(20)
		국제학부(국제경영)		15			15	50			(20)	(20)
		국제학부(모바일시스템)		20	30			30		20		
		자연계(일부 공과대 제외)		20			30	30		20		
		공과대(파이버시스템,화공, 다군:수학교육제외)		20	30			30		20		
		건축,정보통계		20			30	30			(20)	(20)



	다	상경대		25			30	25		(20)	(20)
		한문교육		30			10	30		(30)	(30)
		인문		30			20	35		15	탐구1인정
		자연(일부제외)		10	35			35	20		
		자연 일부 (생명,바이오환경,의생명, 식품생명공,정보통신공,멀 티미디어)	표준	10			35	35	20		
		가정교육, 컴퓨터		10			35	35		20	
		인문(경영,경제제외)		27.5			27.5	30		15	탐구1인정
		경영, 경제	표준	25			30	30		15	
		자연		20	30			27.5	22.5		
		초등교육	표준	25			25	25		25	
		인문	표+백	23.5			29.4	23.5		17.7	5.9
		자유전공		25	31.3			25		18.7	
		자연(간호 제외)		23.5	29.5			23.5	23.5		
		간호		25			31.3	25		18.7	
		자연	표+백	20	30			30	20		
		인문		25			30	30		15	탐구1인정
		인문(일반선발)		30			30	30		10	탐구1인정
		인문(우선선발)	표준	33			34	33			
		자연(일반선발)		20	30			20	30		
		자연(우선선발)			50			50			
		인문	백분위	30			20	30		20	
		인문(경영,경제)		25			25	30		20	
		자연		(30)			40	(30)	30		
		자연(화학과,수학과)		(30)	40			(30)	30		
		인문(일부제외)		35			15	35		15	탐구1인정
		인문 (경제,경영,벤처중소기업)		15			35	35		15	
		자연(자연과학)	백분위	15	35			35		15	
		자연(공학)		15	35			35	15		
		보험수리,건축 외3개		15	35			35		15	
		자연(일부제외)		15	35			35	15		
		글로벌미디어학부		35				35	30		
		인문	표+백	28.6			28.6	28.6		14.2	탐구1인정
		자연		20	30			20	30		
		인문	표+백	25			25	30		20	인문과학: 탐구1인정
		자연과학대, 공과대		25	30			25	20		
		건과대(식품영양, 간호, 보건관리학)		(40)			35	(40)		25	
		인문(공공인재 제외)	표+백	30			30	30		10	탐구1인정
		공공인재학부		30			20	30		20	

		자연		20	30			30		20		
	다	경영학부		30			30	30			10	탐구1인정
한국외대	가/나	인문	표준	30			25	40			10	탐구1인정
한양대	가/나	인문		표준	30		30		30	10		
		자연			20	35			20		25	
홍익대	가/다	자연	백분위	(33,33)	33,33			(33,33)		33,33		
		인문		25			25	25			25	
	가/다	자율전공		(33,33)			(33,33)	(33,33)			(33,33)	
	나	자연			50						50	

※ 출처 : 서울교육청 연구정보원 대학진학지도지원단, 학부모 진학설명회 자료집, 2012. 2. 20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 수리 포기 여부는 수리에 자신 있느냐 보다는 언/외/탐이 3등급 이상이면 수학을 못해도 수학 공부를 하도록 하자. 그러나 언/외/탐이 평균 5등급 이후라면 수학을 잘해도 언/외/탐에 집중하는 것이 정시모집에서 지원 폭이 넓어질 것이다. 자신의 학업 능력에 맞게 2+1, 또는 3+1방식, 탐구 과목의 적절한 선택 등 맞춤형 공부를 하는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비가 된다.

표 15\_1개 영역 반영 대학

반영 유형	대학	계열	가군	나군	다군
언수외(택1)	동명대	예체능	○		○
언수외탐(2) (택1)	부산외대	예체능	○	○	
외	영산대(양산)	그룹			○
언	칼빈대	인문사회, 예체능			

표 16\_2개 영역 반영 대학

반영 유형	대학	계열	가군	나군	다군
언외	가천대	예체능	○		
	가톨릭대	예체능	○		
	경희대(국제)	그룹		○	○
	경희대(서울)	그룹	○		



	고려대(서울)	예체능	○		
	광신대	그룹	○		
	국민대	그룹	○		
	단국대(죽전)	그룹	○	○	
	명지대(용인)	그룹		○	○
	명지대(서울)	인문사회		○	
	부산대	그룹	○		
	부산장신대	인문사회, 사범	○		
	삼육대	인문사회, 예체능	○		○
	서울시립대	예체능	○		
	성균관대	그룹	○		
	세종대	예체능, 그룹	○	○	○
	숙명여대	그룹	○		
	송실대	인문사회, 예체능			○
	연세대(원주)	그룹		○	
	연세대(서울)	예체능	○		
	을지대	인문사회, 그룹	○		○
	장로회신학대	예체능	○		
	제주대	예체능, 그룹		○	○
	중앙대	그룹	○	○	
	추계예술대	그룹, 인문사회, 예체능,	○	○	○
<b>언외</b>	홍익대(서울)	그룹		○	
<b>언수</b>	계명대	그룹		○	○
<b>수외</b>	안동대	그룹			○
<b>언탐(1)</b>	경주대	예체능	○		
	대구한의대	그룹, 예체능	○	○	○
<b>언탐(2) 언탐(2)</b>	아주대	그룹		○	
	동국대(경북)	예체능, 그룹	○		○
	한북대	그룹	○		
<b>수탐(1)</b>	성균관대	그룹		○	
<b>언외탐(2)(택2)</b>	예원예술대	그룹	○		○

언수외(택1)+탐(1)	그리스도대	그룹		○	○
	한일장신대	그룹	○		○
언수외(택1)+탐(2)	원광대	그룹	○		○
	용인대	그룹, 예체능,		○	
	동국대(경북)	그룹			○
언수탐(2)(택1)+외	서울여대	예체능		○	○
언수(택1)+외	대전대	그룹			○
	성결대	그룹	○		
언수(택1)+탐(2)	성결대	그룹	○		○
언외(택1)+탐(2)	경일대	그룹	○		○
	대진대	그룹			○
	대구가톨릭대	그룹		○	○
언수외탐(2)(택2)	목포해양대	공학	○		○
	영동대	그룹	○		○
	호원대	그룹		○	
언수외탐(1)(택2)	안동대	그룹	○		

표 17\_3개 영역 반영 대학

반영 유형	대학	계열	가군	나군	다군
언수외(택2)+탐(1)	가야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사범			○
	경남과학기술대	그룹		○	○
	경동대	인문사회, 의학, 공학, 예체능, 사범	○	○	○
	광주여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사범	○	○	○
	김천대	그룹	○		○
언수외(택2)+탐(2)	건국대(충북)	그룹	○		○
	고신대	그룹		○	○
	나사렛대	그룹	○		○
	남부대	그룹	○	○	○



	대구외대	인문사회			○	
연수외(택2)+탐(2)	대구의학대	그룹	○	○		
	대전대	그룹	○			
	대불대	인문사회, 자연과학, 사범	○	○	○	
	신경대	그룹	○		○	
	순천대	그룹	○	○	○	
	건양대	인문사회	○			
연수외 연탐(2)	경남대	인문사회	○			
	경북대	예체능, 그룹	○			
	단국대(경기)	그룹	○	○		
	대전대	인문사회	○			
	서울시립대	예체능	○			
	성균관대	그룹	○			
	세종대	공학	○			
	송원대	그룹	○	○	○	
	안동대	그룹			○	
	영동대	그룹	○		○	
	용인대	예체능	○			
	원광대	인문사회	○			
	위덕대	인문사회		○	○	
	제주대	예체능		○	○	
	조선대	인문사회	○			
	한국교통대	기타	○			
	한국산업기술대	그룹		○		
	연외탐(1)	가천대	그룹	○		○
		감리교신학대	인문사회		○	○
		건동대	그룹		○	
경운대		일반전형, 예체능		○	○	
경주대		예체능, 그룹	○			
대구가톨릭대		사범		○		
대불대		사범			○	

	서울기독대	인문사회, 예체능		○	
	성공회대	자연과학, 그룹		○	○
	수원대	그룹		○	○
	예수대	인문사회		○	○
	침례신학대	인문사회, 사범			○
	한경대	그룹	○		
	한국교통대	그룹	○		○
	한신대	그룹	○		○
언외탐(2)	강릉원주대	그룹	○	○	○
	경기대(경기)	그룹		○	○
	경기대(서울)	그룹	○	○	
	경상대	사범, 예체능	○		○
언외탐(2)	경북대	예체능	○		
	경북외대	인문사회			○
	경성대	일반전형		○	○
	고려대(충남)	예체능, 그룹	○		○
	공주대	인문사회, 그룹	○	○	
	광운대	예체능			○
	꽃동네대학	인문사회		○	○
	국민대	예체능, 그룹	○	○	○
	단국대(충남)	그룹			○
	대진대	그룹, 인문사회, 예체능	○	○	
	동국대(서울)	그룹		○	
	명신대	그룹		○	
	목원대	사범	○	○	
	부경대	그룹	○	○	
	삼육대	사범	○		
	상명대(충남)	그룹	○	○	
	상지대	그룹	○		
	서경대	예체능,	○		○
	서울과학기술대	그룹	○	○	○



	서울신학대	인문사회, 그룹	○		
	서울장신대	인문사회, 예체능			○
	순천대	그룹	○		○
	송실대	공학			○
	아세아연합신학대	그룹		○	
	안양대	그룹		○	○
	연세대(강원)	그룹	○	○	
	영남대	그룹	○		○
	영남신학대	그룹	○		
	영동대	그룹	○		○
	용인대	사범, 그룹		○	
	인천가톨릭대	예체능		○	
	인천대	그룹	○		○
	전남대	그룹, 예체능	○	○	
	전북대	그룹		○	
	조선대	그룹	○	○	
	중앙대	그룹		○	
	총신대	인문사회, 사범, 예체능	○		
	충북대	그룹	○		
	한국성서대	그룹			○
	한북대	그룹, 인문사회	○		○
	한성대	예체능	○		○
언외탐(2)	한세대	그룹	○		
	한양대	그룹, 예체능, 그룹	○	○	
	한영신학대	예체능, 인문사회		○	○
언외탐(3)	호남신학대	예체능, 그룹	○	○	○
	서울대	예체능, 그룹		○	
수외탐(1) 수외탐(1)	가천대	그룹, 자연과학	○	○	○
	강남대	그룹		○	○
	상명대(서울)	그룹		○	
	수원대	그룹		○	



	한경대	그룹	○			
	한국교통대	그룹	○		○	
	한신대	그룹	○		○	
수외탐(2)	공주대	자연과학, 그룹	○	○		
	남서울대	그룹		○		
	단국대(충남)	그룹		○		
	목포대	사범, 그룹	○		○	
	삼육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		○	
	안양대	그룹		○	○	
	용인대	그룹		○		
	우석대	그룹		○	○	
	울산대	그룹		○		
	강릉원주대	그룹		○	○	
	상지대	그룹			○	
	서경대	공학			○	
	성신여대	자연과학	○	○		
	차의과학대	인문사회, 자연과학	○		○	
	한국산업기술대	그룹			○	
	한국성서대	그룹			○	
	한북대	그룹	○			
	한세대	그룹	○			
	연수탐(1)	경주대	의학, 그룹	○		
		대불대	사범			○
연수탐(2)	목원대	사범		○	○	
	영남대	그룹	○			
	한국교원대	사범	○			
수외탐(2)(택2)+언	경남대	사범		○	○	
	전주대	사범			○	
	한국체육대	그룹	○	○		
언외탐(2)(택2)+수	경남대	사범		○	○	
언외탐(2)(택2)+수	전주대	사범			○	



	금오공과대	그룹	○		○	
연수탐(2)(택2)+외	경남대	사범			○	
	삼육대	인문사회	○			
	전주대	사범			○	
	한림대	인문사회			○	
	홍익대	그룹, 예체능	○	○		
	금오공과대	인문사회	○		○	
연수탐(1)(택2)+외	목포가톨릭대	자연과학, 그룹		○	○	
	협성대	의학, 그룹, 인문사회, 사범	○	○	○	
	상명대	그룹			○	
연수외(택2)+탐(1)	평택대	그룹, 예체능		○	○	
	한라대	그룹	○		○	
	동국대(경북)	그룹	○			
연수외(택2)+탐(2)	동신대	그룹	○		○	
	목원대	그룹	○	○	○	
	배재대	그룹	○	○	○	
	백석대	그룹, 예체능	○	○		
	서원대	그룹		○	○	
	원광대	그룹	○			
	위덕대	그룹		○	○	
	전주대	그룹		○		
	호서대	그룹	○		○	
	서남대(남원)	그룹	○	○	○	
	서남대(아산)	그룹	○	○	○	
	순천향대	예체능, 그룹		○	○	
	우석대	그룹	○	○		
	한국국제대	그룹		○	○	
	한서대	그룹			○	
	연수외(택2)+탐(2)제2외국어(택1)	한남대	그룹	○	○	
	연외+수탐(3)(택1)	대구교대	사범		○	
	연외+수탐(2)(택1)	강원대	예체능, 그룹	○		

	건양대	그룹	○	○	○
	서원대	사범		○	
	한림대	그룹, 인문사회, 예체능	○	○	○
언외+수탐(2)(택1)	덕성여대	예체능, 그룹	○	○	
	서울시립대	예체능	○		
	서울여대	그룹			○
	성신여대	그룹	○		
	순천대	그룹	○	○	○
	을지대	인문사회, 사범	○		○
	한국기술교육대	그룹		○	○
	언외+수탐(1)(택1)	한경대	예체능	○	
언외+수탐(2)제2외국어(택1)	건국대(글로벌)	사범		○	
언외+수탐(1)제2외국어(택1)	청운대	의학, 예체능, 공학, 인문사회, 그룹	○		
언외+탐(2)제2외국어(택1)	건국대(경기)	예체능, 그룹		○	○
언외+탐(1)제2외국어(택1)	성공회대	인문사회		○	○
언외(택1)+수탐(2)	대진대	그룹	○	○	
	성공회대	그룹		○	○
	숙명여대	자연과학, 그룹	○	○	
	순천대	그룹		○	○
	원광대	사범	○		
	이화여대	그룹	○		
	홍익대	그룹	○		○
언외(택1)+수탐(1)	안동대	그룹	○		
언외(택1)+탐(2)(택1)+수	한남대	사범	○		
언외(택1)+언수외탐(2)(택2)	이화여대	그룹	○		
수외+언탐(2)(택1)	건양대	그룹		○	○
	동덕여대	그룹		○	○
	한림대	그룹, 의학	○		○
	덕성여대	그룹, 자연과학	○	○	
	서울여대	그룹		○	○



	성신여대	그룹	○	○	
	을지대	그룹	○		○
수외+언탐(1)(택1)	안동대	자연과학, 그룹	○		○
	한국기술교육대	그룹		○	○
언수(택1)+외탐(1)	목포가톨릭대	자연과학		○	○
	상명대	예체능, 그룹		○	○
	성결대	그룹	○		
	한신대	예체능	○		
	한중대	의학		○	○
언수(택1)+외탐(2)	광주대	그룹, 의학	○		○
	군산대	그룹	○		○
	목포대	자연과학	○		○
	용인대	인문사회		○	
	한서대	자연과학	○		○
	홍익대	그룹	○		○
언수(택1)+탐(2)제2외국어(택1)+외	한남대	인문사회	○	○	
수외(택1)+탐(2)제2외국어(택1)+언	한남대	사범		○	
언탐(2)+수외(택1)	대구대	그룹	○	○	○
언탐(1)+수외(택1)	대구예술대	예체능	○	○	○
	한중대	그룹		○	○
언수외탐(1)(택3)	우송대	그룹	○		○
	중부대	그룹		○	○
언수외탐(2)(택3)	건양대	의학		○	○
	관동대	의학, 그룹	○	○	○
	극동대	인문사회, 그룹	○	○	○
	금강대	기타		○	○
	경남대	그룹		○	○
	경일대	그룹	○		○
	꽃동네대	자연과학		○	○
동양대	인문사회, 예체능, 공학,	○	○	○	

		자연과학, 그룹			
	대전대	그룹		○	○
	동아대	그룹	○	○	
	동의대	예체능, 그룹		○	○
	목포해양대	공학	○		○
	선문대	그룹		○	○
	세명대	의학, 그룹		○	○
	신라대	그룹		○	
	영산대	예체능, 그룹		○	○
	우석대	그룹, 사범			○
	장로회신학대	인문사회, 사범		○	
언수외탐(2)(택3)	중원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		○
	한국해양대	그룹	○		○
	호남대	그룹	○		○
	홍익대	기타	○		○
언수외탐(2)제2외국어(택3)	동서대	그룹	○	○	○
	인제대	그룹	○		○

표 18\_5개 영역 반영 대학

모집시기	대 학 명
가군	한국교원대(독어, 불어교육)
나군	서울대(인문사회)
다군	

※ 출처 : 2013학년도 대입정보 1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12.

자연계 학생은 수리'가'형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수리'나'형을 허용하더라도 수리'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수리'가'형을 필수로 지정해 놓은 곳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탐과 과탐을 모두 허용하는 대학 중,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자.



표 19\_수능 영역별 가산점 부여 대학

대 학 명	시 기	계 열	수리가	수리나	사탐	과탐	기타
가천대	가/다	그룹	○			○	
	나	자연	○			○	
가톨릭대	가/다	자연,공학,의학	5%				
		그룹	5%			5%	
	나	의학	5%				
강남대	나/다	공학	5%				
강릉원주대	나/다	그룹	10%			5%	
강원대	가/나	그룹	15%			과1-10% 과2-15%	
건국대	다	자연	15%				
건동대	나	그룹				수 '가'와 과탐 선택시 3점	
	다	공학					
건양대	나/다	의학과	5%				
경기대	가/다	그룹	15%				
경남과학기술대	나/다	그룹	3%	3%		3%	
경남대	나/다	수학교육, 그룹	10%				
경북대	가/나	그룹		-15%			
경상대	가/다	그룹	15%			10%	
경일대	가/다	그룹, 예체능	10%			5%	
	나	예체능	10%			5%	
계명대	나/다	자연과학	10%				
		의학				5%	
		그룹	10%			5%	
고신대	나/다	의학, 그룹	5%				
공주교육대	나	사범	(5%)			(5%)	
공주대	가/나	자연과학, 그룹	20%			10%	
		생물교육	20%				
		그룹	30%			10%	
관동대	가/나/다	의학	8%				
		간호학	8%	5%		5%	
		그룹				외국어5%	
		그룹	8%	5%			
광운대	가/다	공학	10%			5%	
		그룹	10%			(5%)	

광주여대	가/나/다	간호학	+1등급				
국민대	가/나/다	그룹	10%				
군산대	가/다	그룹	10%			5%	
극동대	가/나	그룹	5%			5%	
금오공과대	가/다	그룹	15%			5%	외국어5%
꽃동네대	나/다	자연과학	4%	2%		2%	
남부대	가/나/다	자연과학	10%				
남서울대	나	그룹	5%				
단국대(경기)	가	그룹	10%				
	나/다	그룹	10%			(10%)	(한문10%)
단국대(충남)	나/다	간호, 그룹	○				
		치의예				○	
대구가톨릭대	나	그룹, 의학	10%			5%	
대구대	가/나/다	그룹	5%			5%	
대구한의대	가/나	한의예(과탐)	10%				
		간호	10%			4%	
		그룹	10%	4%		4%	
		한의예(사탐)		4%			
대불대	가/나/다	수학교육	10%				
대전대	가/나/다	그룹	20점			10점	
대진대	가/나	인문사회			2%		
		자연공학	5%			3%	
동국대(경북)	가/다	수학교육	5%				
		간호				5%	
동국대(서울)	가/나	자연2-1	15%				
		자연2-2, 3	10%				
동명대	가/다	예체능	1%				
	나/다	그룹	1%				
동서대	가/나/다	공학, 자연	10%				
동신대	가/다	의료보건	5%			5%	
동아대	가	의예				화2, 생23점 가산	
	가/나	간호, 자연	10점			5점	
		인문사회			5점		
동양대	가/나/다	공학, 간호	10점			5점	
동의대	가/나	자연, 공학 등	5%				
명지대	나/다	그룹	10%				
목원대	나/다/다	수학교육	10%				



목포가톨릭대	나/다	간호			10%	
목포대	가/다	자연과학, 그룹	10%		5%	
목포해양대	가/다	공학	5%			
배재대	가/나/다	간호	18점		10점	
부경대	가	자연	20%		6%	
	나	자연	10%		3%	
부산가톨릭대	가/나/다	공학, 자연과학	2%			
부산대	가/나	인문사회			국사3%(상위2과목내 선정시)	
부산외대	가/다	자연과학, 공학	2%		2%	
삼육대	가/다	자연,공학,예체	○			
	다	기초의약과학	○		○	
상명대	나	자연과학	5%			
상지대	가/다	한의예	○		○	
	다	보건과학대학			○	
		이공과대학	○			
서경대	다	자연과학, 공학	5%		5%	
		나노융합공학	5%			
서울과학기술대	가/나/다	그룹	20%		20%	
서울교육대	나	사범	5%		5%	
서울대	나	인문사회	○			
서원대	나	수학교육	20%			
	나/다	그룹	3%			
전문대	나	그룹	○			
	다	그룹	5%			
성공회대	나/다	그룹	5%		5%	
성신여대	가/나	간호, 글로벌의과학	5%		화2,생2,물2중최상위1과목 3%	
		국문,한문교육				한문2%
		독문,불문,일문, 중문				제2외국어2%
성신여대	가/나	사학			역사2과목 2%	
		윤리교육			윤리2%	
		수학, 통계학	5%			
		생명과학, 화학, 식품영양			화학1,2 생물1,2 응시자3%	
세명대	나/다	의학, 자연	10%			
세종대	가	공학	10%			



	나	그룹	10%			5%	
		그룹			5%		
수원대	나	그룹	5%				
숙명여대	가/나	통계학, 그룹	10%				
순천대	가/나/다	그룹	5%			1.5%	
	나	수학교육				1.5%	
순천향대	나/다	의학	미응시자 10점감점			미응시자 10점감점	
		그룹	미응시자 10점감점				
송실대	가/다	그룹	12%			8%	
		컴퓨터학부	12%				
	다	공학				8%	
신라대	가/나/다	그룹	5%			5%	
아세아연합신학대	나	그룹				제2외국어, 한문 백분위60이상 가산점 부여	
아주대	가	그룹(자연2)	7%				
		그룹(인문1)	10%				
	다	e-비즈니스	7%				
안동대	가/다	식품영양, 그룹	15%				
		그룹(사범)	25%				
안양대	나/다	그룹	10%			10%	
연세대(강원)	가	그룹	50%				
영남대	가/다	그룹	10%			5%	
영동대	가/다	그룹	3%				
예수대	나/다	간호	10%			3%	
우석대	나/다	수학교육	10%				
우송대	가/다	간호	5점			5점	
울산과학기술대	나	경영	10%				
울산대	나	그룹	10%			5%	
원광대	가/다	수학교육	10%				
위덕대	나/다	인문사회	10%				
		간호, 그룹	10%			5%	
을지대	가/나/다	그룹	5%			5%	
이화여대	가	그룹	○				
인천대	가/다	자연	○				
인하대	가/나	인문사회	3%				
		공학, 의학, 기타	10%				
전남대	가/나	자연, 그룹	20%				



전북대	가/나	그룹	10%			10%	
	나	그룹	10%				
		예체능			(3%)	(5%)	
전주대	나	그룹	10%				
	다	사범, 그룹	10%				
조선대	가/나	그룹(인문)			5%		
		그룹(자연)	15%			5%	
		수학교육	20%				5%
	나	외대학			5%		5%
중부대	가/다	그룹	15점			10점	
		간호, 물리치료	15점				화학1,2, 생물1,2 응시자10점
중원대	가/다	인문사회					외국어2%
		자연과학	2%				외국어2%
차의과학대	가/다	인문, 자연	10점				
창원대	가/다	자연				10%	
		그룹(공학)	20%				
		그룹(자연)	10%				
춘천교육대	나	사범	5%			5%	
평택대	나	그룹	10점				
	다	예체능	10점				
한국교원대	가	사범	10%				
한국교통대	가/다	그룹	8%				
한국국제대	나/다	그룹	5점				
한국기술교육대	나/다	그룹	15점				
한국산업기술대	나/다	그룹	10%				
한국성서대	나	자연	5%				
한국외대	가/나	그룹(자연)	10%				
한국체육대	가/나	그룹				3%	
		운동건강관리				10%	
한국항공대	나	그룹(인문)			2%		
		그룹(공학)	10%				2%
한국해양대	가/나/다	해사대학	10%				
		해양과학, 공학	15%				10%
한려대	가/나/다	그룹(자연)	10%			10%	
한림대	가/다	그룹(간호)	10%				
		그룹(자연,공대)	10%				5%(과2는7%)
	다	예체능					5%(과2는7%)

한밭대	나	그룹(공학)	20%			10%	
한북대	가/다	그룹(간호)	5%			5%	
한서대	가/다	항공운항	3%			3%	
	다	전모집단위	3%			3%	
한성대	가/다	그룹(공학)	15점			15점	
한신대	가/다	그룹(자연)	10%				
한양대	가/나/다	그룹(자연)				과2에○	
호서대	가/다	전모집단위			(3%)	(3%)	

※ 출처 : 2013학년도 대입정보 1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12

정시모집은 결국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능 공부를 해야 한다. 서울대나 교육대, 또는 의과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이 탐구 과목을 3과목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탐구 과목은 2과목~1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계열에서는 사탐 대신 제 2외국어를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표 20\_수능에서 “제2외국어/한문”을 반영하는 대학

구 분	대 학 명
가산부여	건국대(5%)
탐구 1과목으로 인정	경희대(서울), 고려대, 공주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송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제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개 영역으로 인정	건양대, 경북대, 부산대, 부산외대, 단국대(죽전), 서울대, 조선대, 청운대, 한남대, 한림대

또한 탐구 과목과 제2외국어/한문은 표준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백분위에 기준을 두고 각 대학들이 보정점수를 부여한다.



표 21\_2012학년도 탐구 과목 및 제2외국어 환산 점수 (서울권 주요대)

과목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백분율	비교점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시립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의대
								인문자연	가교체교					일반	자전						
윤리	50	70	99	1.91	1	67.90	67.91	67.90	68.70	70.36	67.90	68.27	67.91	52.50	52.50	67.90	68.44	68.06	67.9	68.31	100.0
윤리	48	69	98	2.44	1	67.37	67.21	67.37	67.93	68.82	67.37	67.47	67.38	52.09	52.42	67.37	67.73	67.41	67.4	67.71	98.90
한지	50	64	97	6.38	1	66.81	66.57	66.81	67.24	67.92	66.81	66.82	66.82	51.66	52.35	66.81	66.82	66.82	66.8	66.81	100.0
윤리	47	68	96	5.66	1	66.30	66.18	66.30	66.66	67.36	66.30	66.30	66.30	51.26	52.27	66.29	66.30	66.30	66.3	66.30	97.80
세사	48	65	95	5.85	2	65.91	65.85	65.91	66.20	66.77	65.91	65.91	65.91	50.96	52.19	65.90	65.91	65.87	65.9	65.89	98.78
윤리	46	67	94	5.76	2	65.48	65.47	65.48	65.72	66.10	65.48	65.48	65.48	50.63	52.11	65.48	65.48	65.39	65.4	65.45	96.71
윤리	45	66	94	7.09	2	64.87	65.47	65.48	65.72	66.10	65.48	65.48	65.48	50.63	52.11	65.48	65.48	65.39	65.4	65.45	95.61
법사	47	66	93	7.62	2	65.08	65.08	65.08	65.25	65.62	65.08	65.09	65.09	50.32	52.04	65.08	65.09	65.03	65.0	65.06	97.63
한지	48	63	92	9.96	2	64.67	64.67	64.67	64.81	65.24	64.67	64.67	64.67	50.00	51.96	64.67	64.67	64.64	64.6	64.65	98.85
윤리	44	65	91	10.46	2	64.27	64.28	64.27	64.36	64.61	64.27	64.28	64.28	49.69	51.88	64.27	64.28	64.28	64.3	64.26	94.51
경지	44	62	90	12.48	2	63.90	63.90	63.90	63.96	64.12	63.90	63.90	63.90	49.41	51.80	63.90	63.90	63.90	63.9	63.90	95.0
국사	44	66	89	11.89	2	63.53	63.54	63.53	63.57	63.74	63.53	63.54	63.54	49.12	51.73	63.53	63.54	63.54	63.5	63.53	95.12
물리 1	50	71	100	0.69	1	70.12	70.13	70.12	69.01	75.11	70.12	71.00	70.13	70.00	52.50	70.12	71.21	70.88	70.1	70.00	100.0
물리 1	48	70	99	0.90	1	69.50	69.29	69.50	68.70	72.88	69.50	69.75	69.50	69.38	52.50	69.50	69.89	69.56	69.4	69.71	98.95
물리 1	47	69	98	3.71	1	68.50	68.40	68.50	67.93	71.02	68.50	68.63	68.50	68.38	52.42	68.50	68.89	68.50	68.4	68.42	97.90
생물 1	45	68	97	2.90	1	67.68	67.69	67.68	67.24	69.64	67.68	67.69	67.69	67.56	52.35	67.68	67.69	67.66	67.7	67.62	95.21
물리 1	46	68	96	3.75	1	67.03	67.03	67.03	66.66	68.69	67.03	67.03	67.03	66.92	52.27	67.03	67.03	66.97	67.0	67.03	96.86
물리 1	45	67	96	5.01	1	66.22	67.03	67.03	66.66	68.69	67.03	67.03	67.03	66.92	52.27	67.03	67.03	66.97	67.0	67.03	95.81
생물 2	43	68	95	5.41	2	66.50	66.50	66.50	66.20	67.80	66.50	66.50	66.50	66.39	52.19	66.50	66.50	66.46	66.5	66.42	93.57
화학 1	46	65	94	5.94	2	65.97	65.98	65.97	65.72	66.94	65.97	65.98	65.98	65.86	52.11	65.97	65.98	65.95	66.0	65.89	96.63
물리 1	44	66	93	8.41	2	65.42	65.43	65.42	65.25	66.16	65.42	65.43	65.43	65.31	52.04	65.42	65.43	65.43	65.4	65.37	94.77
지학 1	46	64	92	8.30	2	64.95	64.96	64.95	64.81	65.48	64.95	64.96	64.96	64.84	51.96	64.95	64.96	64.96	65.0	64.93	96.00
물리 1	43	65	91	8.79	2	64.45	64.46	64.45	64.36	64.76	64.45	64.46	64.46	64.34	51.88	64.45	64.46	64.46	64.5	64.38	93.72
지학 1	45	63	90	10.73	2	64.02	64.02	64.02	63.96	64.11	64.02	64.02	64.02	63.91	51.80	64.02	64.02	64.02	64.0	63.98	95.00
물리 1	41	64	89	13.87	2	63.62	63.63	63.62	63.57	63.54	63.62	63.63	63.63	63.51	51.73	63.62	63.63	63.63	63.6	63.60	92.67
독일어	50	68	100	0.53	1	72.87	67.91	72.87	69.01		72.87	73.25	67.91	52.50	52.50	67.90	68.60		68.0	69.00	100.0
스페인어	49	69	99	1.21	1	72.25	67.91	72.25	68.70		72.25	72.25	67.91	52.50	52.50	67.90	68.44		67.9	68.31	98.78
독일어	48	67	98	3.76	1	71.45	67.21	71.45	67.93		71.45	71.46	67.38	52.09	52.42	67.37	67.73		67.4	67.71	98.78
일본어	47	66	97	4.11	1	70.81	66.57	70.81	67.24		70.81	70.81	66.82	51.66	52.35	66.81	66.82		66.8	66.81	96.71
독일어	47	66	96	4.85	1	70.22	66.18	70.22	66.66		70.22	70.23	66.30	51.26	52.27	66.29	66.30		66.3	66.30	





는 문항 수가 30문항이고 사탐과목은 문항 수가 20문항이기 때문에 제 2외국어  
가 백분위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제2외국어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제 2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표 23\_2013 정시모집 “제2외국어/한문”을 반영하는 대학

구 분	대 학 명
가산부여	건국대(5%)
탐구 1과목으로 인정	경희대(서울), 고려대, 공주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송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제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개 영역으로 인정	건양대, 경북대, 부산대, 부산외대, 단국대(죽전), 서울대, 조선대, 청운대, 한남대, 한림대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학년도 대입정보 119」 2011.12  
 ※ 추후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부록\_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

구 분	2013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시 학생부작성 기준일</li> <li>정시 학생부작성 기준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 8. 31(금)</li> <li>2012. 12. 1(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능시험일</li> <li>성적통지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 11. 8(목)</li> <li>2012. 11. 28(수)</li> </ul>	
수시모집	원서접수 및 전형	2012. 9. 6(목)~12. 3(월)(89일)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우 8.16(목)부터 원서접수 가능)
	합격자 발표	2012. 12. 8(토)까지
	등록기간	2012. 12. 12(수)~14(금)(3일)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마감
등록마감		2012. 12. 19(수) (전문대학은 2012.12.20.(목)까지)
정시	원서접수기간	가,나,가나군 : 2012. 12. 21(금) ~ 26(수)(6일)

모집			• 다,가다,나다,가나다군 : 2012.12.22(토)~27(목)(6일)
	• 전형기간		• 가군 : 2013.01.02.(수)~01.15.(화)(14일간) • 나군 : 2013.01.16.(수)~01.25.(금)(10일간) • 다군 : 2013.01.26.(토)~02.04.(월)(10일간)
	• 최초 합격자 발표		• 2013.02.04.(월)까지
	• 등록기간		• 2013. 2. 5(화) ~ 8(금)(4일)
	•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마감	• 2013. 2. 20(수)(12일)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등록마감	○ 2013. 2. 21(목)
※ 전문대학		•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2.12.21.(금)~2013.03.04.(월)17:00까지 자율적으로 시행 ※2013.03.01.~03.04.등록은 타 대학 미등록자만 해당	
추가 모집	• 접수·전형·합격통보 마감		• 2013. 2. 22(금) ~ 27(수)(6일)(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 등록총원 등록마감		• 2013. 2. 28(목)

※ 추가모집 : 2013년 2월 22일(금) 09:00부터 실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수시모집 기간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특별전형을 수시모집에 실시할 경우, 다음의 전형일정에 따라 실시함
-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 : 2012년 7월 2일(월)부터 12월 3일(월)
-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 [수시모집과 동일]
- 정시·추가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정시·추가모집의 전형일정을 준수함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함(9월 입학 가능)

※ 전문대학의 수시모집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및 등록 마감은 2012. 12. 20(목). 21:00 까지.  
전문대학의 정시모집 기간은 2012.12.21(금)~2013. 3.4(월). 17:00까지.  
단, 2013. 3.1(금)~3.4(월)에는 타 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에 미등록한자만 등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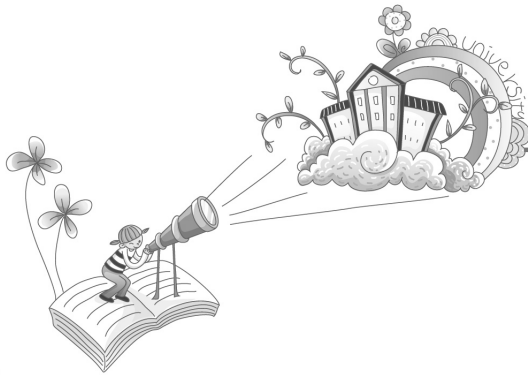


# Part Ⅲ

## ← 입학사정관제의 실제와 대비

임 병 옥

인창고 연구부장



2013 대학입시 설명회 자료집

## C.O.N.T.E.N.T.S

### 모두가 생각해 볼 일

1. 수시전형의 6회 지원 제한의 의미
2. 나의 이해와 확인
3. 입학사정관 전형과 자기확인
4. 자기주도학습(SDL : self-directed learning)의 이해
5. 대입 자기주도학습의 포인트
6. 2012대입 입학사정관제의 방향
7. 자기주도성과 관련한 현장의 접근
8. 2011대입 입학사정관제의 실제
9. 2013대입과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10. 입학사정관제의 각종 평가 루브릭

### 덧붙이는 말씀

## 모두가 생각해 볼 일

### • 유사도검색시스템을 이해해야

2012대입 입학사정관제는 내실화의 숨고르기를 한 해였다. 그 방편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회자하던 해이기도 하다. 그 중 지난해 7월 초 있었던 유사도검색시스템 사정관 연수는 그 백미다.

“대학의 환경에 따라 자기소개서·추천서 내용(원문)의 포함 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하고, 기준에 맞게 맞춤형 유사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지원자 정보 중, 유사도 검색의 동일인 배제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대교협에 제공하게 된다. 대교협에서 구축한 유사도 검색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없었던 대학 간의 유사도 검색을 실시할 예정으로, 보다 확대된 개념의 표절검색을 실시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교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요지는 자소서, 추천서를 공유하고, 그 표절을 검색하겠다는 취지다.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좋은 조치이고 발전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8월 한 달을 제자들이 자소서와 추천서 작성에 매달려 방학을 반납한 교사들의 고충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고3 담임이 작성하는 추천서는 10명이 5개 대학에 지원한다면 50편의 추천서를 작성해야 한다.

추천서 내용을 대학 간 공유하고 그 표절성을 검색하여, 한 교사가 작성한 50편의 추천서의 유사도와 표절성을 가려낸다면 누가 그 그물망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학교의 행사와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을 제자들이 수행하고 참여한 내용을 기록한다면 자연 유사한 내용과 표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적어도 이런 발표에 앞서 현장의 교사들과 소통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과 대교협이 홀로 발전시킬 수 없다. 현장 교사와 고교의 적극적 동조와 참여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한 문장과 어절과 단어가 노출되어 교사가 표절자가 되고, 사유서를 작성하고 학생이 피해를 본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이 벌어진다. 교사가 위축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구더기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정관제의 동반자이고 실천자이며 현장의 선생님께 표절검색기는 빅브라더일 수밖에 없다.

검색해야 할 대상은 사교육에서 비싼 돈을 주고 작성했다는 가짜 추천서와 검색엔진에서 유료로 다운받아 작성한 비양심적인 글이면 충분하다.

#### • 전형의 통폐합과 축소의 문제점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지난해의 진행 과정은 결코 정의롭지 않았다. 2011대학입시의 전형 가짓수가 많아 3,000 가지가 넘었다 한다. 이를 논자는 입시로도 운운하며 전형안을 줄일 것을 사실에 실었다. 또 다른 논자는 전형의 자유재량성(discretion)과 불투명성(opacity)을 들어 신뢰할 수 없는 제도로 낙인 찍고 있다.

과연 그런가? 당당하게 채점과정을 오픈하여 내가 채점에 참여했던 경희대학의 예를 들어보자. 경희대는 유일하게 교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입학사정관 자문교사단으로 정시 입학사정관제 1단계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통하여 4박 5일 연수를 거치며 평가단 선생님은 연수를 거친다. 평가단 선생님들과 전임 사정관의 모의 평가는 신기할 정도였다. 샘플 학생 4명의 성적과 교과외자료를 놓고 대학 전임사정관과 교사 평가단이 평가한 학생의 결과는 합격순서와 성적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다. 서류 평가단은 각서를 두 장 작성한다. 일반 법준수 각서와 회피·제척 각서이다. 동향, 동일고교의 수험생이나 자신의 친인척을 채점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다.

한 학생을 1단계 채점하는데 20여 명 이상의 평가단이 참여한다. 그 중 최고점이 합산에 제외된다. 학생은 성적, 추천서, 자기소개서, 교과외활동 10가지와 인재상 적합도 등을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받는다. 그리고 수험생의 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여 90점 이상 몇 %, 80점, 70점, 60점 이하의 퍼센트를 정해 채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채점되어 3배수 올라간 학생을 2단계 심사자가 다시 평가를 시작한다. 다단계 평가다. 최종 평가 시에는 토론과 면접을 통하여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재평가 한다. 물론 최후에 합격자를 가리기 위하여 현장 방문과 추천자 면담을 거치기도 한다.

사적 평가가 있을 수도 없고 어느 개인이 의도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는 구조가 결코 아니다. 차제에 모든 대학이 채점 방식을 교사들에게 공개하기를 희망해 본다. 괜한 의구심과 불신이 입학사정관제를 미혹의 눈으로 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가짓수가 많을수록 좋다. 내신우수자, 지역우수인재, 구청핵심인재, 면접우수자, 자기추천자, 성직자추천자, 교사추천자, 학교장추천자, 방과후 280시간 이상자, 봉사활동 300시간 이상 대상자, 헌혈10회 이상자, 리더십전형, 다양한 사회 배려자전형, 사회 공헌자전형, 과학인재전형, 어학인재전형, 문학인재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 선행효행 전형, 창의적체험활동 전형, 면접전형, 창의인재형, 잠재우수자, 교사추천전형....

이러한 여러 전형안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명칭이 그렇고 전형방식이 그렇다.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생과 중학생까지도 주제와 성격이 분명한 전형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역량을 키울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입학사정관제는 자신의 적성과 꿈에 바탕한 자기주도성을 평가하는 입시제도다. 작년 있던 전형명을 금년에 바꾸고, 새로운 이름으로 전형을 신설하고 하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 • 고등교육법을 지켜야 할 대학

대학 모든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 고등교육법이다. 그 중 대입전형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34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6. 29에 의한 32조 내용이다.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②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6.11.] [본조제목개정 2008.6.11.]

이 법률안은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의 혼란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의 전형 탐색의 시간을 충분하게 주기 위한 내용이다. 적어도 고2 학생이 입시안을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한 조항이다. 2012대입 수시 입학사정관제가 8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6월말까지도 전형안을 발표하자 않고, 못하는 대학이 부지기수였다. 정시 수능성적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아니고,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



부모가 어떻게 2개월 앞 두고 발표하는 전형안에 맞춰 대입을 준비할 수 있을까?

뿐만이 아니다.

수능을 마치고 1주일이 지나서도 정시 전형안을 확정 발표하지 않은 대학이 역시 아주 많았다. 수시는 학과별 모집을 하고 정시는 계열별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시를 낮춰 응모한 학생이 땅을 치고 분해하기도 한다. 합격자 발표일자를 늦추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수시에 복수 합격한 학생의 선택권을 임의로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있다.

대학은 수시 논술, 면접 날짜를 다양하고 다양하게 정해서 사전에 분명한 날짜와 장소를 공지해야 한다.

“논술 면접일은 추후 공지.” 홈페이지에 공고한 이 말은 이렇게 들린다. ‘우선 수시 접수를 하시오. 날짜가 겹치면 응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비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동일 대학에서조차 서울과 지방에 캠퍼스가 있을 경우, 대학별로 논술고사를 보는 장소를 공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단 대학에 접수비를 내고 접수한 학생은 논술 장소가 당연히 서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수험생이 많다고 지방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공고한다면 과연 지방으로 시험을 보러 갈 응시생이 몇 퍼센트일까. 장소를 공고하지 않는 반사이익 또한 분명하게 수험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수험생들의 수시 평균 응모 횟수가 4.5회이다. 학생들이 실제 수시 논술과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는 60%에 불과하다.

• 입학사정관제를 바라보는 교사의 시각

입학사정관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중장기 선진화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시를 입학사정관제로 일원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시로 치르는 내신우수자, 논술전형, 적성검사, 특별전형과 다르게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자명하고도 각별하다.

우선 그 준비의 순교자이다.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린다.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중요해지면서 방과후수업은 물론 수행평가와 기타 행사 등 사사건건 기록하고 정리해야 한다. 또한 많은 프로그램의 시행과 운영이 그렇다. 각종 경시, 발표, 체

협, 연구와 연수까지 사정관제를 따르는 업무는 실로 경이롭다. 이 모든 것이 수업이후에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50여 편의 추천서 작성에 2011 하계방학은 이미 반납하였다.

동시에 학교대변자이다. 고교별 교육과정과 환경, 역사적 배경의 상이성, 특이성을 작성하고 알려야 한다. 또한 학생의 관찰자이다. 학생의 장점과 가능성, 잠재력을, 인성과 대인관계를, 자기주도력과 그에 준하는 리더십을 관찰하고 메모한다.

교사는 그리고 입시 평가의 조력자이다. 학생의 개인적 정보를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입시전형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3의 평가자이다. 금년 대교협 공통추천서에 나타나는 척도형 평가는 교사의 기록 자체가 평가이며 영원한 객관화 지표인 것이다. 학업관계 항목으로 학업성취도(전교과), 학업성취도(관련교과), 수업참여도, 분석능력 및 논리력, 창의력, 학습발표력 등의 6개 항목을 평가한다. 인성 및 대인관계 능력으로 책임감, 성실성, 준법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협동협심,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고뇌 속에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탁월함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결국 입학사정관제 교육의 종결자이기도 하다.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품성을 가르치며 대화의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평가도 하는 일련의 교육 연장선에의 모든 활동이 교사에 의해서 기획되며 진행되고 평가 정리되는 것이다.

## 1. 수시전형의 6회 지원 제한의 의미

2013대입 전형에서는 수시 최초 합격자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자도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최적의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횟수가 6회로 제한되면서 대학 및 학과별 선호도에 따라 경쟁률 및 합격선이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를 살펴보면 2010학년도 3.7회, 2011학년도 4회, 2012학년도 5.6회로 점점 늘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 일반전형 논술 경쟁률이 보통 50:1로 나타 ‘로또’ 지원의 실상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전형이 다양화되면서 한 대학 내에서도 2~3개 전형에 복수지원함으로써 그 지원



횟수가 부풀려졌다.

구분		서류(학생부) 또는 입학사정관 중심 전형		논술 중심 전형	
서울대	인문	지역균형선발	4.6	-	
	자연		2.8		
연세대	인문	진리자유	10.2	일반	59.1
	자연		12.0		63.5
고려대	인문	학교장추천	4.2	일반	62.5
	자연		3.9		44.5
서강대	인문	학교생활우수자	11.4	일반	82.9
	자연		8.1		55.7
성균관대	인문	학교생활우수자	12.6	일반전형	93.3
	자연		7.9		44.9
한양대	인문	학업우수자	20.3	일반우수자	100.0
	자연		16.6		75.4
중앙대	인문	학업우수자 (유형2)	11.9	논술우수자	95.3
	자연		12.6		79.6
경희대	인문	교과우수자	15.6	일반학생	73.0
	자연		22.1		41.3
한국외대	인문	21세기인재	8.7	일반비	53.9
서울시립대	인문	서울핵심인재	7.5	전국고교우수수인재	185.5
	자연		5.6		104.8
이화여대	인문	지역우수인재	11.4	일반	45.6
	자연		11.7		23.5

위 표가 말해주듯 소위 명문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평균 10:1을 상회하고, 논술전형은 50:1을 상회하고 있었다. 금년 6회 제한의 의미와 유의점을 알아 본다.

### 가. 학생부전형

1) 학생부 전형은 그 내신 평점이 이미 노출되어 안정지원이 해당이다. 최우수 학생이라도 동시에 세 군데 이상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 지난해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2) 동시에 최우수권은 1~2개 논술전형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논술전형은 예년의 경재에 버금갈 것으로 본다.

### 나. 논술전형



1) 학생부전형에 비해 최초 등록률이 높아 논술에 자신이 있을 때만 소신지원을 할 수 있다.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 지원할 때 무조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없거나 불안하게 지원해다가는 수시 기회만 한 번 날리게 된다.

2)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롯해 2013학년도에는 고려대도 수능 전에 논술을 실시해 상위권 학생들의 논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3) 인문계열의 경우 서울시립대가 35대1 내외의 경쟁률을 보이다가 지난해 185.5대1을 기록,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의 경우 서울시립대, 이화여대와 한양대는 최근 3년 간 경쟁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서강대, 한국외대 등은 매년 경쟁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 자연계열의 인기학과인 의학계열, 수학교육, 화공생명공학, 신소재공학, 생명과학 등의 경쟁률은 늘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다. 입학사정관 전형

1) 이 전형은 본격 시행 3년차에 접어들어 내신과 비교과활동이 잘 관리된 학생들이 다수 지원해 내신 성적이 점점 상향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대, 연고대 등은 성적이 1단계 주요 요인임을 다년간 밝혀졌다.

2) 중요한 것은 내신을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우수자, 리더십, 전공적합, 자기추천 등 전형의 유형에 얼마나 적합한 준비를 했느냐에 달려 있다.

#### 라. 적성고사 전형

1) 2013대입에서 25개 대학으로 확대되었지만 한 문제의 영향이 매우 커서 내신이 좋더라도 적성고사 성적이 우선이 된다.

2) 적성고사에 대비를 착실하게 했다면 내신이 부족해도 지망대학에 진학이 충분히 가능하다.



**마. 상향 · 소신 · 안정 지원의 비율은?**

2012학년도까지는 정시보다 수시에서 상향이나 소신 지원으로 무차별 지원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수시 지원 6회 제한 등으로 묻지마 상향지원은 불가능해졌다.

**• 상향지원자 :**

모의고사가 아주 우수한 것을 전제로 정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논술, 입사관, 특기자 등 상향, 소신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수시 2차의 경우 상향과 안전지원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수능 이전에 미리 지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수능 성적에 따라 대학별고사 응시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 소신지원자 :**

본인의 내신, 모의고사 성적, 입학사정관전형 준비 중 하나라도 철저한 수험생은 소신 지원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안정지원자 ;**

이번 수시는 상향 지원은 줄고 소신 또는 안정 지원 경향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안정 지원의 경우에 희망대학보다 전공학과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중상위권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형 시기별 지원 횟수 어떻게 배분할까**

1차는 수능 전에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며, 2·3차는 수능 이후에 전형을 실시한다. 수시전형을 자신의 특징점에 맞게 응시할 경우에는 수시 1차에 지원 횟수를 여러 대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2·3차는 수능 가채점으로 응시 여

**2. 나의 이해와 확인**

**가. 나의 고민 - 진로와 진학의 고민**

자신에게 알맞은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진로(career)란 일반적으로 평생에 걸쳐 추구하는 모든 일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는 생의 결정적 선택의 활

동을 포함하며, 여가활동까지를 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넓은 개념으로는 일에 대한 열망과 요구와 기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진로(career)의 총체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나의 열정은 무엇인가, 내게 적합한 학과는 무엇인가, 내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가 등등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결국 나의 이해와 고민으로 귀결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나의 이해와 고민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은 한 개인이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 자신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심화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자신과 사회를 연구 학습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대학과 전공의 선택을 진로과정의 주요 행위라고 할 있지만 우리는 전공선택을 원서접수 이전이나 접수기간 중 심지어 원서접수 시에 확정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김명언 외, 2006; 박무호 외, 2007; 김방식 외, 2004).

#### 나. 진로의 롤 모델 설정

세리키즈(Seri Kids) - 1998년 5월 18일 박세리 선수는 미 LPGA 투어의 메이저타이틀인,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한다. 그리고 한 달여 후 메이저타이틀 중에서도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US 여자오픈에서 공동선두를 기록한다. 박세리는 이틀 연속 18홀 연장 승부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했다. 이 연장 18홀에서 박세리는 워터 헤저드에서 맨발로 리프에 빠진 공을 쳐내 세계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서든데스 연장 2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추아시리폰을 아주 극적으로 눌러 메이저 대회 2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는다. 이 대회는 무려 92홀 만에 승자를 결정한, 미 LPGA투어 역사상 가장 긴 승부였다.

세리 키즈(Seri Kids)란 1988년 전후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골프에 입문하여, 2008년 전후로 한국, 일본, 유럽, 미LPGA투어 등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을 말한다.

아이작 뉴턴은 “내가 세상을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또한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침상에 아이



작 뉴턴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항상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 위한 생각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롤 모델을 세리 키즈(Seri Kids)나 아인슈타인처럼 가슴에 품고 지낸다면 어느덧 그를 닮아가면서, 시나브로 그를 넘어서게 된다. 진로도 진학도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롤 모델의 설정이 필요하다.

**롤 모델의 설정과 견주어 비교하기**

구분		나의 현재	롤 모델	연대별 비교
외적 역량	인생 목표			
	성 격			
	좌우명			
	인생 전환 모멘트			
	사회성			
	리더십			
	도덕성			
	대입관계			
	기타			
내적 역량	취 미			
	습 관			
	독 서			
	봉사활동			
	인적 네트워크			
	직업 활동			
	기타			
롤 모델과의 대화 :				

▶ 자서전 쓰기 : 70세, 400페이지, 100쪽 내용을 쓰시오.

## 나. 대학 졸업 후의 진로

학과	가능직업 및 진출 경로
국어국문학과 (4,752명)	<p>〈가능 직업〉                      중등학교 교사, 문리/어학계 강사 (국어과목), 작가(시나리오작가, 방송작가, 소설가, 시인 등), 콘티라이터, 기자(신문기자, 잡지기자, 방송기자 등), 광고 기획자, 카피라이터(광고문안작성자), 아나운서 및 리포터, 인문과학연구원, 출판물전문가</p> <p>〈2008년 진출 경로〉                      경영, 회계관련 사무직(35.9%), 관련 교육, 연구관련직 (24.4%), 문화,예술, 디자인,방송직(18.3%), 영업 및 판매관련직(6.2%), 기타</p>
일어일문학과 (2,741명) 중어중문학과 (4,096명) 영어영문학과 (7,854명) 독어독문학과 (1,200명) 노어노문학과 (536명) 스페인어문학과 (500명) 불어불문학과 (1,314명) 기타유럽어문학과 (772명)	<p>〈가능 직업〉                      중등학교 교사, 문리/어학계 강사, 해외영업원, 무역사무원, 마케팅사무원, 여행사무원, 관광통역안내원, 항공기승무원, 기자(방송기자, 신문기자 등), 번역가, 통역가, 공무원(외교관) 진출 가능</p> <p>〈2008년 진출 경로〉                      경영, 회계관련 사무직(33.7%~57.2%), 관련 교육, 연구관련직 (9.3%~29.2%), 금융, 보험 관련직(4.7%~21.7%),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직(2.9~11.5%), 영업 및 판매관련직(3.1~14.9%), 기타</p>
화학과 (2,768명)	<p>〈가능 직업〉                      자연과학연구원(화학연구원), 화학공학기술자(석유화학공학기술자,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공학기술자, 의약품화학공학기술자, 비누 및 화장품화학공학기술자, 도료 및 농약화학공학기술자, 음식료품화학공학기술자 등), 재료공학기술자, 생명과학관련시험원, 화학공학시험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기술영업원(시약장비 관련 등), 중등학교 교사(화학)</p> <p>〈2008년 진출 경로〉                      관련 교육, 연구직(32.3%),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27.4%), 화학관련직 (13.7%), 영업및판매관련직(9.1%), 기타</p>
환경(공)학과(3,684명)	<p>〈가능 직업〉                      환경공학기술자(대기환경기술자, 수질환경기술자, 소음진동기술자, 폐기물처리기술자), 환경공학시험원, 환경영향평가원, 조경기술자, 도시계획가, 자연과학연구원, 환경 및 보건위생검사원, 비파괴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사회단체활동가(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환경전문기자, 환경전문변리사</p> <p>〈2008년 진출 경로〉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28.3%), 환경관련직(20.8%), 영업및판매관련직 (10.3%), 관련 교육, 연구직(9.9%), 건설관련직(9.4%), 기타</p>



순위	상위만족도	지수	하위만족도	지수
1	사진작가	4.60	모델	2.25
2	작가	4.48	의사	2.84
3	항공기조종사	4.45	크레인 운전원	3.00
4	작곡가	4.44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	3.03
5	바텐더	4.36	건설기계 운전원	3.04
6	인문과학연구원	4.32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3.16
7	상담전문가	4.28	애완동물미용사	3.20
8	인문사회계열 교수	4.24	금형원	3.21
9	성직자	4.24	상점판매원	3.24
10	환경공학기술자	4.24	자동차정비원	3.24

#### 다. 미래 사회의 주요 변화

분야	주제	내용
정치	글로벌화	이동성 증가, 인력 및 자본의 이동, 국제 공조 확산, 다문화 및 이종 문화 등
	안전 위험성 증대	신종 질병 및 전염병 확산, 핵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경비 산업 성장
	남북 통합	남북한 경협, 북한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 및 급변
사회	인구구조 변화	세계 인구증가, 국가별·지역별·인구의 증가, 정체, 감소가 각각 진행됨,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국가 간, 기업 간, 고용구조 양극화, 경제 양극화에 따른 교육 기회 차별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
	네트워크 사회	사이버 공동체 활성화, 영토국가에서 네트워크 국가로 전환, 정보 독점 및 정보의 평준화
경제	웰빙 감성 복지 경제	고령화, 글로벌화에 따른 삶의 질 중시, 신종 질병, 전염병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 대두
	지식 기반 경제	경제의 소프트화 심화, 정보·서비스·컨텐츠 등 무형자산 시대 도래, 지식 경영 확산, 디지털 중심의 산업 재편
	글로벌 인재 부상	글로벌화에 따른 멀티플레이형 인재, 지식경쟁력 부상, 창의력과 감성의 부각 등
기술	가상지능공간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 간 상호작용 증대, 증강현실, 실감형 콘텐츠 등
	기술의 융복합화	기술-산업 간 융복합화, 전통 산업과 신기술의 융합 등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군사용 로봇, 정서 로봇, 나노 로봇

환경	기후 변화 및 환경 오염	환경 오염과 기상 이변에 따른 환경 안보 부각, 국제 탄소 거래제도, 물 부족 등
	에너지 위기	화석 에너지 및 자원 고갈 심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 대체에너지 개발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윤리와 기술의 충돌, 기술 패권 주의, 개인 정보 및 불건전 정보의 부작용

## 라. 21세기 신종 직업

직업	주요업무
음악치료사	음악을 이용해서 우울증, 자폐증 등 정신 질환을 치료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임종을 앞둔 말기(암)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증상 완화 및 통증 치료를 실시
국제회의기획자	효과적인 국제 회의 및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
운동처방사	환자나 정상인의 신체 조건, 건강 상태, 질병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방법을 알려주고 운동 상황을 점검, 관리
학교사회사업가	학생과 부모에 대한 교육 상담, 학생 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수립과 실행 등을 수행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원	장애인의 직업 재활 계획을 수립, 적합한 직종 및 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
여행설계사	여행객들과 협의하여 여행지, 교통, 숙박, 일정 등에 관한 여행 설계를 제공함
캐릭터엠디	만화 영화의 캐릭터 제작 방향을 책정, 각종 모형 및 도구를 사용하여 특성있는 캐릭터를 디자인
사이버기상캐스터	인터넷을 통해 날씨 등 일반 기상 정보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고부가 가치 기상 정보를 만들어 제공
조향사	각종 향기와 냄새를 혼합해서 새롭고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 냄
베타테스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오류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
게임시나리오작가	컴퓨터 게임 소비자가 요구하는 스토리를 구성하여 시나리오를 제작·제공함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정보, 신규 상품 정보를 수시로 갱신, 배송, 고객 불만 사항 처리



정보제공자	시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으나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정, 편집하여 가치 있는 정보로 편집·제작한 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제공
컴퓨터중매인	이상적인 배우자의 상세한 정보를 조사하여 컴퓨터에 자료를 등록, 분류한 후 입력된 배우자 조건에 맞는 상대자를 컴퓨터로 찾아 만남을 주선
정보시스템 감사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개인의 기밀 보호에 대한 안전성 감사와 이미 구축·운영 중인 정보 시스템에서의 정보 안전성을 파악·시정
웹디자인사	홈페이지를 디자인한 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제공함
정보기술컨설턴트	기업의 제반 조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기업에 맞는 최적 환경의 컴퓨터 시스템을 기업에 제공함
컴퓨터바이러스 치료사	새로운 컴퓨터 바이러스를 파악하여 백신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바이러스 퇴치 방법을 제공
보안프로그램 개발원	해커들의 해킹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PC 통신상의 보안 프로그램과 시험 도구를 개발

### 3. 입학사정관 전형과 자기 확인

#### 가. 입학사정관제 전형 평가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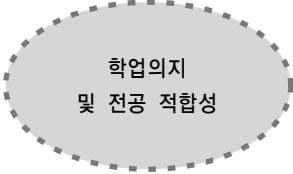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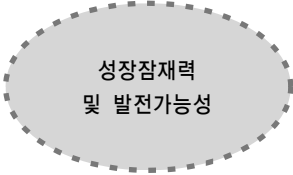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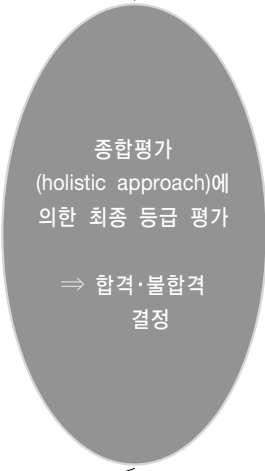
대학별 인재상과 전형방식이 다른 진로진학의 체제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로진학의 첫걸음이 될까. 그것은 입학사정관전형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학교생활의 정량적 평가와 자신의 내적 역량을 스스로 평가하고 분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일일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0. 4월에 다음과 같은 입학사정관제 평가의 공통운영 기준을 발표하였다.

####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 및 방법

-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업성취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 충실도, 학업 의지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입학사정관 전형은 서류 심사, 면접, 토론 등 다양한 평가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모형(예시)

평가요소	평가기준	종합평가
<p>〈교과 관련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성적</li> <li>• 학년별 성적 추이</li> <li>• 학업관련 탐구 활동</li> <li>• 교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li> <li>• 방과후학교 활동 등</li> </ul> <p>〈창의적 체험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활동</li> <li>• 자격증 및 인증</li> <li>• 진로탐색·체험활동</li> <li>• 동아리 활동</li> <li>• 봉사활동</li> <li>• 방과후학교 활동 등</li> </ul> <p>〈학교생활 충실도, 인·적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의식</li> <li>• 리더십</li> <li>• 학업의지</li> <li>• 특별활동</li> <li>• 출결 상황</li> <li>• 교사의 평가</li> <li>• 교우관계 등</li> </ul> <p>〈학습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환경</li> <li>• 학교 여건</li> <li>• 지역의 교육여건</li> <li>• 학업수행의 장애극복 등</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학업의지 및 전공 적합성</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창의성</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인성</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학업성취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  <p>종합평가 (holistic approach)에 의한 최종 등급 평가  =&gt; 합격·불합격 결정</p> </div>



위 표에 드러나는 평가요소는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을 아우르고 있으며 평가방식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함께 함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의 영역과 자료는 교내 활동을 위주로 하며 개인적,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여 타고난 배경과 역량에 의한 것이 아닌,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철학을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환경, 학교 여건, 지역의 교육여건, 학업수행의 장애극복 등 사정관의 평가에서 환경적, 태생적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편차를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잠재적 역량이 뛰어나지만 사교육에 의해 길러지지 않은 미완의 인재를 찾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 나. 대학 인재상과 전형 방식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한 학생이 똑같은 성적과 자기소개서, 추천서와 교과외 활동 자료를 대학에 제출했어도 대학별로 합격과 불합격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학별 인재상이 다르고 전형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할 수 있다. 대학별 인재상은 대학마다 다르고 단과 대학별로 다르고 종교와 재단의 성격마다 다르게 마련이다.

입학사정관제의 전형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하는 척도의 비중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대학별 인재상의 의미와 전형의 방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 인재상 소개





#### 4. 자기주도학습(SDL : self-directed learning)의 이해

##### 가.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언급은 Knowles(1975)에서부터 본격 시작한다. 그는 자기주도학습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초기 견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거나와 관계없이 개별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서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실행하여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과 활동’ 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송인섭, 2006)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은 학습을 설정하려는 이유와 목표설정(동기), 자료와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실제 전략(인지),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실천(행동)의 3가지 요인이 핵심이 되며 이것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학습자는 자기주도학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주도학습자는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신의 내면적 동기유발이 매우 강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결단력과 자율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흔히 자기주도학습을 혼자 하는 학습, 스스로 학습 등으로 오해하곤 하는데, 이는 교사와 학부모의 지지와 뒷받침,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이 교사주도, 학부모 주도로 흐르지 않도록 조절하고 경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 나. 자기주도학습의 특성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 전체의 과정을 학습자 자신이 통제하고 관장하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성호(1997)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리를 다음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자신의 내면적인 동기 유발로부터 출발한다.

학습자는 배우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고, 그 욕구는 학습자에 의하여 스스로 재확인된다. 이러한 욕구와 동기의 재확인 은 곧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안 배우고, 언제 어떻게 배울지 모두를 결정하게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내면적인 동기의 재확인 은 학습자 자신의 총체적인 인지 능력의 이해와 분석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의 지식, 제반 인지적 기능, 잠재력, 태도, 흥미 등 모두가 하나의 통합된 모습으로 확인된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모든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학습자는 하나의 독립된 학습자로서 자신의 두 발로 스스로 서기 위한 자기 충족의 목표를 향한 계획을 세운다.

셋째, 이렇게 세운 계획을 학습자는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능동적으로 시작해 나간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은 교사나 부모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선포해 나간다.

넷째,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자는 자신에게 최적으로 쓸모있는 학습기회, 학습방법, 학습자료 등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것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수행 언약을 학습자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에 대한 성패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자는 학습의 과정을 자신의 모든 능력, 여건, 목표 등에 비추어 스스로 보조를 맞추어 이끌어 나간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자는 결코 집단 속에 끼여서 집단의 물결 흐름대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에 휩쓸리거나 물러나지 않는다.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에게 알맞은 속도를 갖고 그에 따라 전진한다. 그 속에서 그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의식을 갖는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학습은 타인과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자아의 내적인 경쟁을 벌인다.

여섯째, 자기 주도적 학습은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스스로 가르친다.

학습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교수자의 역할을 발휘한다. 물론 이러한 원리는 집단 학습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발휘되는 학습자의 역할이기도 한다.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를 가르치면서 스스로 배운다. 그러므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교육 장



면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일곱째,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평가한다.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학습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효율적으로 학습하였는가’는 학습자 자신이 가장 잘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나름의 평가 준거들을 스스로 세우고 있다. 비록 타인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여도, 자신이 선정한 준거에 비추어서 학습의 실패를 자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곧 학습자 스스로의 평가적 능력이 학습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다. 자기주도학습의 촉진을 위한 변인

##### 1) 환경적 맥락의 이해

자기주도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활동을 설계함에 있어 제시된 로드맵에 의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가능한 대안들로부터 과정을 선택하고 자신의 학습 과제를 구조화한다. 그것은 자기주도학습의 동인과 방법, 이용 가능한 자원, 학습이 형성되는 여건들이 물리적, 정신적, 다양한 환경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적인 선택들도 학습자가 속한 환경에 의해 제한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속한 개인적, 인적, 사회적 환경과 맥락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2) 자기주도학습의 플랜의 설정

학습플랜은 학습자가 주어진 환경과 도구를 이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자 하는가 등을 기술하고 있는 개인적인 계획이다. 이 플랜은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의 소통의 도구 역할을 한다. 이것은 학습하는 주체, 즉 학습자가 지원·촉진의 주체자인 교사와 대등한 계약 관계하에, 교사로부터 지지, 지원, 촉진이라고 하는 실천 활동을 받으며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플랜은 당연히 학습자의 주도적인 마인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3) 동일 학습 집단의 배려

자신의 자기주도학습의 플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학습자들은 집단 내의 격려와 호응과 관심 속에서 보다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환경적

맥락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바, 교사들은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들과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나 아이디어 관련 자료 등의 접근, 교환, 평가 등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폭넓은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4) 교사의 역할 변화

##### (가) 동기부여 제안자

자기주도학습이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닌 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학습자를 제대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 동기 부여자로서,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극을 부여해야 한다. 왜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한지, 그 방식과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기유발에도 원리가 있다. 우선 학습자의 흥미, 능력에 맞는 학습활동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풍부한 학습 경험과 그 경험의 심화를 위한 단원학습의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서 학습 단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험과 학습 내용을 결부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내용에 대한 힌트나 윤곽을 알기 쉽게 하고, 친밀감이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는 현재의 능력과 새로운 학습 내용이 결부되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험과 학습 내용의 결부뿐만 아니라 흥미, 관심과 학습 내용을 결부시킴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성공감을 체험하도록 하여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형성에 크게 공헌한다.

##### (나) 대등한 토론자

토의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면대면 상황에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장 중시하는 토의는 상호간의 깊이 있는 이해,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평가력이나 종합력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토의는 타인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학습 방법으로 상호 신뢰의 발판이 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원리를 깨닫게 한다.



**(다) 냉철한 평가자**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평가한다. 분명히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학습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효율적으로 학습하였는가’의 문제는 학습자 자신이 가장 잘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나름의 평가준거들을 스스로 세워 스스로의 평가적 능력이 학습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교수하지만 모든 교수에 평가가 따르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교사가 평가자로 역할을 할 때는 평가를 위한 평가보다는 평가가 진행되는 구조와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의 공개는 자기주도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플랜을 세우고, 자신을 평가하는 방향의 가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대입 자기주도학습의 포인트**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 및 평가자료(예시)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내용	평가자료
교과 관련 활동	교과성적	• 교과 내신등급 또는 수능 성적	학생부, 수능성적
	학년별 성적 추이	• 학년별 학업성취도의 등락 추이 및 정도	학생부
	학업 관련 탐구 활동	• 활동의 내용 및 기간 • 참여의 적극성	학생부, 자기소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교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	• 수상 내용 • 수상의 난이도 등(상의 권위 및 참여자 수)	학생부
	방과후학교 활동	• 동기와 목적, 소감 • 학습 분야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 독서량 • 내용 이해도 등	학생부, 자기소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자격증 및 인증	• 자격증 및 인증 획득 목적, 분야, 활용계획 등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진로탐색·체험 활동	• 진로·체험활동의 영역 • 참여의 적극성	학생부, 자기소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동아리 활동	• 동아리 활동에서의 역할 • 참여도 및 성실성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봉사 활동	• 봉사활동의 내용 등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b>방과후학교 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와 목적, 소감</li> <li>• 참여 분야 및 참여 정도</li> </ul>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b>학교 생활 충실도 및 인·적성</b>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li> <li>• 공동목표를 위한 협동</li> </ul>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교사추천서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및 내용</li> </ul>	자기소개서, 면접, <b>학생부, 교사추천서</b>
	학업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도</li> </ul>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교사추천서
	특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적응/행사활동의 내용</li> <li>• 참여도 및 성실성</li> </ul>	학생부, 교사추천서
	출결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석 일수</li> <li>• 결석 사유</li> </ul>	학생부, 면접, 교사추천서
	교사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질과 적성</li> <li>• 학교생활 충실도</li> <li>• 평가내용</li> </ul>	교사추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교사 총괄 의견)
	<b>교우관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류활동 및 내용</li> </ul>	자기소개서, <b>교사추천서</b>
<b>학습 환경</b>	가정환경과 자기극복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경제적 여건 고려</li> </ul>	자기소개서
	학교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특성 및 프로그램</li> </ul>	학교 프로파일
	지역의 교육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의 교육여건</li> </ul>	관련 자료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0.4.7

대학 입학전형으로서의 자기주도학습이란 무엇인가? 어떤 영역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하는가? 대학이 세운 원칙과 판별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대학은 서면화인 외에 현장과 면접은 진행하는가? 생활기록부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행간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은 어떻게 평가하고 읽어내야 할까? 단위학교의 제도적 대안은 무엇일까?

대학교육 개혁의 쌍두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필두로 한 2010학년도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금학년도 입시 입학사정관제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포스텍은 2010대입에서 1학년 1학기 때 62%의 하위권 성적을 기록하다 3학기 만에 17%까지 상승한 학생을, 수학과에서는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상위 45.6%에서 3학년 1학기에 성적을 상위 4.7%까지 끌어올린 학생을 합격시켰다.



**가. 숙명여대와 인하대의 경우**

숙명여자대학교 자기주도학습우수자 전형		
수업참여도와 학습노력	교과성적의 우수성	1,2,3학년 환산 교과등급(전교과)기준 - 1~2등급 : 3점, - 2~3등급 : 2점, - 3등급이상 : 1점
	심화 및 보충수업 이수여부, 교과별 특기사항에 대한 성취정도(교과성적과 비교검토)	[정성평가] 우수 : 3, 보통 : 2, 미흡 : 1 교과학습 발달상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동국대의 예
학습 지속성	학년별 교과성적 성취도의 특성(지속성과 성장성)	1,2,3학년 환산 교과등급(전교과)기준 - 3년간 1~2등급 유지 : 3점 - 1,2학년 평균 4등급 이하에서 3학년 2등급 이내로 성장 : 3점 - 1,2,3학년별 2~3등급 유지 : 2점 - 3년 평균등급이 3등급 미만으로 1,2학년 평균 등급에 비해 3학년 등급이 상승 : 1점 - 기타: 0점

인하대학교 수시2차 : 인하TAS-P형 인재 전형	인하TAS-P형 인재(Total Admission System - Progressive type) 전형은 2011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전형으로 국내 인문계 고등학교(특목고 포함) 졸업예정자와 해당년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형이다. 기존의 다른 전형처럼 학생부교과를 획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 교과별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 개개인의 교과 성적의 발전 정도까지도 반영하여 학업에 대한 역량을 평가한다. 2단계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비교과영역을 심도 있게 평가 받은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마디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뽑으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1단계 학생부교과 50%, 역량평가 50%를 반영해 3배수를 거른 뒤 심층면접 점수를 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인문 86명, 자연 114명 총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개 념	"3학년 성적이 2등급으로 동일한 학생 두 명을 예로 들자,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3배수를 선발하는데 50%는 교과성적, 50%는 학업향상도를 점수화해 반영한다. 예컨대 1학년 3등급, 2학년 2등급, 3학년 1등급인 학생과 반대인 학생이 함께 지원했을 때 평균 등급은 같지만 후자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A 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2등급이고, B학생은 1학년 때는 4등급, 2학년 때는 3등급, 3학년 때는 2등급을 받았다면 B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성적을 바탕으로 3배수를 뽑아놓고 심층면접을 통해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이다"	
인하TAS-P인재 전형	국내 인문계고교(특목고 포함) 2010년 졸업자 및 2011년도 졸업예정자	200
	1단계 : 학생부교과(50)+학업역량평가(50), 3배수 2단계 : 1단계성적(50)+심층면접(50)	없음

## 나. 자기주도학습의 평가 엿보기

대학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교과외활동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성적 향상도 외에 계발활동, 봉사활동, 독서, 창의체험활동, 진로상황, 종합평가 등 교과외활동에 대하여 모두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프로파일, 추천서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종에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이때는 생활기록부와 포트폴리오, 추천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교차면접을 실시하게 마련이다. 사정관의 면접은 당연히 전공관련 주도성, 학습전략, 고교 생활의 교과·교과외 활동의 주도성, 도우미 협조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면접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체크리스트

- 자기주도학습을 스스로 결심하고 진행한 동기가 분명한가.
- 본인 스스로 학습한 영역과 감동적인 학습활동 경험은 존재하는가.
- 모집단위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준비한 방법은 실재하는가.
- 학습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인이 기울인 방법은 독특하며 실용적이었는가.
- 자기주도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어려웠던 점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자기주도학습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가. 예 : khu, aju대의 예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학습법이나 피상적인 결과치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모집단위를 정복하려는 철학과 열정, 도전정신과 역경극복의 리얼리티를 드러낼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 2013대입 입학사정관제의 방향

### 가. 새로운 개념의 도입

#### 1) 입학사정관제의 적극적 개념

2011년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 대학에 발주한 「2011년도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 시행 계획에 의하면 입학사정관이 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에 참여하는 비중 강화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기계적으로 점수를 환산하거나, 자격심사 및 행정절차에만 참여하는 경우 등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 하였다.



2012대입 입학사정관제로 이름이 붙은 전형은 모든 전형은 결국 입학사정관의 면접까지 참여하여 합불 결정하는 전형으로 정의되었다.

## 2) 회피·제척 시스템

2012대입부터는 입학사정관제가 그 질적으로 내실화와 공정성·신뢰성 확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다. 대교협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의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회피·제척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그 하나다. 회피와 제척이란 이런 개념이다.

- (회피)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 등이 스스로 평가 및 관리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
- (제척)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 등을 평가 및 관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입학사정관, 교수사정관, 위촉사정관, 서류담당자 등은 모두가 이 회피제척의 대상자들이며 각서를 쓰고 공정한 심사와 전형에 임하게 된다.

## 3) 서류유사도검색시스템

또한 자기소개서 및 교사 추천서 등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활용되는 서류 내용의 표절 여부를 검색하기 위한 ‘서류표절검색시스템’ 또한 대교협 차원에서 공동 구축한다.

연세대학교에서 위촉받아 개발하는 이 시스템은 위 모형도에 의해 실현되며 문장 검색, 어절검색, 어휘 검색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 4) 평가의 공정성, 내실 확보 계획

이 밖에도 대학 및 모집단위의 인재상 명확화, 다수·다단계 평가 절차의 확보, 입학사정관 윤리성 확보, 이의신청 처리 절차 등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이 소수의 사정관이나 입시 관계자의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평가방식이 정착되도록 하고,

- 고교-대학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연계·협의 활동, 학생상담 및 고교 대상 홍보, 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한다.

-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한 수험생들의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한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 일자를 수시모집 시기보다 1개월 앞당겨 8월 1일부터 원서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2013대입은 16일부터).

-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는 고등학교 교육에 근거한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대학의 건학이념, 유형의 특징,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개인활동 이력철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서를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에듀팟 전형

2012대입에서 **경희대학교**는 창의적체험활동인재 전형으로 26명을 선발한다. 1단계(5배수)에서 창의적체험활동보고서/포트폴리오 100%로 선발한다. 2단계(100% 선발)는 서류(교과성적 미반영)60%, 면접 40%이다.

**단국대학교**는 학생부 비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1단계 70%를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창의인재전형을 마련하였다. 에듀팟의 "자기소개서 6개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나머지 6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방과후학교활동, 독서활동)은 3개 활동만 선택하여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선택한 3개 활동의 세부 활동내용은 최대 3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대 등에서 비교과 80%를 에듀팟으로 반영한다.

창의적체험활동은 그 기록을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듀팟)에 학생 스스로 기록하고 교사의 승인을 얻어 대학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형에 활용된다.



## 나. 입학사정관제 개론

### 1) 새로운 대입제도

#### 공통 전형 절차



#### 공통 전형 요소

요소	주요내용
학생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력: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li> <li>- 적성: 관련분야에 대한 소질, 학업적성, 대학 또는 학과 수학 능력 등</li> <li>- 표현력: 의사소통능력(토론/설득력) 등</li> </ul> </li> <li>• 정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 자신감, 적극성, 리더십, 책임감, 목표지향성, 자기조절능력, 도덕성, 사회성 등</li> <li>- 흥미: 지적호기심, 열정, 학습동기 등</li> <li>- 태도: 가치관, 학습태도 등</li> </ul> </li> <li>• 잠재력, 미래 성장가능성, 학과 적응 가능성 등</li> </ul>
대학 및 모집전형에의 적합성	건학이념 및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인지 여부 리더십 전형, 사회적 배려 전형 등 모집전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교육환경	가정환경, 교육여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특성 등

### 2) 6년 적자생존

교과부의 요구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의 담임 교사가 작성하는 종합평가는 ‘추천서’에 준하도록 작성하기를 요구한다. 입학사정관제가 강화되는 현하 담임교사는 물론 교과지도 교사와 CA지도교사, 상담교사까지 전교사가 생활기록부의 새로운 작성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수업 후에 진행되는 방과후학교, 수업과 수행평가의 과정과 결과, 독서

활동의 학기별 내용과 소감의 기록도 모두 기록하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폭주하기 시작했고, 전 교사는 지도한 내용을 모두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당연시 된 것이다. 이는 전교사에 의한 1년에 네 차례의 생활기록부 작성이 상례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수시가 시작되면서 대학별 다양한 스쿨프로파일의 요구, 추천서, 소개서, 학업계획서, 학교 평가서, 학교입의 평가서 등을 비롯하여 입학사정관 설문지가 계속 몰려들고 있다. 입시를 담당하며 3학년을 지도하는 교사는 수업과 추천서 창작과, 소개서 쓰기 지도, 그리고 학교평가서, 스쿨프로필 작성 등 그야말로 눈 코 뜰 새 없는 한 학기를 보내야 한다.

금년 2012대입은 9월 8일부터 수시가 시작되었지만, 2012대입 수시 입학사정관제는 8월 1일부터 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고3 7월부터 수시 원서 작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대입 입학사정관제는 8월 16일부터 접수한다.

### 3) 에듀팟과 크레존넷

입학사정관제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고교 현장과 대학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안정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때, 대학과 학생의 중간에 선 고교 현장의 지원은 전무한 채, 폭증하는 업무로 시작도 하기 전에 과부와 정신적 피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행정실에는 행정 보조요원이, 과학실에는 실험보조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정보수집과 대학별 맞춤 계획의 지도와 학생별 프로필 관리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의 관리와 정리를 위해서는 연구부장/진학부장 지휘를 받는 입학사정관 도우미가 절실하다 하겠다. 이는 입시를 총괄하는 각급 학교 현장의 갈급한 요청이고 목소리이다.

새로 시작하는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www.edupot.go.kr/)’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학생 스스로 기록하고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소개서는 물론, 학교의 행사와 발표, 특별활동과 체험, 봉사는 물론 자신의 독서와 연구활동 등을 모두 스캔하거나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올릴 수 있다. 교사는 이 내용을 수정하고 인증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컴퓨터에 앉아 즉석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체험활동을 기록하고, 행사, 독서, 봉사 등의 소감을 써 내려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



대학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으로 자신의 활동을 미리미리 보조 노트에 적어 지도교사의 확인과 검토를 받은 후에 서버에 올려야 한다. 이 작업은 분기를 나누어 연 4회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체험활동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찾기)

자기소개서 | 자율활동 |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 진로활동 | 방과후학교활동  
독서활동이관 | 포트폴리오관리 | 진로심리검사

상담 콜센터 1544-4409 (AM 09:00 ~ PM 18:00 (평일))

방문자 수: 오늘 3,524 / 전체 12,813,655

**창의적 체험활동**

미래를 준비하여 꿈을 이루어나가는 **나만의 노트**란지!

- [2011-07-28]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질의...
- [2011-07-21] 에듀넷 서비스 이용 안내
- [2011-07-06] 2011 대한민국 과학창의의 축제...
- [2011-06-20]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단원 모...

● 궁금해요~! 자주묻는 질문

Q.개편된 에듀넷과 이전 에듀넷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Q.사용자별 회원가입 후 가입승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에듀넷 활용 우수학교

전남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전남 영흥고등학교  
전남 유성여자고등학교  
충남 창원남중학교  
제주 제주중앙중학교  
서울 동일여자고등학교

부여(Viewer)프로그램 수동설치 내려받기 | 우리사이트 미리 체험해보기!

BOOK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디지털자료실지원단 | CareerN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EDUNET | 창의·인성 교육넷 | BOOK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디지털자료실지원단

**창의·인성 교육넷** (상세검색)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기부	커뮤니티	사이트 안내
<p><b>중학교</b></p> <p>군민의 날 및 대... 영역 <b>지중</b> 장소합천공설운동... (협의) 날짜 ~</p> <p><b>고등학교</b></p> <p>합천문화예 술촌을... 영역 <b>지중</b> 장소합천문화예 술촌 (협의) 날짜 ~</p>	<p>여산 향교 무료 영역 <b>지중</b> 장소익산시 여산면... (협의) 날짜이월이월 ~ 12월31일</p> <p>이병기 생가 무료 영역 <b>지중</b> 장소익산시 여산면... (협의) 날짜이월이월 ~ 12월31일</p>		<p><b>창의·인성 NEW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을 듣는 일은 세계를 듣는다 2011.12.0</li> <li>·STEAM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2011.12.0</li> <li>·공부가 즐겁다..행복한 창의적인... 2011.12.0</li> </ul> <p><b>창체활동후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봇으로 공룡을 만들어 오 사하초... 2011.12.0</li> <li>·[대구수목원 국화축제] 2011/11/13... 2011.11.1</li> <li>·LED로 만든 도깨비 방망이 사하초... 2011.11.1</li> </ul> <p><b>공지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기 창의 인성교육컨설팅트 양... 2011.11.2</li> <li>·창의체험 페스티벌 분실물 안내 2011.11.2</li> <li>·[2011년도 창의 인성 교과연구회 ... 2011.11.1</li> </ul>	

**알려드립니다** 과학 퀴즈쇼에 도전하십시오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기부    커뮤니티    사이트 안내

창의체험자원지도(CRM)    자원    프로그램    주제    창의적 체험활동

\* 각 검색 조건을 1개 이상 선택 하시면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영역 >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전체

활동 >

교내

교외

전체

검색결과 보기

1208 개    시/도    구/군    내용영역    자원유형    주제    10 개

자원	위치	대상	영역	주제	유형	프로그램
교외 자원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부산 해운대구		자율 진로		체험시설 제공	프리미엄 리더십 교실
교외 자원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부산 사상구		진로	녹색성장교육	체험시설 응용	프리미엄 꿈은 이루어진다
교외 자원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부산 사상구	유 초 중 고	자율 동아리 진로	녹색성장교육	체험시설 제공	프리미엄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교외 자원 기장문화예술훈교	부산 기장군		자율 동아리 진로		체험시설 제공	프리미엄 천연염색-쪽염색
교외 자원 대한체육회 태백선수촌	강원 태백시		자율 진로		체험시설 응용	프리미엄 자랑스러운 대한의 꿈 나무를 찾아서!

창의·인성 교육넷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기부    커뮤니티    사이트

창의체험자원지도(CRM)    자원    프로그램    주제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 자원    Home > 길의진

창의체험자원지도(CRM)

자원

프로그램

- 대상

- 영역

- 과목

- 날짜

주제

- 과학기술교육(STEAM)

- 예술교육

- 민주시민교육

STEP 1 지역선택



STEP 2 자원형태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공연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의료복지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업·산업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체 및 전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자원 검색



- 북색성당교육
- 창의적 체험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모델
- 창의적 체험활동 안내

○ 최신 업데이트 프로그램

대리 이미지 없음

주니어닥터

- 대상 : 초, 중
- 기간 : 2011.08.01~



○ 검색결과

10개 | 20개 | 50개

번호	지역	자원형태	자원명	등
34	충북 > 충주시	연구시설	충주대학교 입학사정관실 멀리보는 청소년을 위한 개발전...	
33	충북 > 충주시	행정의료복지시설	수안보 하수 종말 처리장	
32	충북 > 충주시	연구시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31	충북 > 충주시	전시공연시설	중앙중학교 과학관	
30	충북 > 충주시	체험시설	산마루 농원	
29	충북 > 충주시	행정의료복지시설	충주 단철 정수장	
28	충북 > 충주시	문화재	누암리 고분군	
27	충북 > 충주시	체험시설	충주민속공예마을	
26	충북 > 충주시	체험시설	충주목계문화역사마을(목계별신제)	
25	충북 > 충주시	자연	하늘재 역사생태관찰로	

전체

« | < 1 2 3 4 > | »»

#### 4) 내신 성적 - 학사정관제의 기본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과외활동이나 잠재력, 리더십, 인성, 봉사활동, 자기주도성 등을 부각시킨 탓에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기본이다. 다만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의 결과 뿐 아니라 학업 성취 과정, 그리고 성적의 ‘컷라인’ 개념이 아닌, ‘컷트레인지’로 재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뿐이다. 즉 3개년 간 교과 성적의 향상 추이, 지원학과와 관련있는 교과의 성적, 일정 범위의 학업 결과는 아주 의미 있게 본다. 특히 단계별 전형에서는 학생부 성적만을 반영하거나 학생부와 서류를 함께 활용하여 2단계 전형 인원을 선발한다. 따라서 첫 번째 관문에 해당되는 교과 성적을 무시할 순 없다. 그 대표적이 예가 연세대학교 진리·자유 전형 500명 선발이다. 이 전형은 응시한 학생 중 내신 성적순으로 3배수를 선발한다. 그중 우선선발로 50% 선발하고 나머지는 면접을 포함하여 선발한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등급 2등급 2개를 요구하고 있다.

### 5) 모집단위 - 열정과 잠재력

구 분	지원자 주요특징	심사자 평가부분
국문학과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 문학잡지 등단, 시집출간, 인터뷰 등 활동 다수</li> <li>국어 관련 교과 성적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2009년) 편중된 성취로 꾸준한 열정으로 보기 어려움</li> </ul>
기계공학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외 과학대회 수상 경력 다수</li> <li>교내 수상 경력 및 활동 미비</li> <li>과학, 수학 관련 교과 성적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나친 교외 활동으로 고교 생활에 충실하지 못함</li> <li>전공 관련 기초학업능력 부족</li> </ul>
사회과학부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수의 해외봉사활동</li> <li>5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사 활동 외 성취 활동 미비</li> <li>전공 관련성이 떨어지며, 뚜렷한 목표 의식 부족</li> </ul>
경영학부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상위권 교과성적 (1~2등급)</li> <li>지원 학과 관련 활동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학업능력은 뛰어나나 전공에 대한 열정 및 계획 미비</li> </ul>

※ 단순히 해외봉사활동이 많다거나, 학교 생활은 배제된 채 교외 수상만 많다거나, 최근 1년 동안 많은 경력이 쌓이는 등의 요식적인 행위는 아무런 강점이 되지 못한다.

관련영역	각종 추천 및 생기부 기록의 면접 후 평가
학업역량	<p>‘언어생활에서 어법과 문법 구사가 정확하고 바르다’고 하였는데, 면접 시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고,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며, 고교 추천에 적합하지 않다고 2명의 면접 평가자가 공통적으로 판단.</p> <p>☞ 다르다/틀리다, 역할/역할, 풍지박산/풍비박산, 독거노인/독고노인</p>
품성역량	<p>‘사회의 소외된 계층과 대화하고 같이 행동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워나간다.’고 하였으나 면접 확인 및 생활기록부 ‘봉사활동’을 보면 그와 관련된 시간은 총 4시간에 불과함</p>
담임 종합의견	<p>‘봉사정신이 매우 강하다’고 하였으나, 뒷받침할 교내외 봉사활동의 양과 질이 매우 부족함</p>
교장 종합의견	<p>‘입학할 품성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이라고 하였으나, 면접 시 매우 산만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의사소통 문제점이 발견되어 자질이 부족하다고 2명의 면접관이 공통적으로 판단.</p>
면접 평가자의 종합의견	<p>종합적으로, 추천서의 내용과 실제 지원자의 면접 언행이 매우 상이하여, 2명의 면접 평가자 모두 공통적으로 향후 해당고교의 추천서는 그 진위 여부를 지원자 면접 시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p>

### 6) 소위 정성적 평가들

사정관계가 추구하는 인성, 잠재력, 창의력 등의 평가 요소는 그 객관적 지표의 확보가 아주 어렵다. 대학마다 또는 대학교협이나 교과부 차원에서 그 평가 방식과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그리고 추천서 등에 나타난 요소와 경험과 평가에 의지하여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진위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수십대 일의 경



쟁을 보이는 현실에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차 통과 수험생을 상대로 1박 2일 집단 토론과 면접을 통하여 사회성과 리더십, 그리고 배경지식과 절제력을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 한양대에서 말하는 루브릭 평가

모든 발표자와 청취자, 그리고 대화가 진행되는 현장의 평가지표를 만들어 사정관들이 지표화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인데, 수험생은 그 지표를 가정하여 발표하기, 토론하기 등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자기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 연세대의 자랑스런 경험쓰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적 자질(성격 또는 재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지원자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는 자기소개서 내용이다. 자신의 자랑스러웠던 경험은 자기주도적 학업성취의 가슴벅찬 성취감, 스스로 배우고 감동하는 봉사활동, 전국을 제패하는 수상경력, 나만의 장기와 경쟁력 있는 특기, 예능, 저술, 리더십 등 경험에서 우러나는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 경희대에 개발한 5개 단어로 자기를 표현하기

이 평가 방식도 아주 좋은 창의성 평가지표다. 소위 다이버전스 테스트의 일환으로 어느 대학이나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과 창의성 테스트활용의 문항이 될 수 있다. 돈-벤츠-빌딩-건강-미녀라고 쓴 학생과 기부-연구-미래-사랑-가정이라고 쓴 학생은 그 가치관과 잠재적 심리가 상당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 하겠다. 물론 사정관 면접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 성균관대 - '단어'로 자기를 대변하기

'본인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단어' 와 그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라는 활동기록보고서의 자기추천 전형 선택 문항은 자못 철학적이다. 뷔퐁은 '문장(단어)은 곧 인격이다' 라고 했다.

• 2012 카이스트 추천서

※ 지원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핵심어 3개를 나열하여 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 고려대/포항공대/숙명여대/한국외대의 자서전 쓰기

이도 아주 새로운 테스트 지표라 할 수 있다. 50년 후에 400쪽 분량의 자서전을 출판할 때 100쪽쯤에 들어갈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다. 400자 에세이논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굳이 논술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글자수가 400자라는 것과 70의 나이에 100쪽이라는 공간을 계산해 넣고 써야 하기 때문이다. 자서전이 일대기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100쪽 언저리에는 고교시절과 대학시절이 언급될 수 있다. 결국 고교시절의 중요 사건과 추억, 대학생이 되어 꿈꾸는 열정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라는 이야기이다. 포항공대, 숙명여대의 20년 후 사회생활, 자신의 모습 쓰기도 유사한 발상의 테스트라 할 수 있다. 외대의 10년 후 자기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기술하기도 유사한 발상이다. 위 예는 반드시 해당 연령의 역할 모델(롤 모델)을 염두에 두고 써보고, 닦아보려 노력하고 모델의 삶을 분석하고 해당 연배에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분석해 보아야 한다. 국내인, 국외인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식이다. 안철수 박사 현 00세, 박영석 대장 현 00세, 이어령 교수 현 00세, 빌 게이츠 00세, 영화배우, 과학자, 문학가, 운동선수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 고려대의 다른 의견 이해하고 설득한 경험쓰기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 친구, 선생님, 부모님 등과 의견이 다를 때 그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였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 상황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400자 이내로 설명하기를 주문했다. 하루에도 수차례 마주치는 이견의 충돌과 대립을 얼마나 슬기롭게 설득했으며, 자신의 오해, 곡해와 경험부족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구체적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인생은 억울하게 자신이 범인이 되거나 밀고자가 되거나 또는 정보를 빼다 파는 스파이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은 진실을 알고도 적반하장의 억지를 쓰기도 하고, 나를 곤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억지를 펴기도 한다.

삶의 깊이를 묻는 문제라고나 할까,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물을 수도 있고, 지혜로운 처신과 인격적 소통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시적 정의(poetic justice)라는 말도 있듯이 삶은 교과서의 가르침대로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고3의 수 많은 인생에는 나름의 삶의 무게가 묻게 마련이다.



• **고려대의 자신의 행동 혹은 태도의 유형 쓰기**

학업 수행과 교우관계에서 스스로 평가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항을 비롯한 위 두 문항은 고교생이 집단내의 삶과 외의 삶의 진정성을 돌아보게 하고 그 무게를 평가하고자 하는 진지함이 돋보인다.

• **한국외국어대학의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 기술하기**

외국어 이외의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 400자 이내로 기술하기이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옛말도 있다. 건강하고 민첩하며 잘 발달한 신체와 운동신경은 정말 경쟁력 있는 자산이다. 말하기 -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설득하기와 발표의 기술이다. 소통능력이 중요한 이 시대의 화술과 유머 감각이 들어갈 것이다. 글쓰기는 논리력과 정확한 나를 표현하는 핵심이 되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국제적 경쟁력, 문화적 경쟁력, 신체적, 지적, 예능과 타고난 다양성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 **서강대 선·효행 또는 모범활동을 기술하기**

최근 1-2년 사이에 한 선·효행 또는 모범활동을 기술하고 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점을 기술하라는 서강대의 지표는 고무적이다. 청소년들의 의협심과 선·효행을 일깨우는 인성의 평가지표로 백 마디의 윤리 교과서보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선효행이란 모범활동이 어디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동경에서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하고 죽은 고 이수현의 의로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일본은 왜 그토록 이수현 추모에 열광하는가?

7) **창의성 - 분석 테스트 유형들**

• **그룹토론** : 이미 많은 대학이 실시하고 있다. 건국대는 1박 2일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이 그룹토론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은 독서, 논술과 토론 수업 방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실험 후 보고서 작성** : 물리학적 실험뿐 사회, 심리 등 각종 인풋과 아웃풋의 상황실험을 통하여 수험생의 분석력과 잠재력, 배경지식과 문제해결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

• **시청각 자료 제공 후 전공별 주제탐색** : 이미 아주대학에서 수시 전공테스트를 위해 실시한 방식이다.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테스트할 방식으로 동시

에 다중에게 실시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영화감상 후 창의적 제안서 작성 ; 영화라는 형식이 아니라 해도 전공분야별 문제를 제시하는 다양한 매체가 등장할 수 있다. 전공관련 지식과 관심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별거벗은 임금님... 다음의 짧은 글을 읽고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자신만의 상상력과 심미안으로 새로이 만들어 주십시오. (700자 이내)

-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라는 말을 보며 생각나는 단어 5개 이상을 나열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 2040년에 세종대왕과 외계인이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들이 할 대화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뇌에서 지각영상물을 읽어내는 시스템

■ 기존 방식  
A B C  
문자 중 하나를 선택

■ 새로운 방식  
A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화상화

저표·국배전기통신기초기술연구소

꿈·생각 그려내는 데 성공 -사람의 꿈이나 공상을 영상으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이 일본에서 개발됐다. 이 기술은 신체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하고, 나아가 꿈 속의 장면 등을 영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본 다양한 글자와 그림을 그려내는 기술이 개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신경학전문지인 '뉴런' 11일자에 게재됐다.

- 이 방에 보이는 물건을 예로 들어 그 장단점을 말하고, 개선점도 말해 보시오.
- 강의 청취 후 제시되는 내용에 대하여 리포트를 제출하십시오. OKU(5배수 내외)

### 8) 의사소통 - 최종 통과외 보루

위의 기록의 진정성과 자발성 외에 비교과로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도 않은 채 대학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의사 소통 능력’ 이다. 이는 1차를 통과한 학생들만의 진검 승부를 벌이는 도구며, 수험생의 배경지식(schema)과 인격(character)을 한꺼번에 쏟아 놓는 최후의 코스이기도 하다.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불가	매우 부진	부진	보통	우수 (상위5-10%)	매우 우수 (상위1-5%)	매우 탁월 (상위1%이내)
학교 생활 태도	수업시간의 학습태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동료학생들과의 관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사에 대한 태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내활동 참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개인적 자질	독창적 사고력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리적 사고력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도전 정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리더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책임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의사소통 능력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사회봉사활동 참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12대입 연세대학교 추천서

평가항목	평가대상			미흡	보통	우수함	매우 우수함	탁월함	평가 불가
	3학년 전체	계열 전체	학급 전체						
1) 학업성취도(전교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학업성취도(관련교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수업참여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분석능력 및 논리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창의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학습발표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	평가대상			미흡	보통	우수함	매우 우수함	탁월함	평가 불가
	3학년 전체	계열 전체	학급 전체						
1) 책임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성실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준법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자기주도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리더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협동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나눔과 배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012대교협 추천서 공통양식



자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면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데, 이때의 모든 상황은 사정관은 루브릭 평가지를 만들어 모든 상황을 체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면접의 중요 가치는 질서와 절제감이다. 흔히 사정관을 의식하며 과도한 몸동작을 쓰거나, 빈번하게 발언한다거나, 걱정적 언어 등이 드러난다면 발언의 내용과 깊이와 관계없이 탈락하게 마련이다. 토론은 상호 존중과 배려와 질서 속에서만 꽃피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래의 루브릭은 말하기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다.

순	구분	말하기의 평가 항목	점수				
1	전달력	주장이 분명하고 충분한 예를 들어 발표한다	5	4	3	2	1
2		자신의 독서와 지식으로 축적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5	4	3	2	1
3		감정적 태도 없이 절제와 균형감이 있다	5	4	3	2	1
4		목표와 진로의 진실함이 우러나고 있다	5	4	3	2	1
5		청자를 배려하며 이야기 하고 있다	5	4	3	2	1
6	유창성	과장된 제스처어나 강요된 태도가 없다	5	4	3	2	1
7		발음이 명쾌하고 서술의 맺음이 분명하다	5	4	3	2	1
8		논리적 전달로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	5	4	3	2	1
9		유머가 있고, 명언의 인용을 하고 있다	5	4	3	2	1
10	어휘력	주제에 걸맞은 고급어휘를 쓰고 있다	5	4	3	2	1
11		한자성어나 관용어의 사용이 적합하다	5	4	3	2	1
12		비속어나 은어를 무심코 사용한다	5	4	3	2	1
13		외래어는 적합하게 사용하고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5	4	3	2	1
14	질	충분히 독창적이며 압도적이다	5	4	3	2	1
15		주제에 매우 알맞은 것이다	5	4	3	2	1
16		여러 사람에게 유익하고 공감적이다	5	4	3	2	1
17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5	4	3	2	1
18	청중	호의적이며 민감하게 반응한다	5	4	3	2	1
19		다양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였다	5	4	3	2	1
20		우발적 태도에 능숙하게 대처했다	5	4	3	2	1
21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가 상호간 오고갔다	5	4	3	2	1



순	듣기의 루브릭 평가 항목	점수				
1	토론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였다. (논의 마주침, 의아, 안타까움 등의 표현)	5	4	3	2	1
2	토론 중에 주제를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고개를 끄덕, 메모와 반론)	5	4	3	2	1
3	토론의 방향성을 바로잡았다.(발언의 논거, 예시)	5	4	3	2	1
4	토론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5	4	3	2	1
5	토론 주제에 적절한 반응을 하였다.(미소, 끄덕임, 고갯짓...)	5	4	3	2	1
6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였다.	5	4	3	2	1
7	동료의 이야기를 바꿔 하였다.(동일한 뜻을 다른 표현으로)	5	4	3	2	1
8	동료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보충하였다.	5	4	3	2	1
9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5	4	3	2	1
10	칭찬의 발언에 감사를 표현한다.	5	4	3	2	1

• 행동형(Behavior-based)질문

과거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행동 속에 나타난 특성 즉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적합한 인재인지를 판단합니다. 가장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다. 전공적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질문이다. 행동형 면접 질문은 3단계 이상 심화되어 제공한다. STAR라는 단계를 따라 이루어지는 데, 이것은 Situation(상황), Task(과제), Action(행동), Result(결과)를 말한다.

행동형(Behavior-based)질문

구분	질문 예	응답 예
상황 (S)	지금까지 어떤 그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때 사진동아리를 만들어서 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과제 (T)	그 동아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였습니까?	사진촬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진실력을 심사해서 뽑았습니다.
	누가 심사를 했습니까?	지도를 맡은 000선생님과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행동 (A)	그 그룹을 어떤 방침으로 이끌었습니까?	저는 회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진 정기 콘테스트도 열었습니다.
결과 (R)	회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회원들의 호응이 좋아서 20명이던 회원이 1년 만에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열정에 관한 행동형(STAR) 질문형태

구분	질문 예	응답 예
상황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는데 방학 때마다 거기서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과제	어떤 학생들에게 무엇을 지도했습니까?	그곳에 오는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하는 선생님을 도와서, 5명의 초등학생을 맡아 산수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행동	어떻게 도왔습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하면 칭찬을 하면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결과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물론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도 기초를 다시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결코 그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 강점에 관한 행동형(STAR) 질문형

구분	질문 예	응답 예
상황	자신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을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은 도전근성입니다.
과제	어떤 것에 도전해 보았는지 예를 들어 보세요	저는 주로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OO기기 O급 자격증 등 O가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까?	저는 단지 그 분야의 공부가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다보니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OO설계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행동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했습니까?	저는 학교 공부와 병행해서 이런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결과	도전해서 실패한 적도 있습니까?	2008년도에 OO자격증은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면접 형태별 평가요소**

구분	유형	창조성	리더십	열정	흥미도	배려심	논리성	정직성
질문 응답형	지식형							
	의견형							
시뮬레 이션형	행동형							
	토의면접							
	발표면접							

※ 평가등급: A(최상), B(상), C(중), D(하) 유상준, 조경호

**7. 자기주도성과 관련한 고교현장의 접근**

**가. 학교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준비**

• **진로교육의 확실한 시행**

입학사정관제가 강조하는 것은 모집단위와 관련한 진로의 꿈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영글었는가에 있다. 대학에 입학한 후 방향하는 많은 학생들은 진로의 비전이 없이 대학을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진로, 계열 적합도, 학과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명특허를 획득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검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울교육청 진학진로정보센터	<a href="http://www.jinhak.or.kr">www.jinhak.or.kr</a>	무료	3111-2600
한국고용정보원	<a href="http://www.work.go.kr">www.work.go.kr</a>	무료	2629-70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 href="http://www.careernet.re.kr">www.careernet.re.kr</a>	무료	3485-5000
한국청소년상담원	<a href="http://www.kyci.or.kr">www.kyci.or.kr</a>	무료	730-2000
대한사립 중고등학교장회	<a href="http://www.sahack.or.kr">www.sahack.or.kr</a>	유료	739-5526
한국가이던스	<a href="http://www.guidance.co.kr">www.guidance.co.kr</a>	유료	581-5651
한국심리검사연구소	<a href="http://www.kpti.com">www.kpti.com</a>	유료	484-0990
한국행동과학연구소	<a href="http://www.kibs.re.kr">www.kibs.re.kr</a>		562-5960
직업 길라잡이	<a href="http://www.vcpkorea.com">www.vcpkorea.com</a>		
잡코리아	<a href="http://www.jobkorea.co.kr">www.jobkorea.co.kr</a>		

종류	검사명	사이트주소
적성검사	직업적성검사	career.re.kr
	홀랜드직업탐색검사 고3용 적성탐색검사	guidance.co.kr
	대학전공선택검사	edutopia.com
	진로탐색검사	
흥미검사	직업흥미검사	career.re.kr
	청소년직업흥미검사	work.go.kr
가치관검사	직업가치관검사	career.re.kr
	가치관검사	edutopia.com
성숙도검사	진로성숙도검사	career.re.kr
	진로발달검사	guidance.co.kr
	진로의식발달검사	edutopia.com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특징
진로진학정보센터	www.jinhak.or.kr	진학자료, 진학진로상담실, 진로심리검사
커리어넷	www.careernet.re.kr	진로심리검사, 학과정보, 직업정보
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work.go.kr	학과정보, 직업정보
청소년워크넷	youth.work.go.kr	진로심리검사, 진로교육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www.kcue.or.kr	대학진학정보센터, 입학사정관제, 대학평가정보, 입학상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www.kcce.or.kr	입학정보센터, 입학사정관제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학생, 교육/연구성과, 대학재정/교육비, 교육여건, 대학운영, 주요지표, 대학경쟁력
대학특성화알리미	www.hiedumap.go.kr	분야별/대학별/학과별 특성화 관련 정보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	심리상담실, 청소년/부모/전문가코너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www.edupot.go.kr	자기소개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방과후학교활동, 독서활동, 포트폴리오관리, 진로심리검사, 학부모승인
청소년자원봉사	www.dovol.net	자원봉사신청

•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정성적·주체적 작성

생활기록부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CA담당교사 및 교과지도 교사의 종합 기록



물이다. 이 기록은 피상적 언급을 지양하고 학생에 대한 애정과 신뢰와 정확한 관찰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을 갑자기 확대하기 위한 것은 자칫 소설쓰기가 된다. 평소의 메모와 계획 있는 다면평가와 활동의 평가 등이 평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가. 인적사항
- 나. 학적사항
- 다. 출결사항
- 라. 수상경력
- 마. 진로진학사항
- 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S · 1 · 2 · 3급	한국경제신문사	10.11.10~13.11.09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	최우수, 우수	매일경제신문사	10.12.22~13.12.21
KBS한국어능력검정	1,2+,2-,3+,3-,4+급	KBS한국방송공사	11.01.23~13.01.22 (09.01.23~11.01.22)
수화통역사	-	(사)한국농아인협회	11.02.20~16.02.19 (06.02.20~11.02.19)

- 사.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으로)
- 아. 특별활동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 자. 교외체험 학습상황
- 차. 교과학습 발달상황(5,000자)
- 카. 독서활동상황(2,500자)
- 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500자)

•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의 연중 기록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작을 지원하여, 입학사정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학교생활기록부(NEIS)와 연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2011학년도 신설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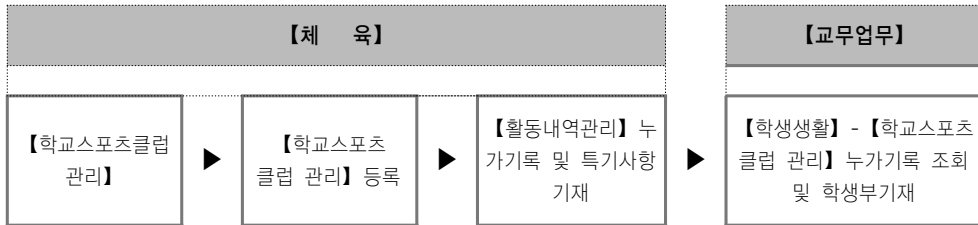
영역	성격	세부활동 내용	
자 율 활 동	학급이나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활동	적응활동	입학, 진급, 전학, 기본생활습관 형성, 축하, 친목, 사제동행, 학습, 건강, 성격, 교우 등의 상담활동 등
		자치활동	학급회, 학생회 협의활동, 모의 의회, 토론회 등
		행사활동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경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수련활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문화답사, 국토순례등
		창의적특색활동	학생·학급·학년·학교·지역특색활동 학교전통수립·계승활동 등
여 아 리 활 동	학생들의 공통의 관심사와 동일한 취미, 특기, 재능, 취미 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해 내는 집단 활동	학술활동	외국어회화, 과학탐구, 사회조사, 컴퓨터, 인터넷, 신문활용, 발명, 다문화탐구
		문화예술활동	문예, 창작, 회화, 조각, 서예, 전통예술, 현대예술, 성악, 기악,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방송 등
		스포츠활동	구기, 육상, 수영, 체조,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하이킹, 야영, 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택견, 무술 등
		실습노작활동	요리, 수예, 꽃꽂이, 조경, 사육, 재배, 설계, 목공, 로봇제작 등
		청소년단체활동	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청소년 적십자,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여 사 활 동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단체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이해, 협동意識의 고취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	교내봉사활동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
		지역사회봉사활동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활동,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자연환경보호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저탄소 생활습관화,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극복 등
진 로 활 동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대해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자기이해활동	자기 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 검사 등
		진로정보탐색활동	학업 정보 탐색, 입시정보 탐색, 학교 정보탐색, 학교 방문,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 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
		진로계획활동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
		진로체험활동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등



- **동아리활동(교육과정상)**은 학생들의 공통의 관심사와 동일한 취미, 특기, 재능, 취미 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해 내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는 집단 활동임
- 동아리활동 영역은 자기 평가, 학생상호 평가, 교사 관찰,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함
- **정규교육과정에 계획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학교스포츠클럽은 동아리활동영역에 활동한 내용 및 시간을 누가 기록하며,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은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연중 활동계획서, 대회출전 계획서 등을 사전에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결과는 대회별, 월별, 학기별 등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은 학생이 에듀팟(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 입력한 내용(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등)을 참조하여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제외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생 자율 동아리활동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학교스포츠클럽) 기재 방법 안내**

- ※ 제7차,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학년은 특별활동 개발활동란에 기재  
2011학년도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적용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누가기록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절차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적은 **【체육】 - 【학교스포츠클럽】**란에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을 기재
  -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동아리활동」란에 자동 전송되며, 정규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시간과 자동 합산 기재
  -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 적용학년은 「특별활동상황-개발활동」란에 자동전송되며, 활동시간은 개발활동 시간과 자동 합산 기재
- 정규수업시간에 하는 동아리활동과 개발활동시간과 구분하고, 2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을 구분해야 하기에 클럽별 특기사항란에 클럽명, 시간 기재 확인
-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 기재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동아리활동」란과 「특별활동상황-개발활동」란을 동일하게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동아리활동」란 기재 예시
- 학교장이 승인한 「1학기 활동 실적」부터 누가기록 입력(11.8.17~)
- 고등학교 3학년 수시 대비 실적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 입력(11.8.17~)
- 활동인정기간은 3월~12월로 하며, 그 외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 화면 예시

2011년 08월 12일 10시 08분 [?도움말](#) [로그아웃](#)

**학교스포츠클럽 관리**

등록일자  활동상태 전체 ▼ 종목 전체 ▼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전체 학교스포츠클럽을 보시려면 등록일자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스포츠클럽명	종목	클럽원			지도교사	등록일자	활동상태
			남	여	계			
<input type="checkbox"/>	걷기클럽	걷기	5	0	5	최정수	2011.06.13	활동중
<input type="checkbox"/>	걷기클럽(1학년)	걷기	1	0	1	정신없	2011.05.02	활동중
<input type="checkbox"/>	골프동아리	골프	1	1	2	김경자	2011.08.01	활동중
<input type="checkbox"/>	레포츠클럽	Extreme games	5	1	6	최정수	2011.06.07	활동중
<input type="checkbox"/>	바둑소모임	바둑	2	0	2	홍길동	2011.08.04	활동중
<input type="checkbox"/>	야구	야구	6	2	8	홍길동	2011.01.01	활동중

### 관련 내용

- 등록일자, 활동상태, 종목 등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학교스포츠클럽 목록이 화면에 나타난다.
- 신설 학교스포츠클럽을 등록하려면 {등록} 버튼을 눌러서 상세입력 팝업창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 등록된 학교스포츠클럽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할 수 있다.
- 등록된 학교스포츠클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스포츠클럽명 또는 종목명을 눌러서 해당 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화면예시**

● 활동내역관리 2011년08월12일 10시28분 [?도움말](#) [회원차서](#)

등록일자  활동상태 전체 조회

2

1	<p>● <b>학교스포츠클럽명</b> <span style="float: right;">등록 삭제</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학교스포츠클럽명</th> <th style="width: 10%;">종목</th> <th style="width: 10%;">활동구분</th> <th style="width: 10%;">대회구분</th> <th style="width: 15%;">대회명/활동명</th> <th style="width: 10%;">참가일시</th> <th style="width: 10%;">참가학생수</th> <th style="width: 10%;">활동시간</th> </tr> <tr> <td>학교스포츠클럽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경기클럽</td> <td>경기</td> <td>일반</td> <td></td> <td>운동장경기</td> <td>2011.07.26 10</td> <td>3</td> <td>2</td> </tr> <tr> <td>경기클럽(1학년)</td> <td>경기</td> <td>대회</td> <td>교내</td> <td>교내 경기 대회</td> <td>2011.08.10 01</td> <td>1</td> <td>2</td> </tr> <tr> <td>골프동아리</td> <td>경기</td> <td>대회</td> <td>대교</td> <td>시도 경기 대회</td> <td>2011.08.22 17</td> <td>3</td> <td>2</td> </tr> <tr> <td>레포츠클럽</td> <td>경기</td> <td>일반</td> <td></td> <td>거북이마라톤</td> <td>2011.08.03 17</td> <td>3</td> <td>2</td> </tr> <tr> <td>바둑소모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야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학교스포츠클럽명	종목	활동구분	대회구분	대회명/활동명	참가일시	참가학생수	활동시간	학교스포츠클럽명								경기클럽	경기	일반		운동장경기	2011.07.26 10	3	2	경기클럽(1학년)	경기	대회	교내	교내 경기 대회	2011.08.10 01	1	2	골프동아리	경기	대회	대교	시도 경기 대회	2011.08.22 17	3	2	레포츠클럽	경기	일반		거북이마라톤	2011.08.03 17	3	2	바둑소모임								야구							
학교스포츠클럽명	종목	활동구분	대회구분	대회명/활동명	참가일시	참가학생수	활동시간																																																										
학교스포츠클럽명																																																																	
경기클럽	경기	일반		운동장경기	2011.07.26 10	3	2																																																										
경기클럽(1학년)	경기	대회	교내	교내 경기 대회	2011.08.10 01	1	2																																																										
골프동아리	경기	대회	대교	시도 경기 대회	2011.08.22 17	3	2																																																										
레포츠클럽	경기	일반		거북이마라톤	2011.08.03 17	3	2																																																										
바둑소모임																																																																	
야구																																																																	

**관련 내용**

- 등록일자, 활동상태 조회 조건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학교스포츠클럽(1)이 화면에 나타난다.
- ‘학교스포츠클럽명’목록에서 활동내역을 등록할 학교스포츠클럽 이름을 누르면, 해당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 내역(2)이 오른쪽 화면에 나타난다.
- {등록} 버튼을 눌러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거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기존 등록된 활동을 삭제할 수 있다.

**추가 정보**

- 학교스포츠클럽 : 운영하는 클럽명(예. 자유로이 걷기, 아마추어 축구클럽 등)
- 종목 : 검도 / 골프 등
- 활동명/대회명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역 기록 또는 대회 참가 내역 기록 등
- 활동구분 : 일반-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역 등록 시 선택 / 대회-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내역 등록 시 선택
- 대회구분 : 활동구분을 ‘대회’로 선택 시 교내 활동인지 대교 활동인지 선택

**추가 정보**

- 활동내용은 최대 1000byte(한글 약 333자 정도)를 입력할 수 있다.
- 활동시간은 평일 2시간 이하, 휴일 4시간 이하로 입력가능하며, 시간 단위로만 입력해야 한다.(분단위 입력 불가)



•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방과후학교의 특징적 운영

수준별 방과후 학교 강좌 개설, 실질적인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 방과후 학교를 무학년제로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 부산에 있는 K고교에서는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을 통한 학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학교의 문화를 혁신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전남에 있는 Y고교에서는 스승존경-제자사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존경합니다.-사랑한다.’라는 인사말로 예절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고교별 다양한 계획의 시행

연번	내용별	운영의 개요
1	조직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학전략지원부(3학년부와 별도운영) 진학전략지원부에서는 1,2,3학년 연계 진학지도 를 피함</li> <li>• 진학정보부를 신설하고 부장교사 1명포함 교사 7명이 배치</li> <li>• 교과개발부(신설)-국영수과사에 대한 심화프로그램 및 각종 경시대회 및 교과관련 활동 중심의 교육 담당(독서와 논술지도 포함)</li> <li>• 부담임으로 구성/ 진학 홍보부</li> <li>•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모집인원 증가에 따른 TF팀운영</li> <li>• 입학사정관제 신설</li> <li>• 1,2학년 입학사정관제전담교사(팀)</li> <li>• 진학부+3학년부 통합), 대학별 전문교사 배정</li> <li>• 진학컨설턴트 1명을 공개 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학지도실 마련</li> <li>• 선진교육부 신설 : 독서 및 쓰기 활동 활성화, 이중언어 수업 전담부</li> <li>• 국제학부 및 영어 100% 강의 대학 및 외국대학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국제반을 운영.</li> </ul>
2	공간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사정관실 운영</li> <li>• 진학상담장소 확보</li> <li>• 멘토링실을 같이 설치하여 재학생들이 진학선배들과 만남</li> </ul>
3	CA, HR, 기타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R 3분 스피치</li> <li>• 인근학교와 토론대회 실시: 인문사회/과학분야</li> <li>• 물리, 천문, 영자신문반의 활성화</li> <li>• 독서토론, 정보동아리 창설</li> <li>• 대학문화탐방반</li> <li>• 학습 동아리 지도 및 교실 공간 확보와 예산지원을 고려</li> <li>• 국립 소록도병원(한센병 환자 치료시설) 정기적 봉사활동 (1년2회) - 방학을 이용한 정기적 봉사활동</li> <li>• 1,2학년 150명씩 해비타트 집짓기 봉사활동</li> <li>• 수학영재학급운영</li> <li>• 프로젝트형 원타임제 동아리 수시운영 : 기업체와 연계하여 실시계획</li> <li>• 대학탐방반</li> </ul>
4	창재활동, 학부모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재-논술, 독서지도</li> <li>• 2006년부터 독서기록장을 전교생에게 배부</li> <li>• 1학년 독서이력시스템 홈페이지 운영</li> <li>• 학부모 등불 포럼 개최 -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학부모 대상 연수를 5회 실시학</li> <li>• 학부모 진학교실 운영 - 6주간에 걸쳐 진학부장</li> <li>• 진로 컨설팅 캠프 운영-1박2일 일정으로 학교연수원</li> <li>•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량시간 과제연구(JRP) 운영_재량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그룹 및 팀별로 연구과제 수행</li> <li>• 전교생과 교사 및 학부모가 같이 <a href="http://www.edupot.go.kr">http://www.edupot.go.kr</a> 에서 가입</li> </ul>
5	교교 연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남 에듀드림(2월 26일)</li> <li>• 자연탐사회 운영(본교 학생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남녀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용마산, 난지도, 선유도, 중랑천 일대에서 탐사를 진행)</li> <li>• 4교교 연합수업, 4교교 연합 골든벨 대회</li> <li>• 남녀고 연합 체험봉사활동 해외</li> <li>• 자연탐사회 운영(본교 학생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남녀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용마산, 난지도, 선유도, 중랑천 일대에서 탐사를 진행)</li> <li>• 은혜 장애인 요양원 정기적 방문 년5회, 다녀온 후 체험수기 써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지도</li> <li>• 그루터기장애인 봉사협회와 협조하여 매년여름 장애인 수행하여 해외 봉사체험활동 전개, 다녀온 후 체험수기를 책자로 발간</li> <li>• 남녀고 합동 CEDA 토론대회</li> <li>• 남녀고와 연계 특별반 운영</li> </ul>

6	대학 연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성대학교와 연계활동 실시: 우수학생 대상 교수 멘토링(인문사회 분야와 과학 및 이공관련 분야로 이원화 실시)과 희망학생 대상대학생 멘토링)</li> <li>• 6개교 연합 '제1회 서대문구 고교 연합 글로벌 리더 육성 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li> <li>• 연대전공알리미 토론, 독서, 신문, 영상문화비평반 활동</li> <li>• 숙명여대와 MOU 체결. 대학과 연계한 특강. 심화수업 계획하고 있음</li> <li>• 대학 전공안내 설명회(연세대 학생 전공알리미) 자원봉사자들이 약 40명이 토요일에 내교</li> <li>• 명지전문대학과 산학협동시스템을 구축</li> <li>• 서울시 지원 동행 프로젝트, 연대 전공 알리미</li> <li>• 대학과 함께하는 진학정보마당(진학캠프) 운영</li> </ul>
7	포트폴리오 ·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자체 양식을 준비</li> <li>• 2009년부터 전교생에게 개인 프로파일 작성할 기록장을 배부</li> <li>• 샤프론봉사단 활동(학부모 중심 봉사단)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li> <li>•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개인포트폴리오를 계속 작성</li> <li>• 맴모포럼</li> <li>• 학부모 학생 동행 봉사단체 조직</li> <li>• 독서활동에 학부모 참가 활성화 방안</li> <li>• 전교생 포트폴리오 제작</li> <li>• 커리어 포트폴리오, 스터디 플래너 제작</li> <li>• 논술포트폴리오를 국어 시간에 작성하도록 지도</li> <li>• 학교 홈페이지에 '젊은 느티나무'라는 포트폴리오 양식과 진로 연구정보원의 생애설계 파일을 탑재하여 개인별로 활동한 후 클리어파일에 축적하게 지도함</li> <li>• 생활기록부 시범 1개반 중점 관리 후 전파</li> <li>• 특기적성 및 아자하는 학생들(학년별 120명내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작성지도</li> </ul>
8	방과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학년 보충수업을 L&amp;S(Learn and Study) 방과후활동으로 전환하여 자기주도적학습과 연계하여 운영</li> <li>• 방과후학교 과학영재교육반 실시</li> </ul>
9	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체험록 3년간 발간</li> <li>• 탐구논문작성(계성여고-수합후 책자발간)</li> <li>• 과학체험활동 자료 clear file에 수집 보관</li> <li>• 부모님 전기문 쓰기, 자서전 쓰기 및 책자 발행</li> </ul>
10	자기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주도학습(자율학습 - 평일, 토·일요일 참가자)</li> <li>• 독서왕선발대회, 독후감 쓰기대회, 영어단어경시대회, 자기소개서 쓰기대회, 교내 수학, 과학경시대회</li> <li>• 자기주도학습반</li> <li>• 진로의 날 운영</li> <li>• 자기 포트폴리오 경시대회 개최</li> <li>• 주도 학습 노트 진학 팀에서 개발(담당선생님과 함께 기록 관리)</li> <li>• '학습능력탐구반' 교사1명, 대학생1명</li> </ul>
11	진로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생 등록시 배부된 직업진로 검사 과제를 부여한 후-2박 3일간의 오리엔테이션</li> </ul>



		<p>기간을 통해 간접적 진로 체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랜드진로탐색 검사</li> <li>• 와이즈멘토 진로심리직업검사</li> <li>• 서울대 GI 검사</li> <li>• 전 학년 진로검사 횟수 증가(1년 2회)</li> <li>• 진로체험의 날 행사(직업인 20명 초청 특강) 참가후 활동내용 생기부 기록 예정, 직업 part 별로 진로체험 우수상 선발 시상</li> </ul>
--	--	---

**• 스쿨프로파일 - 학교 소개 자료-를 충실하고 독창적으로 제작한다.**

· 학교 교육 목표/ · 학교 교육 이상/ · 중장기 발전 계획/ · 학교 경영 방안 · 학교 연혁 및 현황 / · 일반 현황 / · 연간 학사일정표/ · 교육 과정 단위 배당표 / · 수준별 교육 과정 운영 계획 / · 교과별 평가 계획/ · 비교과 교육과정(특별활동 등) 운영 계획/ · 우수학교 선정 공적서/ · 논술 토론 지도를 위한 교육 활동/ · 독서 지도/ · 실천 중심의 예절 지도/ · 학습부진아 학생 지도/ · 교육 과정활성화/ · 과학 교육의 내실화/ · 맞춤형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계발 활동/ · 교내외 수상 실적 (2009년 기준)/ · 각 교과목 석차 등급별 분포/ · 모의고사 성적 분포/ · 대학급별 진학자 수 (2009학년도 기준)/ · 각종 언론의 보도/ · 졸업생과 동창회의 현황/ · 장학금현황 / · 기초생활수급자 대비현황/ · 중점학교 운영/ · 기타 등등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한다.**

입학사정관제는 하루 아침의 단발성 계획으로 대비할 수가 없다. 연구부, 진학부외에 새로운 부서로 입학사정관부를 제안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입학사정관 연구팀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사들이 모임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며, 관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부서는 연구부+진학부+특활부의 종합적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 나. 포트폴리오 제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경우 책자로 제본하여 만드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한양대학의 경우 단출하면서도 학생이 제출하기 쉬운 방식을 안내하고 있어 소개한다. 대학별 제출 건 수는 달라도 아래와 같은 방식이면 무난하게 접수하고 평가할 수 있다. 짐계로 상단을 집어도 좋고 철끈으로 묶어서 제출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 매 건 상단에는 모집집단, 수험번호,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두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p>▶ <b>작성요령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 사이즈로 작성한다.</li> <li>- 중요한 자료 10건만 제출한다.</li> <li>- 건별로 스테이플러로 묶어 작성한다.(사진 위 왼쪽)</li> <li>-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대조필을 하여 제출한다.</li> </ul>
	<p>▶ <b>스테이플러 1건이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활동 내용에 대한 내용을 취합(ex. 교내영 어경시대회 활동내역+상장+소감문 등=1건)</li> </ul>
	<p>▶ <b>제출 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자료를 짐계로 집어 (사진 중앙) 대봉투에 넣어 제출한다.</li> <li>- 대봉투에는 주소, 연락처, 지원학과, 성명, 수험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밀봉하여 제출한다.</li> </ul>

### 대학측이 말하는 좋은 포트폴리오 =

- 학생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자료의 원본 또는 편집본 가능
- 자료를 편집한 경우, 편집한 자료에도 원본대조필 확인
- 정해진 규격에 맞는 자료



**대학측이 말하는 나쁜 포트폴리오 =**

- 본인이 활동/작성하지 않은 내용
- 학생의 강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ex. 수년 동안 작성해 온 연습장, 일기장의 단순 나열)
- 고교 3년 이전 or 이후의 기록
- 디지털 파일(동영상, 음악 등)
- 실물자료(발명품, 창작물 등)
- 지나치게 많은 양의 서류 포트폴리오의 평가

**대학측이 말하는 포트폴리오의 평가 안내**

-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활동사항, 제출서류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증빙서류에 의해 가/감점되지 않습니다.

**8. 대입 수시 입학사정관제 실제**

**가. 동국대 최종 합격생의 경우(문과)**

수험생	지원대학	입학사정관전형	모집단위	최종합격	
L00	동국대	학교장 추천	법대(입학사정관)	최종합격	
전과목 학년별 성취도 평균변화	<b>환산점수</b>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2.45	2.08	2.48	2.34
	표준점수합	63.57	64.12	63.3	63.66
계열 적합성 파악 (국영수사)	<b>환산점수</b>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2.29	1.78	2.18	2.08
	표준점수합	63.74	65.53	64.78	64.68
국영수 주요과목	<b>환산점수</b>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2.43	1.72	2.03	2.06
	표준점수합	63.17	65.7	64.86	64.58
모집단위 관련해석 (사회교과)	<b>환산점수</b>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9	2	2.57	2.16
	표준점수합	65.32	64.87	64.58	64.92



2011대입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서류심사	면접	전공수학 능력	선발 비율(배수) / 비고
Do Dream 특성화	I	1단계		100%				• 면접대상자 : 3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40%		60%		
	II	1단계	70%	30%				• 면접대상자 : 3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40%	60%			
학교장추천		1단계	80%	20%				• 면접대상자 : 5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80%	20%			
리더십		1단계	60%	40%				• 면접대상자 : 3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60%	40%			
사회기여자 자녀		1단계	100%					• 면접대상자 : 5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80%	20%			

#### 나. 동국대 최종 합격생의 경우(이과)

수험생	지원대학	입학사정관전형	모집단위	최종합격자																				
A00	동국대	리더십	컴퓨터공학과 (입학사정관)	최종합격																				
전과목 학년별 성취도 평균변화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환산점수</th> </tr> <tr> <th>구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2.93</td> <td>3.87</td> <td>3.95</td> <td>3.58</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1.4</td> <td>56.59</td> <td>54.83</td> <td>57.61</td> </tr> </tbody> </table>				환산점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2.93	3.87	3.95	3.58	표준점수합	61.4	56.59	54.83	57.61
환산점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2.93	3.87	3.95	3.58																				
표준점수합	61.4	56.59	54.83	57.61																				
계열 적합성 파악(국영수과)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환산점수</th> </tr> <tr> <th>구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3.12</td> <td>3.87</td> <td>3.78</td> <td>3.59</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0.82</td> <td>56.94</td> <td>55.98</td> <td>57.91</td> </tr> </tbody> </table>				환산점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3.12	3.87	3.78	3.59	표준점수합	60.82	56.94	55.98	57.91
환산점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3.12	3.87	3.78	3.59																				
표준점수합	60.82	56.94	55.98	57.91																				
국영수 주요과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환산점수</th> </tr> <tr> <th>구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3.14</td> <td>3.76</td> <td>3.32</td> <td>3.41</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0.64</td> <td>58.4</td> <td>58.91</td> <td>59.32</td> </tr> </tbody> </table>				환산점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3.14	3.76	3.32	3.41	표준점수합	60.64	58.4	58.91	59.32
환산점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3.14	3.76	3.32	3.41																				
표준점수합	60.64	58.4	58.91	59.32																				
모집단위 관련해석 (과학교과)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환산점수</th> </tr> <tr> <th>구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3</td> <td>4.13</td> <td>4.75</td> <td>3.96</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1.69</td> <td>53.46</td> <td>49.76</td> <td>54.97</td> </tr> </tbody> </table>				환산점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3	4.13	4.75	3.96	표준점수합	61.69	53.46	49.76	54.97
환산점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3	4.13	4.75	3.96																				
표준점수합	61.69	53.46	49.76	54.97																				



**다. 성균관대 최종 합격생의 경우(문과)**

수험생	지원대학	입학사정관전형	모집단위	최종합격															
H00	성균관대학교	리더십 (입학사정관)	사회과학대	최종합격															
전과목 학년별 성취도 평균변화	<b>환산점수</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1.5</td> <td>1.18</td> <td>1.4</td> <td>1.36</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7.51</td> <td>68.73</td> <td>69.62</td> <td>68.62</td> </tr> </tbody> </table>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5	1.18	1.4	1.36	표준점수합	67.51	68.73	69.62	68.62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5	1.18	1.4	1.36														
표준점수합	67.51	68.73	69.62	68.62															
<b>환산점수</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1.42</td> <td>1.22</td> <td>1.36</td> <td>1.33</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7.61</td> <td>68.54</td> <td>69.81</td> <td>68.65</td> </tr> </tbody> </table>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42	1.22	1.36	1.33	표준점수합	67.61	68.54	69.81	68.65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42	1.22	1.36	1.33															
표준점수합	67.61	68.54	69.81	68.65															
계열 적합성 파악 (국영수사)	<b>환산점수</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1.42</td> <td>1.22</td> <td>1.36</td> <td>1.33</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7.61</td> <td>68.54</td> <td>69.81</td> <td>68.65</td> </tr> </tbody> </table>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42	1.22	1.36	1.33	표준점수합	67.61	68.54	69.81	68.65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42	1.22	1.36	1.33														
표준점수합	67.61	68.54	69.81	68.65															
<b>환산점수</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1.64</td> <td>1.06</td> <td>1.36</td> <td>1.35</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5.22</td> <td>68.09</td> <td>69.14</td> <td>67.48</td> </tr> </tbody> </table>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64	1.06	1.36	1.35	표준점수합	65.22	68.09	69.14	67.48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64	1.06	1.36	1.35															
표준점수합	65.22	68.09	69.14	67.48															
국영수 주요과목	<b>환산점수</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1.64</td> <td>1.06</td> <td>1.36</td> <td>1.35</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5.22</td> <td>68.09</td> <td>69.14</td> <td>67.48</td> </tr> </tbody> </table>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64	1.06	1.36	1.35	표준점수합	65.22	68.09	69.14	67.48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64	1.06	1.36	1.35														
표준점수합	65.22	68.09	69.14	67.48															
<b>환산점수</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1</td> <td>1.5</td> <td>1.21</td> <td>1.24</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8.13</td> <td>67.2</td> <td>70.51</td> <td>68.61</td> </tr> </tbody> </table>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	1.5	1.21	1.24	표준점수합	68.13	67.2	70.51	68.61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	1.5	1.21	1.24															
표준점수합	68.13	67.2	70.51	68.61															
모집단위 관련해석 (사회교과)	<b>환산점수</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1</td> <td>1.5</td> <td>1.21</td> <td>1.24</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8.13</td> <td>67.2</td> <td>70.51</td> <td>68.61</td> </tr> </tbody> </table>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	1.5	1.21	1.24	표준점수합	68.13	67.2	70.51	68.61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	1.5	1.21	1.24														
표준점수합	68.13	67.2	70.51	68.61															
<b>환산점수</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학년</th> <th>2학년</th> <th>3학년</th> <th>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석차등급합</td> <td>1</td> <td>1.5</td> <td>1.21</td> <td>1.24</td> </tr> <tr> <td>표준점수합</td> <td>68.13</td> <td>67.2</td> <td>70.51</td> <td>68.61</td> </tr> </tbody> </table>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	1.5	1.21	1.24	표준점수합	68.13	67.2	70.51	68.61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	1.5	1.21	1.24															
표준점수합	68.13	67.2	70.51	68.61															

2011대입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수능 최저 학력기준		
		학생부		사정관 평가	면접	사고력 평가	선발 비율(배수) / 비교			
		교과	비교과							
1차	인문, 자연	일괄 합산	70%		30%				적용	
	학교생활 우수자(372명)	사범, 건축, 영상, 스포츠과학	1단 계	5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선발 : 50% 내외</li> <li>• 면접 대상 : 3배수 내외</li> </ul>	적용
			2단 계	1단계 성적 70%		30%				
	리더십특기자 (100명)	1단계		4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대상: 2배수 내외</li> </ul>	없음
2단계			1단계 성적 70%		30%					

라. 성균관대 최종 합격생의 경우(이과)

수험생	지원대학	입학사정관전형	모집단위	최종합격자	
K00	성균관대학교	리더십	전기전자공학부	최종합격	
전과목 학년별 성취도 평균변화	<b>환 산 점 수</b>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67	1,68	2,73	2,03
	표준점수합	66,73	66,6	63,75	65,69
계열 적합성 파악(국영수과)	<b>환 산 점 수</b>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43	1,66	2,65	1,91
	표준점수합	66,02	65,93	63,69	65,21
국영수 주요과목	<b>환 산 점 수</b>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43	1,66	2,65	1,91
	표준점수합	66,02	65,93	63,69	65,21
모집단위 관련해석 (수학/과학교과)	<b>환 산 점 수</b>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환산점수
	석차등급합	1,29	1,13	2,37	1,6
	표준점수합	70,23	68,88	66,4	68,5

마. 교과외영역의 활동과 평가

1) 교과외영역의 새로운 의미

학교생활기록부는 담임교사, 상담 교사, 교과 지도 교사 및 학생의 특별활동 담당교사가 입체적으로 작성하는 학생의 다면적 보고서이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성실함과 근면함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고, 가장 학생의 가까운 곳에서 학생과 소통한다. 담임교사의 결정적 기록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이다. 행동발달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행동발달’ 을 기록하면서 추천서에 버금가는 기록을 해야 한다. 진로지도사항 ‘특기사항’ 란에는 흥미·적성·심리검사 결



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교과 지도 교사는 학생의 미래 직업과 진로에 대한 역할 모델이 되면서 동시에 학생을 평가하고 리드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상담 교사는 학생의 고난 극복의 파수꾼이다. 그는 미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안내까지 해주고 상담한다. 특별활동 담당교사는 학생과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는 교사들이다. 함께 꿈을 성장시키고, 전문적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곁에서 바라보는 교사다. 이들은 모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학교생활기록부는 이제 입학사정관제에서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 2) 교과외활동의 입학사정관 평가지표

항목	수시		정시
인적사항	※ “인적사항” 항목에 대하여는 전체가 아닌 일정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만 제공 ※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제외		모든 자료
학적사항	모든 자료		모든 자료
출결상황	모든 자료		모든 자료
수상경력	모든 자료		모든 자료
자격증및인증취득상황	모든 자료		모든 자료
창의적재량활동	1, 2학년 자료		모든 자료
특별활동상황	모든 자료		모든 자료
봉사활동실적	모든 자료		모든 자료
교외체험학습상황	모든 자료		모든 자료
교과학습발달상황	1, 2학년 및 3학년 1학기 자료		모든 자료
과년도성적	1, 2학년 및 3학년 1학기 자료		모든 자료
세부능력및특기사항	모든 자료		모든 자료
행동특성및종합의견	1, 2학년	1. 사정관 평가의 핵심내용 2. 학교의 다양한 행사준비 3. 1학년 담임의 정보 안내 4. 1,2학년 담임의 관찰과 기록 5. 3학년 담임의 상담과 면접	모든 자료
독서활동상황	1, 2학년		모든 자료
진로지도상황	1, 2학년		모든 자료

## 9. 2013대입과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가천대학교	전형유형	모집 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학생부	대학별고사	서류	
1차	입학사정관제	교육기회균형	해당모집단위 (글로벌/메디컬)	49	1단계		100	
				100	2단계	면접40	60	
		자기추천자	해당모집단위 (글로벌)	100	1단계		100	
				27	2단계	면접40	60	
		사회공헌자	해당모집단위 (글로벌)	27	1단계		100	
					2단계	면접40	60	
		가천프린티어	해당모집단위 (글로벌/메디컬)	130	1단계		100	
					2단계	면접50	50	
2차	입학사정관제	가천미래인재	바이오나노학과 (글로벌)	20	1단계		100	수외과(1)
				2단계	면접30	70	평균 3등급	
		소프트웨어설계·경영학과(글로벌)	16	1단계		100	수외과(1)	
			2단계	면접30	70	평균 3등급		
가톨릭대학교	전형유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1차	입학사정관제	잠재능력 우수자	해당모집단위	292	1단계		100	
				2단계	인터뷰토론 50	50		
2차	입학사정관제	교육기회균등전형	해당모집단위	17	1단계		100	
				2단계	면접구술50	50		
		특수교육대상자	해당모집단위	10	1단계		100	
				2단계	면접구술50	50		
건국대학교	전형유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1차	입학사정관제	KU기회균등-유형1 (사회적배려대상자)	해당모집단위	40	1단계(3~5배)	100		없음
				2단계	면접50	서류50		
		KU기회균등-유형2 (기초생활/차상위수급자)	해당모집단위	60	1단계	100		
				2단계(3~5배)	면접50	서류50		
		KU자기추천	해당모집단위	206	1단계		서류100	
					2단계	면접100		
		KU전공적합전형	해당모집단위	140	1단계(6배)	100		
					2단계(3배)		서류100	
3단계	면접50				서류50			
1) 수시모집에서 정원의 57.2%인 1,915명 선발, 정시 1,435명 선발 2) 입학사정관제로 전체 모집정원의 19.7%인 659명 선발 3) 수시1차 모집 입학사정관전형 → 기존 7개에서 3가지로 축소 - KU자기추천전형과 KU전공적합전형, KU기회균등전형 4) KU자기추천전형: 91명 늘어난 206명 선발								
경기대학교	전형유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1차	입학사정관제	KGU감성인재	인문, 자연	184	1단계	50	서류50	
				2단계	25	면접50	서류25	



		사회통합	인문, 자연	27	1단계	50	면접50	서류50
					2단계	25		서류25
		디자인비즈	디자인계열	40	1단계	50	면접100	서류50
					2단계	25		서류25
		기회균형선발	인문, 자연	14	1단계	50	면접50	서류50
					2단계	25		서류25
2차	입학사정관제	자기추천자	인문, 자연	50	1단계		기타100	
					2단계		1단계50	

경희대학교	전형유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기타	
1차	네오르네상스	전 모집단위	미정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서류60, 면접40	
	사회공헌, 역경극복 대상자	전 모집단위	미정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서류60, 면접40	
	학교생활총실자	전 모집단위	미정	1단계	100		
				2단계		서류평가	
	창의적 체험 활동	전 모집단위	미정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서류60, 면접40	
	고교교육과정연계	전 모집단위	미정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서류60, 면접40	
	학교장, 교사 추천자	서울캠 전 모집단위	미정	1단계	100		
				2단계		서류평가	

1.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작년보다 224명 늘어난 1,351명(27%) 선발)
2. 교과우수자전형 우선선발 폐지 → 입학사정관전형(학교생활총실자전형)으로 변경
3. 2013학년도에 신설되는 학교생활총실자전형은 '학생부', '서류'중심의 전형으로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서류 100%로 선발
4. 국제캠퍼스에서는 논술전형이었던 '경인지역학생전형'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전형(창의적체험활동전형 및 학교생활총실자전형)을 신설

고려대학교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기타		
수시	학교장추천전형	전 모집단위	670	1단계		서류100	2개 2등급
				2단계		서류60, 면접40	
	자기추천전형	전 모집단위	120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60, 면접40	
	CEO추천(특성화 고졸 재직자)		30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60, 면접40	
정시	기회균등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137	1단계 : 수능(70)+서류(30) 2단계 : 1단계(60)+면접(40)	4개 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 단, 경영대학, 정경대학, 의과대학, 자유전공학부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특성화 고교졸업자	30		2개 영역 2등급 이내		

		특수교육대상자	37					
국민대학교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학생부	기타		
1차	기회균형	전 모집단위	58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50, 면접50		
	국가(사회) 기여자	전 모집단위	14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50, 면접50		
국민프린티어	해당학과	156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40, 면접60			
단국대학교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기타		
1차	IT, CT인재	해당학과	104	1단계	30	서류70		
				2단계	9	서류21, 면접70		
	창의적인재	전 모집단위	171	1단계	30	서류70		
				2단계	9	서류21, 면접70		
사회적배려대상자	전 모집단위	30	일괄		서류100			
대진대학교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기타		
1차	창업발명인재	해당학과	10	1단계		서류100		
				일반		서류40, 면접60		
	자기추천자	전모집단위	120	1단계	40	서류60		
				2단계	16	서류24, 면접60		
밝은사회	전모집단위	50	1단계	40	서류60			
			2단계	16	서류24, 면접60			
덕성여자대학교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대학별고사	서류	
1차	입학사정관제	지역파트너십	해당모집단위	12	1단계		서류100	없음
					2단계		면접60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해당모집단위	10	1단계		서류100		
				2단계		면접60	서류40	
동국대학교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학생부	대학별고사	기타		
1차	입학사정관제	불교계 추천	일반	108	1단계(3배)	70	서류30	없음
					2단계	42	면접40	
		Do Dream 특성화	153	1단계(3배)		서류100		
				2단계		전공수학능력평가60	1단계40	
		DU Active 인재	193	1단계(3배)	70	서류30		
2단계	42	면접40	서류18					



		사회기여 및 배려자전형	58	1단계(3배) 2단계	100	면접60	서류40			
		기회균형선발	65	1단계(3배) 2단계	100	면접60	서류40			
<b>동덕여자대학교</b>		모집 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1차	입학사정 관제	동덕창의 리더전형	인문, 자연계	1단계	40		서류60	없음		
		동덕미래 창의디자이너	디자인 학부	2단계	20	면접50	서류30			
				24	1단계	40			서류60	
					2단계	8	면접80		서류12	
				3단계	7.2	면접82	서류10.8			
<b>명지대학교</b>		모집단 위	모집인 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 준		
1차	입학사정 관제	옵티머스 리더	인문, 사회, 자연, 전공자유학부	232	1단계(3배)	100				
					2단계	50	면접50			
2차	입학사정 관제	기회균형 (정원외)	해당모 집단위	30	1단계(3배)	30		서류70		
					2단계	50	면접50			
<b>삼육대학교</b>		모집단 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수시	특기자 전형	SU秀 Leader	전 계열	91	일괄		면접20	입상실적80	없음	
							면접20			
	SDA 추천	전 계열	121	일괄		60	면접20	서류20		
					미술		20	실기60		서류20
						음악		20		실기60
	기회균등	전 계열	21	일괄		80	면접20	일반학과: 연수외 1개 4등급 간호학과: 연수의 2개 평균 3등급 물리치료학과: 2개 4등급 기초의약학과: 2개 평균 2등급		
<b>상명대학교</b>		모집단 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1차	입학 사정 관제	전공역량 우수자전형	인문,자 연	100	1단계(3배)			서류100	없음	
					2단계		면접70	서류30		
		글로벌 리더전형	인문,자 연	100	1단계(3배)			서류100		
					2단계		면접70	서류30		

<b>서강대학교</b>		모집단위	모집인 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	대학별고사	서류	
입학사 정관제	학교생활 우수자(자격1)	인문, 자연	165	1단계(2~4배)	75		서류25	없음
				2단계	60	면접20	서류20	
	학교생활우수자	인문, 자연	84	일괄			서류100	



		(자격2)								
		자기추천전형	인문,자연	45	1단계			서류100		
		가톨릭지도자추천		40	1단계(2~4배)		면접40	서류60		
					2단계		면접40	서류6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학생부우수자	538	일괄	100			적용함		
		전공적성우수자	37	일괄	20	적성80				
1차		SEOUL TECH 장학생	46	1단계(5배)			서류100	없음		
		특기자	88	2단계		면접100				
		잠재능력우수자		1단계(5배)		서류100				
		차세대리더십	29	2단계		면접100				
		2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100					
서울대학교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지역균형선발 전 계열	752	일괄		서류와 면접100	2영역 2등급			
수시	일반전형	전 계열 (예체능제외)	1,496	1단계(1.5~3배수)	서류100		인문, 의예: 2영역 2등급			
				2단계		1단계성적, 면접·구술, 적인성, 실기	자연, 자유전공학부: 적용하지 않음			
	미술대학 (실기포함 전형)	73	1단계(1.5~5배수)		기초소양실기100	동양화, 조소: 1영역 3등급				
			2단계		1단계성적, 전공적성실기, 면접, 구술 등 종합평가100	서양화, 디자인학부: 3영역 3등급				
	디자인 (실기미포함 전형)	29	1단계(1.5~3배수)	서류100			3영역 3등급			
			2단계		면접 및 구술100					
음악대학	145	1단계(1.5~5배수)		실기100		적용하지 않음				
		2단계		면접, 구술, 학업능력, 2차실기 등 종합평가100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1	전 계열	208	일괄 (미술, 음악은 단계별)		서류100	인문, 자연: 2개 2등급 예체능은 모집단위별로 다름				
서울시립대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학생부	대학별	기타			
					교과	비교과	교사			
1차	UOS 포텐셜	UOS포텐셜	전 계열	100	1단계(3배)			서류100		
					2단계			면접100		
		UOS학교생활 우수자	전 계열	285	1단계(5배)	100				
				69	2단계	70			서류30	
	UOS	전 계열	69	1단계(5배)	100					



		기회균등		2단계	70		서류30			
		글로벌리더 특별전형	전 계열	43	1단계(3배)	40	서류60			
					2단계		면접70	1단계30		
		서울핵심인재	전 계열	275	학생부우선(30%)	90	10	학생부우선		
					일괄	90	10	인문-언수와 등급합 4 자연-언수와 등급합 6		
서울여자대학교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		
					학생부	대학별고사	기타			
1차	바롬플러스형인재 (리더십, 예교, 자기추천)	전 모집단위	277	1단계(3배)			서류100	학교생활우수자II : (인문사회계열)-외 국어 포함, 2개 3등급 (자연계열)-수리 포함 2개 3등급(수리)가'형, 과탐은 4등급 가능)		
	기회균등전형_정원의 (사회기여자전형)	해당모집단위	27 (27)	1단계(3배)	40		서류20			
	기독교지도자	기독교학과	30	1단계(3배)			서류100			
	바롬글로벌 (GLOCAL)전형	해당모집단위	46	1단계(3배)	33		실적67			
				2단계	20	심층면접40	실적40			
	학교생활우수자	전 모집단위	196	1단계(3배)			서류100			
	실기우수자전형	해당모집단위	62	일괄			실기100			
성균관대학교			모집 인원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 학력기준	
					학생부	적성	논술	면접	서류	
수시	성균인재 트랙 I	전모집단위	678	1단계(10배수)		100				미적용
				2단계					100	
	성균인재 트랙 II	전모집단위	370	1단계	100					적용
				2단계					100	
	스포츠과학			1단계	100					
				2단계				30	70	
성신여자대학교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대학별고사	서류			
1차	성신리더십우수자	해당모집단위	130	1단계			100	없음		
				2단계		면접 60	40			
	성신자기 주도형인재	해당모집단위	102	1단계			100			
				2단계		면접 40	60			
	지역인재	해당모집단위	105	1단계			100			
				2단계		면접 60	40			
	성신특성화인재 (미디어/생애)	해당모집단위	68	1단계			100			
				2단계		면접 60	40			
	성신특성화인재 (융합예술)	해당모집단위	20	1단계			100			
				2단계		면접100				
성신하모니	해당모집단위	0	1단계			100				
			2단계		면접 40	60				
성신글로벌인재1	해당모집단위	0	1단계			기타100				
			2단계		면접 30	1단계 70				

	실기우수자	미술, 음악대학	118	일괄		실기 100			
		융합문화예술대학	42	1단계		실기 100			
				2단계		면접20+실기80			
<b>세종대학교</b>		<b>모집 단위</b>	<b>모집인원 (명)</b>	<b>구분</b>	<b>전형요소별 반영비율(%)</b>			<b>최저학력 기준</b>	
					<b>학생부</b>	<b>대학별고사</b>	<b>기타</b>		
					<b>교과</b>	<b>비교과</b>			
1차	입학 사정 관제	성장잠재력우수자	140	1단계(3배)	100			없음	
				2단계		면접 50	서류 50		
		창의적 리더십	110	1단계(3배)					서류 100
				2단계		면접 50	서류 50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10	1단계(3배)	100						
		2단계	60			서류 40			
<b>숙명여자대학교</b>		<b>모집단위</b>	<b>모집 인원(명)</b>	<b>구분</b>	<b>전형요소별 반영비율(%)</b>			<b>최저학력기준</b>	
					<b>학생부</b>	<b>면접</b>	<b>서류</b>		
1차		자기주도학습우수	213	1단계(2배)			100	없음	
				2단계		60	40		
		글로벌여성인재	25	1단계(3배)			100		
				2단계		60	40		
		지역핵심인재	230	1단계			100		
				2단계		60	40		
		자기추천자	77	1단계(3배)			100		
				2단계		60	40		
학교장추천리더십	100	1단계(3배)	60		40				
		2단계		60	1단계40				
외국어우수자	92	1단계(5배)			20+성적80				
		2단계		60	1단계40				
사회기여및배려자	인문/자연	23	일괄합산	100		인문:2개 등급 합 5 자연:2개 등급 합 5			
<b>승실대학교</b>		<b>모집단위</b>	<b>모집 인원(명)</b>	<b>구분</b>	<b>전형요소별 반영비율(%)</b>			<b>최저학력 기준</b>	
					<b>학생부</b>	<b>대학별고사</b>	<b>서류</b>		
					<b>교과</b>	<b>비교과</b>			
1차		SSU 미래인재	인문	66	1단계	100			
			자연	26	2단계			100	
			공학	95	3단계		면접40	60	
		SSU 참사랑인재 (대안학교/사회기여자및 배려대상)	화학/인문/ 공학	45	1단계			100	
					2단계		면접40	60	
		특기자(IT)	자연 공학	9 43	일괄			면접40	실적60
특기자(중국어/영어/문학)	인문					142			
<b>아주대학교</b>		<b>모집 인원(명)</b>	<b>구분</b>	<b>전형요소별 반영비율(%)</b>			<b>최저학력기준</b>		
					<b>학생부</b>	<b>대학별고사</b>	<b>기타</b>		
1차	입학 사정	학생부우수자전형	200	일괄	100		우선: 없음 일반: (인문)2개 2등급(자연)1개 2등급, 1개 3등급		
		아주 ACE 전형	240	1단계		서류100	없음		
				2단계	면접80	서류20			



관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0	1단계		면접80		서류100		
			2단계		서류20				
연세대학교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대학별고사	기타		
수시	연세입학 (정원내)		0	일괄				100	
	사정관제 (정원외)		0	일괄	50			서류50	
	특기자	글로벌융합공학부	20	1단계				서류100	
				2단계		(면접100)		(면접100)	
	특기자(과학)	일부	300	1단계				서류100	
				2단계		면접40		서류60	
	특기자(융합)	언더우드, 아시아, 테크노아트	222	1단계				서류100	
				2단계		면접40		서류60	
특기자(체능)	스포츠투저, 체교	47	1단계				서류100		
			2단계		(면접100)		서류(100)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미지정	1단계				서류100	
				2단계		면접40		서류60	
이화여자대학교		모집단위	모집인원 (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대학별고사	기타		
수시	일반전형 (학업)	인문, 자연 스크랜튼학부		선발단계 있음*	100			※ 국제학부와 체육과학부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일반 전형의 경우 상위 일정 비율에 대해 수능최저학력 기 준을 면제함.	
	특별전형	조형예술대학	85	1단계	100				
				2단계	30	실기70			
	입학사정관 전형	인문, 자연, 체육	36	1단계			서류100		
				2단계		면접20	서류80		
		인문, 자연	840	1단계			서류100		
2단계				면접20	서류80				
1) 수시 인원 460명 선발(수시모집선발 비율63.5%→58.3%) 2) 전형유형 간소화 - 일반전형(논술트랙·학업트랙), 입학사정관전형(지역인재트랙·자기계발트랙·사회기여자트랙), 특별전형(수학·과학트랙·외국어트랙·국제학트랙, 예·체능트랙) 3) 일반전형: 총 820명, 입학사정관전형은 840명, 특별전형은 121명 선발 4) 입학사정관전형의 전형요소 반영비율 서류80%, 면접 20%로 단순화									
인천대학교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대학별고사			
1차	교과성적 우수자	전 계열	505	1단계(4배)	100				
				2단계*	60	면접40			
	사회적배려 대상자	38	1단계(4배)	100					
			2단계	60	면접40				
	특목고출신자	일부	63	1단계(4배)	100				
			2단계	60	면접40**				
2차	특기자(어학, 컴퓨터, 체육)	체육계열 체육제외	24 30	일괄 일괄	40 40	실적100 실적60			
	일반학생	인문 사회 자연 공과	203	1단계(4배)	100				
	2단계			60	면접40				
	지역우수인재 (수도권)		439	1단계(4배)	100				
				2단계	60	면접40	없음		
								인문:연수외사(1) 2개 3등급(사범대 2등급), 자연:연수외과(1) 2개 3등급(사범대 2등급), 소비자아동,	





저소득층/특성화고	일부모집단위	136/43	2단계	서류 및 면접100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 및 면접100									
장애학생	일부모집단위	10	서류 및 면접100										
재직자		139											
<p>1.[서울]전체: 수시 73%, 정시 27%- 인문계: 수시 80%, 정시 20%, 자연계: 수시 68%, 정시 32%</p> <p>2.[안성]전체: 수시 61%, 정시 39%- 인문계: 수시 91%, 정시9%, 자연계: 수시100%, 정시 0%</p> <p>3.수시모집 3개 전형으로 통합(입학사정관, 수시통합, 특기자)</p> <p>* 수시통합 전형(수험생은 1회 지원, 대학에서 다양한 조합으로 학생 선발)</p> <p>1. 학생부 100%, 2. 학생부 100%+수능최저기준, 3. 논술 80%+학생부 20%, 4. 논술 70%+학생부 30%+수능최저기준 *학업적성평가형도 동일한 방식 적용</p> <p>4.의대 입학사정관 10명으로 확대</p>													
<b>차의과학대학교</b>		<b>모집단위</b>	<b>모집 인원(명)</b>	<b>구분</b>	<b>전형요소별 반영비율(%)</b>			<b>최저학력기준</b>					
수시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	112	우선70% 일반30%	100			있음					
	기회균형선발	전 모집단위	10	일괄	60	면접20	서류20	있음					
	자기추천	전 모집단위	38	1단계 2단계	50 40	면접20	서류50 서류20	있음					
<b>한양대학교</b>		<b>모집 단위</b>	<b>모집 인원</b>	<b>전형 방법</b>	<b>전형요소 및 반영비율</b>			<b>수능 최저기준</b>					
수시	학업 우수자	의예과 제외	282	1단계	학생부(교과) 100								
			243	2단계	우선선발	입학사정관 종합평가 70 + 면접 30		X					
			115		일반선발	입학사정관 종합평가 70 + 면접 30		○					
1차	브레인한양	지정 모집단위	34	일괄사정	입학사정관 종합평가 100내신 및 공인어학성적 기준이 없어지고(인문/상경) 전년도와 달리 학생부 교과영역을 제외한 학생부 비교과영역과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입학사정관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					
수시	미래인재	지정 모집단위	106	1단계	입학사정관 종합평가 100	사범대학에서 최대 20명을 선발한다	X						
				2단계	1단계 성적 40 + 면접 60								
	2차	사랑의실천 농어촌학생 (정원 외)		1단계	입학사정관 종합평가 100		X						
				2단계	면접 60 + 1단계 성적 40								
정시 (나)	특성화고교 출신자 기회균형 선발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 모집단위	50	수능	입학사정관종합평가	계	○						
								50	50	100			
											50	50	100
<p>1. 학업우수자(의예과 제외) : 1단계 성적 우수자 상위 50%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최종 선발. 충실한 고교생활과 지원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등에 강점이 있는 지원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반 선발로 또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수능 준비 역시 중요하다.</p> <p>2. 브레인한양 : 내신 및 공인어학성적 기준이 없어지고(인문/상경) 전년도와 달리 학생부 교과영역을 제외한</p>													

학생부 비교과영역과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입학사정관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3. 미래인재 : 사범대학에서 최대 20명을 선발. 충실한 고교생활(사범대 26명에서 70명으로 크게 증가)													
4. 서울 전체2,893명 선발 중 888명(30.6%)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최저학력기준					
1차	입학 사정관제	HUFS미네르바전형(203)	500	1단계(3배)	30	전공적성70			없음				
				2단계		심층면접100							
	21세기인재전형(297)	1단계(3배)		30		학교생활평가70		없음					
		2단계			심층면접100								
사회적배려대상자			85	일괄	100			없음					
홍익대학교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1차	홍익미래 인재전형	경제학, 법학, 경영학, 자율전공	60	1단계	70	서류30		없음					
				2단계	40	면접30, 서류30							
		자율전공(미술), 미술계열		1단계	100								
				2단계	70	서류30							
		3단계	40	면접30, 서류30									
GIST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수시	입학사정관전형	기초교육학부	90명	1단계(3배)	서류100			없음					
				2단계	서류50, 면접50								
GIST		모집 단위	모집인원 (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정시 군외	입학사정 관전형	기초교육 학부	20+수시 미충원 이월인원	1단계(3배)	10	80	에세이10	16.7	수리 가 33.3 나	16.7	외국어 탐구 사회 과학	33.3	수능 수(가) 2등급 과탐 1과목 1등급
				2단계			면접100						
KAIST		모집 단위	모집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입학 사정 관제	학교장 추천	전 모집단위	150명 내외	1단계	서류 및 방문면접 100			없음					
				2단계	심층면접 100								
	일반 전형	전 모집단위		750명 내외	1단계	서류 100							
					2단계	개인 면접 및 토의면접 100							
POSTECH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수시	입학사정 관제	창의IT전형	창의IT융합공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화학공학과	20	1단계	100			없음				
					2단계	100							
		수학과		1단계	100								
				2단계	100								
		물리학과		1단계	100								
				2단계	100								
		생명과학과		1단계	100								
				2단계	100								
		화학과		1단계	100								
				2단계	100								
산업경영공학과	1단계	100											
	2단계	100											
화학공학과	25	1단계	100										



					2단계		100	
					1단계		100	
			신소재공학과	25	2단계		100	
					1단계		100	
			컴퓨터공학과	25	2단계		100	
					1단계		100	
			기계공학과	30	2단계		100	
					1단계		100	
			전자전기공학과	35	2단계		100	
					1단계		100	
			일반학부	70	2단계		100	
							100	
UNIST			모집단위	모집 인원(명)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면접	서류	
수시	기회균등전형 (정원외)	경영계열	4	1단계			100	없음
				2단계	100			
	이공계열	21	1단계			100		
				2단계	100			
	과학영재 및 글로벌 리더 전형 1 Track(탐구역량 우수자)	이공계열	160	1단계			100	
				2단계	100			
	과학영재 및 글로벌 리더 전형 2 Track(학업역량 우수자)	경영계열	30	1단계			100	
				2단계	100			
	이공계열	200	1단계			100		
			2단계	100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경영계열	34	1단계			100	
				2단계	100			
	이공계열	206	1단계			100		
			2단계	100				
지역고교 출신자 전형	경영계열	6	1단계			100		
			2단계	100				
이공계열	39	1단계			100			
		2단계	100					



## 10. 입학사정관제의 각종 평가 루브릭

대학별 자기소개서 평가 루브릭 양식의 예

### 자기소개서 평가지

평가자 번호	
평가자 성명	

#### • 평가점수

수험번호	지원학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비고

#### • 평가소견

※ 평가자로서 평가내용과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 • 평가기준

- ※ 지원자의 목표의식은 뚜렷하며 향후 계획은 구체적인가? (목표의식, 구체성)
- ※ 지원자의 고교시절 성취는 탁월하며 해당 전공에 적합한가? (탁월성, 전공적합성)
- ※ 지원자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를 적절히 극복하였는가? (역경극복력)

등급	평가기준(목표의식, 구체성, 탁월성, 전공적합성, 역경극복력)
A	미래 목표 뚜렷함. 계획이 구체적. 다양하고 탁월한 성취. 역경 극복 수준 상
B	미래 목표 뚜렷함. 계획이 구체적. 1~2가지 탁월한 성취. 역경 극복 수준 상
C	목표와 계획이 존재. 중간 이상의 노력. 역경 극복 수준 중
D	목표와 계획이 미약. 중간 정도의 노력. 역경 극복 수준 중
E	목표와 계획이 미약. 내용이 부실함. 재능이 미약함. 역경 극복 수준 하
F	목표와 계획이 미약. 내용이 부실함. 특별한 재능이 없음. 역경 극복 수준 하



대학별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의 평가 루브릭의 예시

항목	평가 내용	평점				
		매우 낮음 (4점)	낮음 (3점)	보통 (2점)	높음 (1점)	매우 높음 (0점)
대학 수업 이수 능력	1.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가?					
	공동체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 본 경험이 있는가?					
	리더십을 발휘한 경력이 있는가?					
	2. 전공 학문에 대한 의욕과 관심은 있는가?					
	학과 지원 동기과 열의가 강한가?					
	전공과 적합한 학문적 배경과 준비는 갖추었는가?					
	3.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있는가?					
	외국어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추고 있는가?					
글로벌 마인드	1. 미래를 선도하는 도전 정신이 있는가?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자기계발 노력이 있는가?					
	세계화와 관계된 의미 깊은 경험은 있는가?					
	2. 간 학문적이고 열린 사고를 갖추고 있는가?					
	전공과 관련 없는 독서 활동을 하였는가?					
	독창적으로 사고하며 문제해결을 한 적이 있는가?					
	3. 다문화 이해와 상황 파악력 능력이 있는가?					
	해외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역경 극복 의지	1. 자신의 단점을 승화하려는 정서적 성숙도 파악					
	자신의 단점을 승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인내심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한 사례가 있는가?					
	2.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직업관을 갖추고 있는가?					
	직업에 대한 준비와 열정이 있는가?					
	졸업 후 진로 계획이 구체적인가?					
	3. 타인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태도가 있는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가?					
	남을 섬기기 위해 희생해 본 경험이 있는가?					

2012. . .

평가위원

인

대학별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지(Ⅱ) 루브릭의 예시

		평가자 번호					
		평가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과					
성실성	A	B	C	D	E	F	
1)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는가? 2) 하나의 계발활동부서 또는 동아리에서 오래 활동했는가? 3) 전 학년에 걸쳐 모든 교과와 성적이 우수한가?							
잠재력	A	B	C	D	E	F	
*출결상황, 특별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1)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는가? 2) 한 분야의 대회에서 수상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는가?							
전문성	A	B	C	D	E	F	
*교과학습발달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1) 특정교과에서 일관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가? 2) 전공유관 우수 수상 실적이 있는가?    3) 특정분야 자격증이 있는가? (전문계고) 4) 특정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전문계고)							
적성·소질 계발 노력	A	B	C	D	E	F	
*교과학습발달상황, 수상경력							
1) 자신의 특기, 진로희망, 활동내역, 교과 성적, 수상실적이 일치하는가?							
동아리활동	A	B	C	D	E	F	
*수상경력, 진로지도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인가?    2) 교수학습활동 등 대외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가?							
봉사활동	A	B	C	D	E	F	
*특별활동상황							
1) 얼마나 어렵고 힘든 봉사활동인가?    2)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가? 3) 하나의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였는가? 4) 규모와 상관없이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해왔는지? 5) 봉사활동에 대한 나름의 이유와 철학이 있는가? 6) 정부나 시도의 공식적인 선발과정이 있는가?							
영어능력	A	B	C	D	E	F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1) 영어 관련 교과목 성적이나 공인영어시험성적이 우수한가? 2) 지원자의 가정환경은 어떠한가? 3) 어떻게 공인영어성적을 성취하였는가? 4) 영어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하여 실제로 사회에 기여하였는가?							
*교과학습발달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대학별 인성면접 루브릭의 예시

### 인성 면접고사 평가표

수험번호		성명	
------	--	----	--

2012학년도

평가항목	평가성적	비고
(1) 리더십		
(2) 사회봉사성		
(3) 도덕성		
(4) 전공적합성		
(5) 창의성(잠재력)		
종합평가성적		

※ 결정적 문제가 있음  (단, 위원 전원 합의로서만 가능)

사유 :

면접위원 \_\_\_\_\_ (인)

확 인 \_\_\_\_\_ (인)

## 덧붙이는 말씀

### 초·중·고 - 입학사정관제 신드롬

초·중·고에 입학사정관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자기주도학습 열풍이 불고 있으며, 국제중과 과학고, 외국어고와 영재고, 자사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입학사정관제)에 응시하기 위해서 초·중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열중한 것이다. 이들은 이것이 실패한다고 해도 일반고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소위 스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 무제한 스펙 쌓기 열풍에 빠지는 것이다. 신입사원 선발 방식 또한 입학사정관제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도 있지만, 교육적 방향성과 질과 과정은 유행병처럼 휘몰아칠 일이 아니다. 내적 성장과 질적 방향성 설정에 관계자들이 진정성 있는 천착이 필요하다.

### 입학사정관제 - 교사의 절대적 헌신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전형자료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는 이 외에도 소위 개인적인 스펙이 있다. 초중고를 거치면서 꾸준히 쌓아온 다양한 수상, 글, 사진, 연구물, 학습결과물, 활동 사진과 책자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탑재하고 제출하는 방식을 지도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모집단위의 올바른 선택과 전략의 상담부터 꾸준히 읽어야 할 독서지도와 토론 면접의 준비와 의사소통 방식의 지도 역시 교사의 담당이다.

입학사정관제가 고교 교내활동으로 영역을 제한한다는 자체가 교사의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학생을 위한 모델을 제공하는 마인드로 전제로 한다.

창의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적 유의미성을 고려하고 창의성과 협동성, 그리고 개별 학생의 역할과 임무에 유의하며 행사를 치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시상제를 위한 수준있는 경시를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모든 시상과 경시는 사전 공고하여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고3이 된 학생



들에게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자기추천서, 생애설계 등의 로드맵과 글쓰기를 다듬어 주어야 한다.

면접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문항을 개발하여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인성, 잠재력, 자기주도성과 리더십 관련 상담과 지도를 해야 하기도 한다. 더구나 장시간 토론과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황을 설정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실면접을 수차례 진행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후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입학사정관제의 진정성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글을 시작하며 다양한 입시제도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다양성이 많을수록 좋다는 주장은 사실 교사의 끝없는 헌신과 노력과 열정을 전제로만 가능하다. 가정과 사회보다 교내 활동을 위주로 평가하는 기준이 이미 대교협 기준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